http://www.kira.or.kr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이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건축사

건축사 2005 / 07

Korean Architects

0

n

C E 





###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After the Congress of Architects

12년 만에 부활한 전국건축사대회가 항도 부산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양일간 4,500여 회원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 주관한 본 행사는 몇 가지 새로운 기록들을 수립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는 본 협회를 떠나 시·도 건축사회에서 주관한 것이요, 둘째는 회원의 의무참석에서 자율참석으로 전환된 것이고, 셋째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금세기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인 점이다. 위와 같은 것은 대회 전에 이미 예정된 기록들인 바, 이를 비견해 평가한다면 본 대회는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성공적이라고 평하는 첫째 이유는 회원의 참석률로서, 참석한 모든 회원과 이를 독려하고 권면한 시도회장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다.

애초 주최자인 본 협회나 주관부서인 부산건축사회는 과거와 다른 자율참석과 불경기 그리고 전회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가 부산이라는 거리관계 때문에 회원 참석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가족 동반을 권유하고, 그 모두가 대회 장에 입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서울가족 650여명을 비롯하여 4,500여 회원가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회원만 놓고 볼 때는 4,000여명으로 회원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나 서울 경기회원을 제외하면 여타 시도는 대부분이 참석한 셈이다. 또한 가 족 모두가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뜨거운 건축사들의 열기를 보여준 것은 망외의 소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는 박신욱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60여명 부산집행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이를 뒷받침한 부산회원 전체의 힘이라고 본다. 금년 3월 본 협회의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한 본 대회 집행위원회 77명 위원들은 모두가 본업을 팽개칠 정도로 헌신하였으며, 특히 부산위원들 중 몇 명은 날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다. 그렇기에 공의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여도 이를 즐길 하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참석한 회원에게 그 공을 먼저 돌린 것이다.

대회는 첫날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대회와 2004 건축문화대상을 위주로 한 야외 건축전 그리고 건축사 회화전의 개막으로

시작되어 둘째날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을 시발로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 건축사대회, 건축문화혁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부산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렘 쿨하스 등이 참여한 국제건축심포지엄과 친환경 건축자재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사 만남의 광장 축제로 그 막을 내렸다.

생각보다 많은 11개 팀이 참가한 축구대회는 승부를 떠나 참가한 300여회원이 시합 때는 잔디구장에서, 시합 후에는 맥주파티로 하나가 되는 기 쁨을 누렸다. 심포지엄장에는 어느 곳이나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특히 본협 주관 세미나에는 500명 수용에, 600부를 준비한 책자가 동이 날 정도로 성확을 이루었다.

개막식 또한 화려하고 장엄하였다. 식전행사로 계획된 패션쇼는 회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석하는 등 기획도 참신하였으며, 화려한 입장식 세레모 니와 단상석을 만들지 않은 의전 등도 탈권위주의시대에 걸 맞는 기획이었다. 회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도 싱싱한 회와 진공포장 도시락을 제공함으 로써 위생과 부산특성을 모두 고려한 수작이었으며, 건축사 만남의 광장의 음식도 맛이 있었다. 고적대 퍼레이드와 자동차가 걸린 경품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점수를 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더불어 이쉬운 점도 많았다.

작게는 밤 늦게 관광희망자를 조시한다거나, 각 시·도회와 주관측의 연결고리 부실과 이로 인해 회원들이 우왕좌왕 한 것, 무더운 날씨, 나중에 정리되긴 하였으나 음료수를 팔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비치한 것, 넥타이를 권장한 구태, 의전문제로 한밤까지 시간을 허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대회 팜프렛의 글머리를 비우지 아니한 편집과 지역 광고를 우선함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묵과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또한, 첫날이 너무나 단조로워 대회기간이 이들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하였다. 따라서 다음 대회부터는 좀 더 풋성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대회기간과 그에 맞는 날짜별, 시간대별 특성을 살린 계획의 다양화이다. 이번 대회 첫날은 동아리 모임인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대 회와 전국건축사 회화전 뿐이었다. 이를 등산, 골프, 볼링, 바둑, 서예 등 다양한 동아리 모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건축사라는 동류항 속에 있으면 서 취미가 같을 때, 그 친밀감은 배수로 늘어난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건고하듯,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본 협회는 저절로 활성화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이렇게 동아리별로 대회를 치른 첫날 저녁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밤 행사를 갖고, 초기처럼 시도건축사회별로 준비한 장기 등 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합창, 기악연주, 국악 등 다양하지 않았던가.

다음날은 학구적인 시간으로 오전을 할애하여 좀 더 다양한 심포지엄과 강의를 개최하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여야 하며, 가족들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과 접수도 예약제를 시행하여 다양화, 완벽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대회는 점심식사 후 곧바로 시작하여 5시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같이 내반축사 중 차 시간 때문에 수백명이 우르르 식장을 빠져나가는 결례를 밝지할 수 있으며, 촛부히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대회의 공과와 향후 보완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아쉬운 것을 치지도외한 것이 있는 바, 대회장의 대회사와 결의문이 변형 된 건의문 그리고 건축문화선언문이었다. 정작 알맹이는 어렵게 다듬은 후자의 두개에 있었는데, 장관과 정치인들이 들은 것은 미사여구로 장식된 대회사뿐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겪는 일을 이번에는 '안 그렇겠지' 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며, 필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알맹이를 대회사에 넣는 지혜가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 '선언문의 포인트라도 넣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힘들게 초청한 그들이기에 그 노력이 더욱 더 어깝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끝났기 보다는 '보다 나온 다음 대회'를 위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치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잘잘못을 엄정히 기록하여 내일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든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뛸 수 있는 힘이 이 대회를 통해 모두에게 용솟음치기를 기워하다. 圖

### 민간투자에 의한 B.T.L. 이렇게 해야한다.

The Right Way for Private Investment-Based B.T.L.(Build Transfer Lease)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은 교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로 건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은 법 제4조에서 명시된대로 건물이나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일정기간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은뒤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방식은 위한소지의 문제와 함께 일부 대형업체에 대한 특혜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걱정속에서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형식대로 B.T.L.방식에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이 시행된다면 그 대상범위가 법 9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철도, 도로, 항만, 공항시설은 물론이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 시설, 임대주택, 노유자시설 등 거의 모든 공공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국민을 위한 훌륭한 시설로 승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몇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시설들이 국가적 또는 사회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공익적인 시설 또는 건축물이므로 민간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적 대상이 아닌 창조와 공익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정책이라도 시행자의 주된 목적을 경제적인 이익에 둔다면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과 공공성은 퇴화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국민 혈세의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민간업체들이 일정부분의 이익이 확보되는 전제를 가지고 사업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공익과 공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수가 없다.

### 둘째, 민간투자자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와 감리는 민간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업체 선정 방법은 민간투자자가 설계, 시공을 모두 함께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건설하여 완성된 건물을 인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턴키방식은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로 오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같은 방법으로 거의 모든 공공시설 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마저 민간투자자에게 맡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더 큰 오해가 생길 것이다.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욕구를 기술 적으로 견제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은 설계자와 감리자이다. 그런데 이들을 민간투자자가 선정한다면 발주처의 요 구사항이나 의견보다는 일을 주는 민간투자자의 의견이 설계나 감리에 반영될 것이며,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자의 의견이 공익과 공공성에 한당함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계와 감리가 B.T.L.방식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설계, 감리 비용을 민간 투자자가 지불하되 설계자와 감리자는 발주처에서 미리 선정하여 민 간투자자에게 통보함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자의 선정은 이미 계획된 설계안에 대한 건설계획과 운영계획안을 기준하면 될 것이다.

특히, 설계가 이 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또 다른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기준에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설계안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70%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투자업체의 경제력이나 수익률, 운영계획 등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설계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설계안이 사장된 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니 분명히 이 방법은 국가적인 사업방법으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중소 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대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기본설계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공사비의 약 1%에 가까운데 제안하는 민간투자자마다 이와같은 선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으로서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B.T.L.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타 부처도 이 방법을 도입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하고자 한다. 대구 시립미술관의 경우는 이미 현상설계에 의하여 선정된 설계작품을 가지고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며, 설계와 시공법에 대한 보충제안을 V.E(Value Engineering) 통하여 받아들이며, 감리는 발주자측인 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발주하여 적극적인 발주자의 의견이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셋째. 이번 기회가 설계와 건설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좋은 건축물은 좋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모든 설계작품의 선정은 공정한 현상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작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계작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나라 건축문화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설계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설계 응모할 자격을 주는 적격심사제도로 인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인 건축사에게는 응모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을 B.T.L.의 사업평가기준에도 포함시킬 태세이니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대 참사로 기억되는 무역센터의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세계적 건축가로 명성을 드높인 다니엘 리베스킨트에게 한국과 같은 적격심사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아마 응모할 자격도 얻지 못했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 넷째, B.T.L.사업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B.T.L.사업 지체가 자본력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초 대형 기업들의 건설수주 진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일년에 수주할 수 있는 최대면적, 수주횟수, 수주금액 등에 대한 한계를 두어 독과점이 되는 요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민간투자자에게는 그 지방을 위하여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쉽도록 지방업체에 대한 안배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은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의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걸맞는 훌륭한 정책의 거름이 되어 국민을 위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추구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대기업들이 기업의 이익금을 건물로 기부하는 사회환원 정책의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簡

### 2005 전국건축사대회

12년 만에 부활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지난 6월 25일 부산전시 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협회 건축사회원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6월 24일 개최된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을 시작으로 25일 대망의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회식과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패션쇼, 건축 사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최시에는 문화상 열린우리당의장, 김무성 한나라당사무총장,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 등 여러 내외 귀빈이 참석해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개회식은 집 행위원장인 박신욱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장의 입장으로 시작돼 각 시·도 건축사회장, 본 협회 고문·이사·감사와 내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장 인 이철호 우리협회회장의 입장으로 대화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협화는 건의문를 통해 '전국 1만여 건축사는 21세기 건축문 화발전에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10만 예비건축사, 100만 건축가 족의 생활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정책개발을 촉구한다.' 고 천명했다. 그 첫번째로 건축사의 사회 적 책임에 걸맞는 전문가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 과 제도의 정비보완을, 둘째로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 당하 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 거래를 위해 업무대가기준의 보장을, 셋째로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건 설업체의 설계경업논의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건 의문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전체 명의로 발표했다. 또한, 선언문을 통해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며 제과제로서 건축문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등의 혁신을, 제2과제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배출·관리 등의 혁신을, 제3과제로 서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 보 전·육성을 위한 혁신을, 제4과제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 화 해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으로 사회가 전환되도록 혁신해야 함 을 강조했다.

이울러, 이와 같은 혁신의 실천은 미래로 가져가야 할 국가난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문화도 AT(Architecture Technology)산업으로 규정하고 건축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육성 발전시켜 현 정부의 조직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세계시장의 선진문화와 경쟁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벡스코 전시장 마당에서 열린 '건축사 만남의 광장' 행사에는 2005전국건축사대회에 참여했던 4천여 건축시와 동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식사와 함께 마련된 행사에 동참했다.

'건축사 만남의 광장' 행사는 방송인 이상용씨의 사회로 연예인의 축하무대와 노래자랑, 디스코경연 등이 펼쳐졌으며, 행운의 경품 추첨행사에서는 자동차와 노트북 등 많은 경품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증정됐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이철호 본 협회 회장은 '2005전국건축사대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한 건축사회원들과 만세 삼창으로 대회결과를 선포하며 12년 만에 개최된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주 최 : 대 한 건 즉 사 앱 회 (KIRA 주관 : 부산평역 시 건 즉 사 회 (BIRA





### 2005전국건축사대회 입장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입장식에서 대회 주관을 맡은 박신욱 집행위원장이 부산 건축사회기와 함께 입장하면서 각 시·도건축사회기가 입장했고, 이어 본협회 임원진과 고문, 내빈이 입장했다. 끝으로 대회장인 이철호 회장이 입장한 뒤 대 회기가 입장, 박신욱 집행위원장이 대회기를 이철호 회장에게 넘기자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찼다.

### 이철호 대회장의 대회사 낭독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을 맡은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건축사회원여러분들의 회합과 단합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경쟁력있는 건축, 21 세기 건축문화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고,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 국민 속의 건축사를 선포하는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축사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참으로 감동의 물결이며, 건축시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서두를 깨내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 건축시협회는 세계 속의 한국을 디자인하는 첨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회가 건축사 여러분의 위상과 긍지를 더욱 높이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중흥 을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 축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대신하여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축사를 대독했는데 "건축사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는 바로 창작예술이며, 그것은 곧 훌륭한 문화자산이므로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고 격려하고, "불합 리한 제도 등으로 창작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축사

축사 낭독에 나선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건축문화 선진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러한 축제가 건축문화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건축사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축환경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라 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은 "오는 11월이면 2005 APEC 정상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시 건축의 중요성과 상장성 그리고 도시 미관이 그 도시의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시는 부산다운 건축 문화를 꽃피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사의 많은 과식을 당부했다.

### 본 협회 한명수 이사의 건축문화 혁신대회 선언문 낭독

건축문화 혁신대회를 시작하며 본 협회 한명수 이사의 건축문화 혁신대회 선언 문 낭독이 이어졌다. 선언문에서는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며, 건축문 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배 출·관리,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 보 전·육성,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화 혜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 으로 사회가 전환되도록 혁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건의문 낭독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첫째,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전문 가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할 것과 둘째,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 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 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대가기준의 보장을 요 망하고, 셋째, 건축문회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업체의 설계경업논의 등을 원천적 으로 봉쇄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이철호 대회장에게 전달했다.















###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6월 25일 10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2005전국건축사대회 선 포식'에서는 50여 내외빈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호 대회장의 2005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이 거행됐다.

이철호 대회장은 선포문에서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8,200여 건축사 회원 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건축사 최대의 행사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 성과 문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조를 부 탁했다.

###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

6월 25일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여에 걸쳐 벡스코 강의실에서 개최된 협화주관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는 좌석 500석을 가득 메웠고 준비한 600여부의 책자도 모자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제는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으로서 이학기 동아대학교 교수가 강의하였고, 제2주제는 'CM 적용사례'로서 도상의 ITM코퍼레이션 부사장이 강의했다.

### 건축사 만남의 광장

벡스코 제 1전시실에서 개최된 2005전국건축사대회가 끝나자 건축사들은 벡스 코 광장에 마련된 무대로 이동하여 방송인 이상용씨가 진행하는 건축사와 그 기족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에 참여했다. 노래자랑과 연예인 축하쇼 및 여성 건축사 디스코 쇼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이철호 대회장의 성공적인 2005전국건축사대회 결과 선포와 경품 추첨이 이어져 회원들은 소형 자동차 등 많은 경품을 가지고 돌아갔다.

### 패션쇼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세정은 본 대회에 앞서 식전행 사로 패션쇼를 준비했다. 이 패션쇼에는 2명의 남자건축사(노상철, 도무찬회원 과 3명의 여성건축사(김수연, 박영순, 이원영)회원이 함께 출연하여 뜨거운 갈 채를 받았다.

###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

6월 24일 12시 30분부터 부산 북구 구민운동장에서는 전국에서 약 11개팀, 300여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가 개최 됐다.

승부를 떠난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었던 이번 축구대회에서는 울산건축사회 축구단이 우승했으며, 준우승에는 서울 광진구 축구단이 차지했다. 아울러 최우 수선수상은 울산의 김진산 회원이, 최다특점상은 대회 중 4골을 넣은 울산의 신현종 회원에게 돌아갔다.



### 전국건축사 회화전

6월 24일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개막과 함께 벡스코 3전시장에서 열린 전 국건축사 회화전. 40여 건축사 회원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되어 문화제 내내 관람객들이 줄을 이다. 특히 회화전에 참여한 건축사들의 평소 바쁜 일과 중에 도 시간을 내 화폭에 담은 그림 실력을 본 관람객들은 건축물이 그토록 아름다 운 까닭을 일겠다며 감탄을 자아냈다.



### 2005전국건축사대회장 전경

2005전국건축사대회는 12년 만에 부활되어 지난 6월 25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협회 건축사회원 4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6월 24일 개최된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 경기대회, 전국건축사 회화전을 시작으로 25일 대망의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회식과 건설사업관리(CM) 세미나, 패션쇼, 건축사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2005전국건축사대회 참석 내외빈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주요 내외빈은 추병직 건설교통 부장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문희상 열린 우리당 당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의회 관계자, 김신재 부산국제건축문화재 조직위원장, 이충협 동의과학대학 학장, 현대산업 개발(주) 이경우부장, (주)삼우EMC 임재춘 전무이사, 중국상해시 감찰설계행업 협회 황 지 비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선 포 문 건 의 서

200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는 8,200여 건축사 회원의 회합과 단결을 위한 건축사 최대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93년이후 12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건축사의 위상 과 자존심 회복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의 중흥을 꾀하고자 하는 원대한 취지를 당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걸맞게 해외의 유명 건축시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은 물론 건축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미나, 간축설계작 품·회화·자재전시회, 결식이동돔기 시·도대항 축구대회 및 건축물 견학 등 '제5회 부사국제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게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건축사 스스로의 성찰과 건축문화 개혁을 통해 사 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건축문화혁신 선언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네. IT

이러한 행사가 건축인들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범국민적인 관심속에 성공 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이 철 호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 전국 1만여 건축사는 21세기 건축문화발전에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10만 예비건축사, 100만 건축가족의 생활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2005 전국 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 1.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전문가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 록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중 것을 촉구합니다.
- 2. 건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 당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건축문화 활동에 종시할 수 있도록 진정한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대가기준의 보정을 요망합니다.
- 건축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사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논의 등을 원천적 으로 봉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일동

### 건축문화 선언문

오늘 우리 1만여 회원과 50만 기족들은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건축문화 환경을 되짚어 보고 21세기 미래에 펼쳐질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의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는 건축문화와 그 관련 산업에 있어 공존과 공유의 단일 문화권 시대에 돌입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서비스 시장개방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간 민족적 특성과 삶의 개념까지도 현실 앞에 경쟁으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문화 현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문화 경쟁은 경제논리와 제한된 창작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제약 일번도의 통과 의례형 법체계 와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지배구조 형태도 존재 합니다.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기준들은 법률적 최소기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아이디어 창 작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가 건축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상까지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적 가치를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고와 인식으로 전문인의 무형작가치를 천시하는 사회풍조가 팽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문화를 이어가야 할, 후진들을 담을 사회 그릇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산진 작가들은 아이디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제도와 사회 인식 등은 우리 건축문화 및 그 관련 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창달의 토양이 되어야할 건축문화 시장은 도덕적 해이와 무질서로 봉괴되고 문화 경쟁보다는 생존 경쟁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문화여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문제들을 주변상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변화와 개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건축문화는 세계를 향한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이러한 문제 접근은 문화만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문화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산 업을 양면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분야는 특히 독창성과 무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만들어 가는 자들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화혁신 기획단' 설치운영은 건축문화에 대한 커다란 인식변화이며, 그 성과에 따라 현 참여정부의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선정한 건축문화 4대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과제 : 건축문화와 미래산업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 등이 혁신 되어야 합니다.

제2과제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배출, 관리 등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제3과제 : 독창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 디자인 산업분야의 발굴, 보전, 육성을 위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제4과제 :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떻게 건축문화 혜택을 증진시켜 주느냐의 경쟁으로 사회가 전화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문화 혁신 실천은 미래로 가져가야 할 국가산업의 한분이로서 IT, BT산업뿐만 아니라, 건축문화도 ATKArchitecture Technology)산업으로 규정하고, 건축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의 조직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세계시장의 선진문화와 경쟁 하여 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원은 취약하나 창의성과 독창성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 디자인 창작산업이야 말로 세계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한 산업분야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국민들을 철학과 시상, 이념까지 담겨져 있는 건축문화 도시 속의 삶으로 증진 시킬 때 비로소 가능 한니다

이 자리는 자기학신을 통하여 건축문화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충정에서 비롯된 이 외침이 헛되지 않고 사회곳곳에 퍼지고, 정착되어 대한민 국이 건축문화 감국으로 거듭나길 비리는 일념으로 오늘 이 성언을 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한건축사현회 회원일동

### 대 회 사

존경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2005 전국건축시대회' 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문희상 열린우리당의장님, 한나리당 박근혜대표님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김무성 사무총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양문화도시 부산에서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건축사대회가 지난 93년 이후 12년 만에 그리고 우리대한 건축사협회 청립4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게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고 소중하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해 건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세기고,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나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이 그 시대의 문화를 구한하는 근본으로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고, 건축사가 건축문화청조의 주체로서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을 실현하는 전문가적 지위를 굳건히 해 건축에 대한 정체성을 갖춘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모두가 신념을 잃지 않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건축사로서의 올바른 정체성확립에 모두 나서야합니다. 이울러, 건축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단히 뭉쳐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어야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향해 정 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서로간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가는 강한 의지와 노력입니다. 지혜와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미래의 건축문화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협회 또한 가장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건축사 여러분의 한신과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든든한 협회, 화원을 위하는 협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건축사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건축사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경쟁력 있는 건축, 21세기 건축문화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그 출 발점으로 삼음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섬시다. '2005 전국건축사대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건축사의 힘을 비탕으로 국민 속의 건축사를 선포하는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굳게 손잡고 나아갈 때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는 바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국건축사대화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이 한껏 드높여지고, 앞으로 새로운 건축의 중흥기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아울리, 오늘 "2005 전국건축사대회"가 개최된 것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축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찬해주신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우리 일반여 전국건축사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기까지 한신적으로 노력하신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박신욱화장과 진행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 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회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5일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이 철 호 2005전국건축사대회 대회장

### 2005 전국건축사 대회 CM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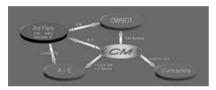
### CM 그리고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CM and the Expansion of the Architect's Role

이학기 /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v Lee Hak-kee

### CM이란?

### CM의 개념



- 프로젝트의 발굴 · 기획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 공 · 시운전 · 조업 · 유지관리의 건설사업의 Life Cvcle에서
- 전문적 지식, 정보기술, 체계적인 관리 기법
- 총괄적인 관리업무
- 사업참가자들의 활동을 계획·조정·통제

### CM의 정의

- CMAA(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완공까지 사업기간·사업비·품질의 관 리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 · AGCA(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 건설 프로젝트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프로젝트의 초기단 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간설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
- ·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설계단계 · 시공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에 걸쳐 요구되고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건축사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수한 관리 서비스
- 국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 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 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했하는 것

### CM의 유형

### CM의 기본적인 개념 구분

- 관리방식으로서의 CM
-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술분야 통합·조정·통제의 관리기술
- 건설사업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관리기술의 전문분이로 발전
- 발주(계약)방식으로서의 CM
- 건설시업 수행에서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수행체계
- 관리방식으로 CM기능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방식
- 계약형태에 따른 CM 분류
- CM은 정형적인 틀이 없음 : 사업의 목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 일반적인 계약형태 : CM for Fee 방식 · CM at Risk 방식

### CM 계약방식의 유형

- CM fer Fee 방식
- CM의 전형적인 방법
- CM은 발주자의 Agency로서 순수관리업무만 수행하는 방식
- 공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귀속



- CM at Risk 방식
- CM이 발주자를 대신해 책임 지고 공사수행
- 공사결과에 대한 Risk 부담
- 특정공사의 시공경험 요구 시 효과적



### CM의 장점

- 프로젝트 관련조직(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들간의 마찰 감소
- 프로젝트 관련 조직간의 지속적인 협의 가능
-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조정능력 향상
- 품질향상, 공기단축, 원가절감
- 설계단계에서 VE(Value Engineering)의 적용 용이
- 설계단계에서 전반적인 시공지식 반영
- 재설계의 감소 및 정확한 공사예정가격 예측이 가능

026

- Fast Tracking Method 적용에 의한 공기단축 가능
- 시공자의 리스크(Risk) 감소

※ 법 제2조 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활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하다

### CM의 업무내용

### CMAA 및 국내 기준

미국 CM협회(CMAA)의 표준 CM서비스 기준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건교부 건과 58824-656, 2001.8.20



### CM의 단계별 업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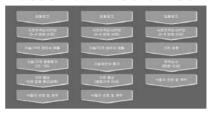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 단계별 업무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실시업관리 수용계획서 작성 수인 주란				역 할	분 담		
선생시합인의 함치사 작성 승인 주관	단 계	업 무 내 용	발주청	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비고
## 점입분류체계 / 사업반호체계 구축   승인 주판     ## 점입분류체계 / 사업반호체계 구축   상인 주판   철조   철조   전단개공론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승인	주관	-	-	
사업 전략 전략시험을 다 전략 기원 및 PMS 운영 및 표도 주관 및 표도 전략개공론 전략시합관리 수위계획사 절차서 접당하게 등의 운영 및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위계획사 절차서 접당하게 등의 운영 및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위형병보고 경토 주관 항조 한조 전단개공론 선택기가 선명 기관에 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기가 전략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승인	주관	-	-	
관리	1101	작업분류체계 / 사업번호체계 구축	승인	주관	-	-	
작수 전설사업리 수위계획 시 정치시, 합도 (유건) 준관 함조 함조 (변경시중) 원명 및 관리 전설사업관리 수위계획 시 기 (유건) 원기가 등이 (유건) 원기가 기 (유건) 기		사업정보 축적 · 관리 및 PMIS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보고 검토 주관 환조 환조 전단계공로 설계자 선용 수관 환조		잘업분류체계 / 사업번호체계 등의	_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변경시승인)
설계자 선정 주관 변조 기관성계 VE 연선 주관 현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조정업무	협조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통
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합조 - 의사병원 및 개복공사비 임료 승인 주관 합조 - 의사병원생 및 가성관리 승인 주관 합조 - 기본설계 조징 및 연제성 리토 임료 주관 한조 - 기본설계 용료관리 승인 주관 한조 - 의자 산성의 자연 수관 한조 - 의사병계 VE 수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계성 검토 승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계성 관리 수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계성 검토 승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계성 검토 승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기성 검토 원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기성 검토 원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기성 검토 원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기성 검토 원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징 및 연기성 검토 원인 주관 한조 - 의사병계 조정 및 관리계획 수임 승인 주관 한조 - 기료자제 조일 및 관리계획 수임 승인 주관 한조 - 기료자제 조일 및 관리계획 수임 승인 주관 한조 -		건설사업관리 수행현황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전단계공토
기본 설치에 변석 및 개략공사비 경토 승인 주관 합조 - 연기 주관 전쟁수의 및 기상라리 수인 주관 한조 - 기본설계의 돌질관리 수인 주관 한조 - 기본설계의 돌질관리 수인 주관 한조 - 연기 전체 - 연기 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설계 설계용역 진행상형 및 가성만리 승인 주관 협조 - 기관성계 조칭 및 만면서 감독 업로 주관 현조 - 기관성계 점등 업로 주관 현조 - 설계자 선명 주관 현조 - 연원 주관 연원 주관 - 연원 주관 연원 주관 - 연원 주관 연원 주관 - 연		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기본설계 조정 및 연매성 검토 검토 주관 합조 - 기본설계의 등달라리 승인 주관 합조 - 공사 발구개최 수립 승인 주관 합조 - 공사 발구개최 수립 승인 주관 합조 - 공사비본적 교사원가 작정성 검토 승인 주관 합조 - 공사비본적 교사원가 작정성 검토 승인 주관 합조 - 실시의 공장 공사비용관리계획수립 승인 주관 합조 - 설계 설계용역 진행성향 및 가성만리 승인 주관 합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안면서 검토 검토 주관 합조 - 실시설계 공장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합조 - 지급자제 조물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합조 -	기본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기본설계의 몸질판리 송인 주관 함조	설계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자 선정 주면 환호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현조 - 실시설계 VE 공사 비존계획수립 승인 주관 현조 - 공사비문적 공사원가 작정성 강토 승인 주관 현조 - 생기용역 지행성형 및 가성관리 승인 주관 현조 - 실시설계 조경 및 인명성 강토 경토 주관 현조 - 실시설계 공원관리 수입 전원 연호 연호 구 현조 - 기료자제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현조 - 지료자제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현조 -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교사원가 작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장비분석 공사원가 작정성 감토 승인 주관 합조 - 실시 공항 - 공사비통한관리회학수립 승인 주관 합조 - 설계원의 전쟁상형 및 가상라리 승인 주관 합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안에서 감토 검토 주관 합조 - 실시설계 품관리 승인 주관 합조 - 지급자제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합조 -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 경쟁 : 공사비통한관리계획수림 승인 주관 합조 - 설계용역 전쟁상황 및 가성관리 승인 주관 합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안에당 감도 접로 주관 합조 - 실시설계 폭판관리 승인 주관 합조 - 지규지제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림 승인 주관 합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설계 설계용역 전형성형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항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안면서 21로 전문 주관 항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안면서 21로 연료 주관 항조 - 지대자제 조절 및 관리계획 수임 중인 주관 항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	공정·공사비통합관리계획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설계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시고자 서저 즈과 혀지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707 60 70 100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	-	
시공 공정· 공사비 성괴분석 /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1122	공정 · 공사비 성과분석 / 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단계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용 승인 주관 협조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건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 CM사업자의 선정절차

[협상 방식] [기술/가격분리 방식] [적격심사방식]



### CM의 적용 현황

### 미국 CM의 출현배경

- 미국의 사회적 배경
- 1960년대 초반 SOC 신규투자·기존 시설물에 대한 확대 개 선 필요
- 도심재개발사업·고속도로사업 등의 건설투자 활발
- 공공공사 물량 폭주 · 민간 건설수요의 증대
- 높은 물가상승 · 공기지연 · 공사비 증가
- 새로운 시업수행방식 필요성
- 전통적 사업수행방식(설계·시공 분리발주 등)의 한계 노출
- 발주자의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단일화된 팀에 의한 사업수행 요구
- 새로운 관리기법 및 Tool 개발 적용
- Computer의 개발: 정보의 폭발
- 고도의 공정관리 기법(CPM) 개발 적용
- Fast Track, VE, LCC, Constructability Review 적용

### 미국의 CM 추진과정

### • 민간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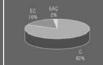
- 1963년 뉴욕 Madison Square Garden Project 최초 적용
- 시키고 100층 John Hancock Center · 뉴욕 110층 World Trade Center 적용
- 공공부문 : 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1970년 설계·시공병행방식(Phased Construction)을 바탕 으로 한 CM체계 수립

- 1972년 500만불 이상 프로젝트 CM 도입
- 1979년 CM 포기
- ▷ 연방조달체계의 각종 제한
- ▷ CM업체 자격기준의 불투명
- ▷ 공공계약행정의 이해부족
- ▷ CM의 권한이임 부족
- ▷ CM계약의 이해부족
- ▷ 신생기업의 참여로 인한 질적 퇴보
- 1983년 CM활용 제안서 작성
- 1986년 일부 변형된 형태로서의 CM 다시 적용

### 최근 미국 CM시장의 현황

• CM사의 다양한 기업 유형(2004년 기준) : ENR(Engineering News Record)





〈상위 100위권 미국 CM사의 회사유형〉

- 다양한 서비스 형태 · 대상사업의 다양화
- CM for Fee
- ▶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의 범위가 설계 · 엔지니어링 · 시공
   을 포함한 건설 전분야
- ▷ CM사 구성이 매우 다양
- CM at Risk
- ▷ 절대다수(82%)가 순수시공만을 하는 일반 건설기업
- ▷ 일부 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겸하고 있어도 시공을 위주로 하는 거석기어
- ▷ 100대 기업 중 설계나 CM을 주업역으로 하는 회사는 전무

### 미국 CM체계의 시사점

-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
- 미국의 CM사 : CM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EC회사
- 구조물의 Life Cycle를 통하여 통합된 관리체계의 수행 능력 중요
- 부문별 CM서비스의 상품화
- 미국의 CM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다양화 : 규모·참여시기· 참여형태
- 종합적 CM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
- CM서비스의 부문별 상품화는 EC화를 전제로 가능

- 시공 이전 단계(Pre-construction Phase) 기술력의 중요성
- CM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시공 이전 단계의 기술력에 좌우

### 국내 CM의 역사

### 국내 CM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 CM의 개념 소개
- 70년대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로 민간기업에 소개
- 80년 중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Project management
- 90년대 초 신공항건설사업·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 업에 CM 적용
- 제도적 차원의 추진과정
- 90년대 전후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과정에서 논의
- ▶ 1994년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계속적인 부실시공이 사회 문제화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 도입
- ▷ 종합건설업 대안으로서의 CM
- ▷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사업관리 능력 배양
- ▷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 : 종합적인 사업관리 기술 제고 필요성
- 서울월드컵주경기장 프로젝트 등 월드컵 경기장에 CM적용
  - ▷ 책임감리의 추가업무 형태
- 1999년 3월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 종합대책에 CM관련 사항 포함
- 2000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CM업무 신고제 도입
- 2001년 1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에 CM의 업무지침·대가기 준·선정기준 등 세부 시행지침 마련

### CM 관련법규

- CM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항
- CM발주 관련규정 및 대상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 1항
- CM의 세부업무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의4 제1항
- 세부사항은 CM업무지침(2001.8,20)으로 정함
- CM과 다른 용역과의 관계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
  - CM을 적용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 CM업무범위에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시행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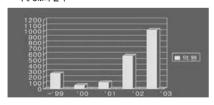
-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1호(2001,12,31)으로 정함
- CM의 대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 대기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2001.8.25) 으로 정함
- CM 손해보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3
  - 세부사항은 설계, 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 령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28(2001.1214)으로 정학

### 정부의 CM 정책방향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0~2003)
- CM방식 활성화
  - : 발주자의 관리능력 부족 보완,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 CM계약의 활성화 기반 구축
- : 예산확보방식, 업체능력 평가, 대가산정 등에 대한 시행기준 제정
- CM for Fee방식 우선 정착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4~2007)
- CM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 CM제도 정착 및 발전전략 수립
- 선진형 CM기본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시범 프로젝트의 적극추진
- 2007년까지 공공건설사업의 CM적용 점치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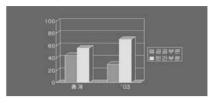
### 국내 CM의 적용현황

### 국내 CM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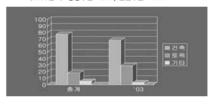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지
- 2004년도 : 1천600억원(공사비 추정 4조원, 국내 전체공사의 5% 추정)
- 2005년도 : 3천500억원 예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CM발주 해마다 100%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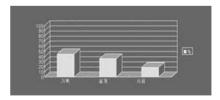
- 1996년 12월~1999년 : 265억원, 2000년 : 57억원, 2001년
  - : 107억원, 2002년 : 575억원, 2003년 : 1천22억원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 지 식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민간부문의 활성화
  - 공공부문: 884억원(44%), 민간부문: 1천142억원(56%)
- (2003년도)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70%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 지 실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실적
- 건축부문의 활성화
  - 건축부문: 1천567억원(77%), 토목부문: 361억원(18%), 기타
  - : 98억원(5%)
  - (2003년도) 건축부문 : 68%, 토목부문 : 29%, 기타 : 3%



-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입부터 2003년도까 지 실적
- 총 46개 CM사가 226건, 2천26억원의 CM
- CM 참여단계 (2003년도)
  - 기획단계: 45%, 설계단계: 36%, 시공단계: 19%

### 국내 CM의 주요 성과와 향후 수요

### 국내 CM Preiect의 주요 성과

- 주요 설계기준 조기확정 및 객관적인 기술 검토 : 설계·시공 관련 문제의 사전예방
- Fast Track 적용 : 공사중단요인 사전대응, 동절기 중요공정 회피, 공기단축 효과
- 설계VE, Cost Planning: 성능향상, 사업비(예산) 절감
- PMIS 운영 : 발주자, CM사, 시공자의 상호 공사정보 공유체 계 확립
- 클레임 및 분쟁 대응

### CM Project의 향후 수요

- 발주자 기술인력의 부족 : BTL사업 등
- 수해복구 등 단기사업의 증폭
- 경험이 부족한 사업에 대응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
- 재개발 등 복잡한 행정업무 : 재건축/재개발 프로젝트

### 건축사 업무영역의 확장

###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

건축사 용역의 범위 - 건교부공고 제2002-270호 (2002. 10. 15)

- 설계업무
- 가 기회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3) 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 4) 3D 모델링업무
  - 5) 모형제작업무
  - 6) VE설계에 따른 업무
  - 7) Fast track 설계방식업무
  -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
  - 9) 건축물 분양관련 지원업무

### • 공사감리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 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

### • CM 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 사업관리(CM) 업무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설계기준 작성
-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사설들 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 기타
-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 나.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 AIA 업무영역

### AIA(American Institute ●f Architects) 건축사 업무영역

- 8개부문 83항목 제시
- 사업관리 서비스, 설계 전 서비스, 대자개발 서비스, 설계 서비스, 입찰관련 서비스, 공사관련 서비스, 공사 후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

### 사업관리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01, 사업관리	자문, 조사, 회의, 협의, 진행보고서
02, 방침수립 / 서류점검	설계자와 엔지니어 사이의 조정, 서류에 대한 점검
03, 컨설팅 / 검토 / 진행	중요법규검토, 지역여론수렴, 계획수립, 행정청업무대리
04. 발주자 자료점검	발주자의 프로젝트자료 검토, 기준수립, 자료수집
05, 사업일정조정 / 관리	초기일정계획수립, 각 단계에 따른 일정계획 조정
06, 예비견적	예비견적수행, 각 단계에 따른 견적조정
07. 제출물작성	발주자 / 빌딩입주자 / 사업수행자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출물

### 설계 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설계목적 / 제한 / 기준수립, 초기의 적정공간계획진행, 특수장
08, 설계계획	비/구조, 대징구사항, 계획과 일정에 대한 예산계획, 보안기준,
	시업일정
09. 공간설정검토	내부기능, 동선, 공간배분, 운영기능, 특수시설
10. 시설조사	현장측정, 현재상태의 설계/구조/기계/설비
11. 마케팅 조사	현재자료의 정리 및 검토, 우편조사, 면담조사, 자료분석, 자료
11, 미케팅 소사	모델링, 컴퓨터를 통한 분석, 보고서 작성
12. 경제적 타당성조사	전체사업비용, 운영비용, 조달금융량, 사업단계의 현금흐름, 투
12, 경제적 다랑경소자	자회수, 적정지분확정
13. 금융조달	금융가능성조사, 사업 각 단계에 따른 금융조달

### 대지개발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14. 대지분석/선택	대지조사, 교통수단조사, 지형조사, 법적규제조사, 건설관련여
14, 네시군의/간의	건조사, 대지의 전체적인 평가, 비교대지와의 분석
15. 대지개발계획	토지이용, 건물배치, 시설물검토, 교통관련시설검토, 대지표면
13, 네시계리계석	과 지하의 상태조사, 법적규제조사, 조경개념수립
	토지이용, 건물배치, 시설물검토, 교통관련시설검토, 대지표면
16, 상세대지 이용계획	과 지하의 상태조사, 토양조사, 식생조사, 경사도 분석, 법적규
	제조사, 조경계획 및 재료검토
17. 대지 내 시설조사	전기사용시설, 가설사용시설, 용수사용시설, 배수, 하수처리, 우
17, 네시 네 시결소사	수처리, 화재관련시설, 보안장치, 조명, 통신시설
18. 대지 외 시설조사	시설물의 위치/규모확정, 시설물연결 필요사항 확정, 대지의 시
16, 네시 최 시결소사	설물의 계획과 설계
19. 환경연구/보고	환경평가보고서, 환경영향보고서, 공청회참석, 정부기관제출물
19, 원생인가/보고	작성
20, 지역지구 검토	신청서준비, 첨부자료작성, 제출물작성, 공청회참석
21, 지반공학	보링시험, 지내력시험, 투수시험, 보고서 및 전문가의견작성
22. 대지조사	법적인 제한과 시설물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격보유 전문가 의 의견

### 설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23, 건축설계/도면작성	개념설계, 실시설계
24, 구조설계/도면작성	구조설계, 대안제시(구조시스템, 기초설계, 재료, 상세도)
25, 기계설계/도면작성	기계설계, 대안제시(적정설비규모, 기본배치, 필요공간, 소음)
26, 전기설계/도면작성	전기설계, 대안제시(조명/전기/통신설비기준, 주요구성요소의 규모, 기본배치, 필요공간)
27. 토목설계/도면작성	토목설계, 대안제시(대지내의 시설물, 화재예방시스템, 배수시 스템, 포장)
28, 조경설계/도면작성	조경설계, 대안제시
29, 내부설계/도면작성	내부설계, 대안제시(내부구조, 특수내부설계, 가구 등의 선정, 마감재의 재료/색상)
30, 특수설계/도면작성	

### 입찰관련 서비스

주 요 업 무
일치여부검토, 재작성, 완성본검토, 배포, 서류의 접수/반송
입찰참가자선정, 사전자격심사, 사전입찰참가, 입찰내용설명,
개찰, 입찰기록서류화/입찰결과의 통보
입찰전후 제시된 대안에 대한 평가
개찰참가, 협상참가, 다수계약자결정, 기술제안서평가
입찰서평가, 낙찰자선정자문, 낙찰자선정과정의 협상참가
낙찰자통보, 공사계약준비, 보험/보증관련업무

### 공사관련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39, 제출서류	계약관련제출서류에 대한 관리		
40. 의견제시			
41, 제출물작성			
42, 시험검사관리			
43, 추가서류작성	도면/시방서 관련업무		
44, 시가견적요구/설계변경	설계변경관련업무, 발주자요구사항반영, 시공자에 대한 기준제시		
45. 계약금액산정	비용지출기록관리, 비용지출평가, 시공자가 제출한 비용지출에		
40, 세약급액신성	대한 검토		
46. 부속물관리	설치기간/제작에 대한 자문, 부속물의 계약서상의 부합여부 검토		
47, 해석/결정	계약서상의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검토		
48 사업완료	사업의 계약서부합여부 검토, 지급유보금액결정, 부증서 등의		
40, 사람선도	전달, 사업완료의 최종확인, 최종지불승인서발행		

### 공사 후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49.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자문, 유지관리메뉴얼 작성자문
50. 초기운영자문	관리운영인력교육
51, 관리도면	관리도면확보/발주자인수
52, 보증서검토	보증기간내의 보증내용에 대한 자문, 하자부분에 대한 서류작성
FO 코티 축 패키	초기계획과 실제 시설물 사용비교, 계획공기의 기능적인 활용
53, 공사 후 평가	도 시스템과 재료의 운용활용도

### 추가적인 서비스

항 목	주 요 업 무
54. 특수조사	음향/조명/통신·보안시스템, 공사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
S4, 4124	분에 대한 조사
55. 입주관련서비스	공간계획, 가구/시설물배치, 마감재료의 선택, 입주자의 요구에
30, 납구한단시마스	따른 설비의 조정, 공사비 예비견적
56, 특별부속물설계	설계, 상세도, 구매, 설치
57. 부속물설치서비스	구매, 설치관리
	음향, AV시스템, CMP공정표, 통신, 컴퓨터기술활용, 인구통계
58, 특수사업방침자문	연구, 금융, 보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재관리, 부동산
	자문 등의 39가지 항목
59. 특수건물형태자문	
60, 장식물관련	장식물 디자인 통합관리, 구매관리
61, 그래픽작업	내외부표시물설계, 재료/색상선정, 구매, 설치
62, 투시도작성	입면도, 투시도 작성
63, 모델제작	각 단계에 따른 스케일별 모델제작
O4 LITHUIT	현장조건, 항공사진, 유사시설물의 사진, 모델사진, 공사진행 사
64, 사진제작	진, 완성물 사진
65, 동영상제작	
66, LCC분석	
67. 가치분석	
68, 에너지관련연구	
69, 수량조사	입찰/협상을 위한 상세 공사량의 확정, 시설물/부속물의 수량확정
70. 상세견적	
기, 주변환경측정	
72, 전문가의견	
73, 재료/시스템시험	
74. 파괴	
75, Mock-up 제작	설계, 견적, 공사, 결과의 검토/분석
76, 전문서비스	경제적인 조사, 사회적인 영향조사
77. 부속물구매/설치	가구/집구/설비 등의 구매, 설치
	설계계획, 경제적타당성, 재무분석, 대지분석, 공사비견적, 공정
78, 컴퓨터활용	표작성, 시장분석, 건축/구조/기계/전기설계, 도면작성, 공사비
	용회계처리
79, 사업촉진/공적업무	광고/홍보물제작
80, 임대용 판촉물제작	
81, 계약전 관리	계획/일정/예산의 타당성평가, 상세일정조정, 상세견적조정
82, 계속적인 입찰관리	입찰자관리, 입찰일정수립, 입찰서수령/적정입찰자에 대한 추천
1리디에도 1이전시네 오이	건물하가자문, 견적비용과 실제투입비용간의 관리, 계속적인 일
83. 계속적인 계약관리	정관리, 비용관리에 대한 자문

### 국내와 AIA의 비교

### 국내와 AIA 건축사 업무영역의 비교

- 종합적 관점
-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 여 AIA의 업무영역은 사업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국내 건축사 용역의 범위는 설계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AIA의 업무영역은 건축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의 모든 업역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사업관리, 설계전, 대지개발, 입찰관련, 추가적인 서비스
   에 대하여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 • CM 관점

- 국내는 법률에 정하는 CM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AIA는 사업추진단계별(8개 부문) 업무내용에서 발주자 대행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
- AIA는 설계단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발주자 업무의 대행개 념에서의 CM의 핵심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건축사는 CM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CM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는 시공 이전단계의 기술력에 좌우된다.
- 기획 및 설계단계의 발주자 요구사항의 대행업무는 건축사의 핵심업무이다
- CM for Fee의 경우, 기존 설계업무에 공사감리업무와 관리적 기술을 확충한다면 건축관련 주체 중 설계사무소가 CM시장의 지입에 가장 용이하다
- 전통적으로 건축사업추진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대행한
   한 주체는 건축사이다.
- CM은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면허의 보유나 시설 · 인력 구비 등 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04년도 기준, 미국의 CM for Fee 시장의 년간 수주금액 대비 100대 회사 중 32개사가 설계회사(Design Firms)이다.

### 왜 건축사는 CM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건축사 업무영역의 제한성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문제이다.
-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용역수입은 설계와 감리에 국한되어 있다. (설계용역 수입: 77%, 감리용역 수입: 20%, 기타 수입: 3%)
- 2004년도 기준, CM 공시업체 중 건축사사무소는 37개사이다.
- 향후 감리업무의 상당부분이 CM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발주자의 요구시항(CM 업무)을 만족하여야 가능하다.
- 발주자의 기본 사업구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사업성

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제공
-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 설계대안 제시 및 설계 Interface 제공
- 설계대안에 대한 최적 공법 제안 및 최소의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 방안 제시
- 관련법규에 합법적인 인허가 프로세스 방안 제시
- 건축사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CM) 적용 사례

Examples of CM Application

도상익 / itm 코퍼레이션 ▶y D● Sang-ik

### CM 시장 동향

### 국내 건설 시장 현황

- IMF에서 벗어난 2001년 이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국 내 건설시장이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현재 그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5년 또한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또한, 엔지니어링 및 감리시장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큰 변화없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CM 시장 현황

- 반면 CM 시장의 경우 건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시행이 명문화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GO(시글 포이고 그림 1, 연간 CM 시장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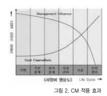
특히 2005년도 CM 시장은 전년대비 약 100%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 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CM 시장 확대배경

-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상암, 전주 등 월드컵경가정의 CM 적용 이후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CM에 대 한 안신변화
- 사례: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30억원 절감 및 4개월 공기단축.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10억원 절감. 4개월 공기단축

### CM 적용 효과

- 원기절감: 설계, 시공단계 의 VE 수행 및 설계관리 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비 용 절감, 도면의 품질, 시 설물의 기능 향상, 시공성 개선 가능(그림 2 참조)



- 공기단축 : Fast Track(설

계, 시공병행)을 통한 공기단축, 계획 대비 실적관리를 통한 공 기지연 예방

### VE 도입 배경

- 건설시장이 발주지와 고객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고객만
   족과 시설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이 대두되었으
-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현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 등의 건설 선진국에서는 이미 VE(Value Engineering)가법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수익개선, 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이에 국내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VE를 1990년대 말부터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도입, 적용해 왔으며 2000년 VE시행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기에 이름

### VE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 미국의 경우 1963년 건설분야에 VE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발표한 최근 11년간 VE 절감액은 당초 설계액의 12.4%인 약 1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 국내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자체 VE를 통해 5,75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456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였음
- 본 시가 수행하고 있는 관악구청 신축공사 CM사업의 경우도 VE로 48억원을 절감하여 총 공사비 666억원 중 약 7.2%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CM용역비인 18억원의 2.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VE 적용 효과

- 대상 시설물의 체적이나 규모를 축소시켜 전체 투자비를 절감
-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효과는 매우 크며, 발주자가 법적인 제재 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예산 절감이나 건축물의 효과 중대에만 기술력과 노력이 집중될 수 있음
- 설계 단계에서의 VE 적용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에 비해 절감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건설 공사비는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VE도입이 필수적임

### CM 적용 사례

### CM 시범 사업

- 2002년 정부는 건설시장의 CM 활성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적용 에 암서 시범적으로 5개의 공공건설사업에 CM 용역을 발주함
- CM의 체계적, 과학적인 관리기법의 적용 결과, CM 도입시기,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사업에서 프로젝트의 비능률적 요소제거 및 생산성, 효율성 향상이 인증됨

e:	대의-의병간 도로축당공사	부산시방국도 전리성	elettorica + MEVENICA	- 문식기간 : 03.03~00.07 - 문식에 : 1,372학생
М	원만-제상인 모드레양국사	역단지방국도 편리설	19.8 EHO	-중식기간: 03.03-09.12 -문서비: 1,780학원
Ą	84841	193184	itu	- 문사기전 : 03.00-04.11 - 문사제 : 114억원
범 사	선단백석지구 이바트	व्यक्तमस्य	itm + KCM	-문사기건 : 00:06~04:06 -관계에 : 834전편
41	서도유강 아크트 의도생인 공사	वस्तवस्य	Owner® CM	- 문식의건 (SEDE-CO.O) - 문식의 : 27의원

### 중앙선 동명휴게소, 주유소 신축공사

### 프로젝트 개요

명 칭	중앙선 동명(부산/춘천방향)휴게소, 주 유소, LPG충전소 신축공사 CM 용역	
발주방식	민자유치(SOC)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설계, 시공자 지정	
대지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120-2, 117-7번지 외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
사업규모	부지면적: 165,000 m²(50,000평) 대지면적: 5,931 m²(1,797평) 연면적: 4,260m²(1,291평) 건폐율: 6,65% 용적률: 8,19%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1층, 지상 2층	
총 사업비용	약 11,000,000천원	THE RESERVE OF THE PARTY OF THE
용역기간	2003, 8, 12, ~ 2004, 12, 28	CO. March Co. Co. Co. Co. Co. Co.
사업특성	기본설계단계 CM 도입	1

### CM 업무 범위

-	MANUAL	23.04	-	Mana.	MARKET	7904	
***		-2494	1000	- 24/01	20.15		
4300	141215	+4543-41		10400	1946.90	1004100	199721

### 프로젝트 수행 조직



### 주요 업무 실적

구 분	설계VE를 통한 원가절감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주안점	-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공간 창출	- 15개월인 설계/시공의 절대공기 준수
	- 신기술·자재 발굴을 통한 설계 기능성	- 공기 내에 최적품질을 도출하기 위한 공
	향상, 시공성 개선, 실행공사비 절감	정관리 목표 설정
	- 약 6억원(총 공사비의 6%)의 원가 절감	- 시공 1개월, 인테리어공사 2주 단축
실적	건축/구조분야 : 8개 제안, 약 4억원	- D Day 예측기능을 통한 해당공정 공기
	토목/조경분야 : 3개 제안, 약 1,5억원	단축 시행
	기계/전기분야 : 7개 제안,약 0.5억원	- Easy Pem Pro V1,9를 활용한 예정공정
	·	표 작성으로 과학적 공정관리 수

### PMIS 활용

- PMIS 구축으로 오프라인 문서 최소화



### 천안백석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 프로젝트 개요

명 칭	천안백석 2BL CM형 책임감리 용역	- Contraction of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택지개발지구	
	2BL	
	대지면적 : 54,167m²(16,386평)	<b>新加克斯克斯</b>
	연면적: 84,872㎡(25,674평)	年代 との大学
사업규모	건축면적: 7,547m²(2,283평)	
	건폐율 : 13,93%	SHOP THE PERSON NAMED IN
	용적률 : 147,32%	The state of the s
호 수	10개동 750호	
총 사업비용	약 85,413,902천원	Dept. Dept. St.
용역기간	2002, 6, 28, ~ 2004, 6, 15	
사업특성	시공단계 CM 도입	BOW COM

- 공동주택 LOB 분석을 통한 골조공사 공기단축 방안 제안
- 계약/클레임 관리, 리스크관리, 건설정보관리(PMIS) 업무 수행
- 파트너링 공조협의체 구성방안제
- ⇒ 주거공간의 기능향상, 공기단축을 통한 여유기간 확보, VE를 통한 원가 절감

### 프로젝트 수행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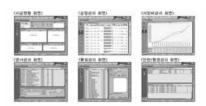


### 주요 업무 실적

구 분	설계VE를 통한 원가절감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 기존 설계도서 및 내역서의 적정성 검토	- 우기 등 현장기후 여건에 의해 지연된 2
주안점	- LCC를 고려한 신기술/자재 도입방안	개월의 공기 만회
		- 골조 및 마감공사 공기단축 시도
	<ul> <li>약 6억원(총 공사비의 0,8%)의 원가 절감</li> </ul>	- LOB 분석기법 활용으로 골조공사 2개월
	- VE 수행을 위한 건설주체간 파트너링협	의 지연공기 만회
실 적	의체 구성 및 운영	- TACT/LOB 개념 도입으로 마감공사 1개
	- 파트너링, 기능정의, Brain Storming,	월 단축하여 예비준공검사 품질확보
	Cost Modeling, Matrix 분석기법 적용	

### PMIS 활용

- 행정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기간 단축



### CM 중점 사항

- 시공VE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 선진 공정관리 기법 도입

034

### CM 시범사업 비교분석

프로젝트	동명휴게소	천안백석
발주방식	분리발주 + CM, 책임감리	분리발주 + CM, 책임감리
공사비	11,988 백만원	43,660 백만원
용역기간	12개월	25개월
CM 도입시기	기본설계단계	시공단계
CM 공기단축	발주자 요구에 의해 2개월 단축	지연공정 2개월 만회, 공기 1개월 단축
워가전간	590,400,496월	398,300,000원
성과 절감비율	4,9%	0,9%
CM 성과 분석	- 기본설계단계에 CM도입으로 기본 설계VE를 통한 원가질감효과 가장 우수함 - 실시설계VE를 통한 현장 시공정보 의 반영 및 부분적 설계가능 개선으 로 전체적인 사업의 품질 향상 효과 가 큼	- 주택공사의 자체 실시설계 완료 후 CM적용으로 설개변경이 불가비하 여 설계산 작원 관립 낮 등학 작업 등학 관리 받 하는 실시설계 완료 후의 설계검토 진행 으로 설계반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 에 대한 클래의 발생 가능 - 시공단계의 리스크관대중대품질하 재와 시원VC를 통해 원가참갈

프로젝트 수행 조직



- 분이별 경험자의 투입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운영체계 제공

###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공사

### 프로젝트 개요

명 칭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공사 건설사업관 리 용역
대지위치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제 3단계지역 1 블럭 부산대학교 제 2캠퍼스 조성부지 내
발주방식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사업규모	- 대학병원 : 지하2층, 지상12층, 792병 성79,954㎡) - 지파병원 : 지하1층, 지상 6층, 203진 료대(2,027㎡) - 간호센터 : 지하1층, 지상 6층, 178병 성 5,556㎡) - 장래시장 : 지하2층, 지상 1층, 12빈소 (4,129㎡)
용역기간	2002, 6, 28, ~ 2004, 6, 15
사업특성	시공단계 CM 도입





### 주요 업무 실적

구 문	설계VL들 동안 원가설감	공성관리들 동안 공기난숙
	- 턴키발주 후 일괄사업자 선정에 따른기	- 정해진 공기 내 사업 완성을 위한 사업
주안점	본설계안에 대한 VE 수행	공정계획 수립, 공정현황 분석, 공기 단축
	- 설계관리를 통한 원만한 실시설계 진행	을 위한 대책 수립
	- 약 8억원(총 공사비의 4%)의 원가 절감	- 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여 토공사를
	- 발주자, 턴키사업자, CM단이 참여하는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실시
실 적	VE 조직 구성	- 계약자선정과 동시에 기초설계자료(지질조
	- 계약서에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여 사	사, 시험파기, 시항태)보완, 토공사 선시공
	업관리자와 시공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발주처와
		협조하여 조기완료

### CM 발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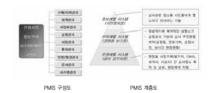
- 턴키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업무 지원 필요 : 입찰안내서 작성, 설계 심의 등 발주 업무 복잡
-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 부족한 공기를 패스트 트랙 적 용을 통하여 공사기간 확보, 사업비 증가 방지
- 차수별 공사 개원으로 병원개원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및 공기 준수: 예산배정상 개원시기 및 규모를 1채(500Bed), 2차
   (200Bed, 치과병원, 간호센터)로 나누어 추진
- 발주기관의 사업조직의 미약성을 보완 : 행정직 2명, 기술직 3명(건축 1, 기계 1, 전기 1)으로 최소 규모로 건립추진단 구성

### CM 중점 사항

- 기획/설계/입찰/계약/시공/준공 전 단계에 걸친 사업관리/감리 업무수행
- 공정 및 원가관리를 통한 준공 목표 달성
- VE/LCC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 및 시공방법 도입
- 사업관리 정보화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유지관리 활용방안 제시

### PMIS 활용

- 주요 사업추진현황 및 제반사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결 론

- 발주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극대화
- 리스크 예측 및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
- O Fast Track, 선진공정관리 기법 적용 등 적극적인 공기단축 노력 진행
- O VE 수행, 설계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품질 및 기능 향상 효과
- O 건설정보시스템(PMIS) 구축을 통한 실적정보 축적 및 조직간 의사소통 체계 지원

0507 대한건축사업회

###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보고

### 전국건축사대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전국 건축사들의 열화 같은 함성이 국민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자. 그리고 대한건축사험회의 강열한 투자가 정책당국자의 단현 심금을 반드시 열계 만 들어야 한다. 이벤트로만 끝내지 말고 정기총회, 국제회의, 한국건축문화대전 도 함께 열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사업무에 필수불가결한 연수강좌 와 다양한 세미나의 선별참석이다. 모든도 당당하게 전문성으로 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대회는 그만 점고 그어말로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대회로 새롭게 바꾸자. 건축의 수요를 더욱 참출하는 큰 계기가 되 고 건축의 수준도 한껏 드높이는 그런 성공적인 대 집회가 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경험축적과 완벽한 행사기획만이 이를 뒷받침하고 또 보장 해줄 것이다. 언제고 기다려지는 전국건축사대회,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전 국건축사대회, 앞으로는 이런 건축사대회를 보고 또 보고 싶다.

〈김영수 /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2005전국건축사대회'를 평가하여 본다

이 땅에 건축사협회가 생긴 지 40년이다. 그러나 93년 서울 대회 이후 건축사대회가 열리지 않아 전국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부산에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 하여 나는 떠나기 전 부터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졌다.

충북건축사회는 옥산 서원과 양동 마을을 답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 전에 출발했다. 100여명의 동료 건축사들이 함께 했다.

그들 중 12년 전 서울 대회를 경험한 건축사는 1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만큼 젊은 건축사들이 많았다. 그 젊은 건축사들 역시 이번 전국건축사대회 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듯했다.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토론도 하였다. 설계감리비 정상화에 대한 충북건 축사회 회원들의 동참과 현장에서 겪는 고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그 대 안이 토론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안강의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옥산 서원과 양동 미율을 답시하였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이었지만 회 워들은 사진을 촬영하는 등 고건축에 대한 감은 관시을 갖고 답시를 마쳤다.

부산에 도착해 해운대 한국콘도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에는 충북건축사회 에서 미련한 자리에서 회와 소주로 회원들의 단합을 다졌다. 건축 경기의 불 황과 이런 저런 삶의 애로점들을 나누며 잔을 기울이는 동안 밝은 끊어갔다.

다음 날 행시장에 도착하니 10시였다. 건축자재 전시장을 관람하며 새로운 건축자재 키탈로그(calado)를 수집하고, 2층에 CM세미나를 참판, 경청을 하니 잠심때가 되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비닐찬막 이래서 대회 준비위원회에 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동료 건축사들과 함께 잠심을 먹었다. 이외 작품 전시회는 광장중앙에 있다. 너무 뜨겁고 무더워서 아쉬웠지만 관람을 포기하고 말았다.

시원한 곳을 찾아 행사장 이곳저곳을 다녀 보았지만 마땅히 앉아 쉴 만한 곳이 없었다. 무더위에 지친 일행은 본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나마 본행 사장은 시원하여 땀을 식힐 수 있었지만 본 행사 리하설로 몹시 시끄러웠다.

오후 2시, 드디어 본대회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다. 특정회사의 광고 VTR 성영을 시작으로 패션쇼가 시작되었는데 건축사대회인지 아니면 어느 회사의 발표회인지 알 수가 없었다. 건축사회원 5명이 출연 한다는 것 외에는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쇼였다. 아무리 오픈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원들의 실망이 컸다. 시간이 아까웠다. 처리리 이 시간에 대회를 시작했다면 일정을 임당격 마칠 수 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뒤를 통 아보니 대회장 좌선은 꽉 차 있었다

패션쇼라고 하지만 관객들에게는 의상보다 출연 모델들에 더 눈길이 가는, 제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컸던 쇼였다. 어쨌든 출연한 동료 건축사들의 어설 폰 워킹에 웃음과 격려의 박수로 오픈해서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fanfare)와 함께 부산지역 광고가 멀티비 전으로 방영되고, 모 여고 관악부의 '돌아와요 부산항' 연주가 이어졌다. 이 제 드디어 본대회가 시작하는구나 하고 앉음새를 고쳤다. 일부 내빈들이 무대 완좌석에 않고 사회자의 소개로 부산시 건축사회 부회장의 내빈소개가 진행 되었다. 여기서 부산지역 구 의원, 교육감, 대학 학장까지 소개를 하는 걸 보 면서 이 대회가 부산 지역 행사인지 전국 대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리 는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이 모두 모이는 '전국건축사대회'이다. 그러면 대회의 규모에 맞게 내비 소개도 경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내가

하여튼 내빈소개가 끝났으니 '이젠 정말로 시작하겠구나.' 하는 기대 속에 진행을 기다렸다. 그 때 사회자의 '내빈 입장'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었다. 그 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내빈 입장은 진행되지 않았다. 모 인사의 행사장 도착 이 늦어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끼워 넣기 식 공 역을 하찮 동안 방이와 해다.

이윽고 다시 내빈 입장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대회 집행위원정의 입장을 선두로 건설교통부 장관, 정당 대표까지 출출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내빈들 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의식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 남득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의전은 일부 사회단체의 광내가식 행사인데 우리 건축사회도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광내기 위해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인가? 집행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한 주인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부산시장 입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박수도 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가 막히는 느낌이었다

도대체 단상에 올라 손을 치켜든 저 사람들이 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무슨 영광 된 일을 했기에 이토록 큰 환영을 받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나, 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 대회 참석자들인 동료 건 축사들에게 묻고 싶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건축사들의 현주소인가? 나 자산에 게 문고 싶은 말이었다.

자기지역 건축시회장의 입장에서 환호의 박수가 이어지고 대회장의 입장에 기립박수를 처리는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기립을 하였으나 박수는 그리 화하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집행위원장의 필요 이상으로 긴 환영사에 이어 대회장의 대회사가 있었다.
그러나 대회장의 대회사미저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나라 원론적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그런 저런
이쉬움 속에 '12년 만에 열리는 오늘 이 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자'는 말로 위안
을 삼았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는데 의례적인 인사 끝에
'장관으로서 건축사를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에 회원들은
위안을 가졌다. 정당 대표들의 축사가 있었고 그 뒤 정당 대표와 건설교통부장
관은 행사가 진행 중인데도 가버렸다. '건축문화 선언문' 낭독은 본 행사의 하 이라이트라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정당 관계자 등 외부 인사들이 모 두 떠난 자리에서 '건축문화 4대 핵심 과제'등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서 끝나는구나! 차라리 대회장 대 회사에서 밝히면 외부인사들이 들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씁쓰름함을 쌉는 동 안 보행사가 5시에 마우리 되었다

이어 벡스코 광장에서 '건축사 만남의 광장' 과 '2005 전국건축사대회 결과 선포'가 있다는 안내 방송에 이끌려 광장으로 나왔다. 어느덧 오후 5시가 넘어 더위도 한풀 꺾이고 바람도 조금 불고 있었지만 아직도 햇살은 따가웠다. 비닐 천막 이래 다과가 준비되어 있어 동료 몇 분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 곳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볼륨을 얼마나 올랐는지 찌그러진 음향은 내 귀를 불쾌하게 울렸다. 음식을 먹는 동안 무대에서는 이상용씨의 사회로 이름 없는 연예인들의 어실픈 공연이 시작되었다. 함께 지리한 동료들은 그만 돌아 거길 원했지만 100명의 회원이 제마다 흩어져 있어 그것도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동료들은 행운권에 기대를 걸어보 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팩 소주 몇 개를 가져다 나누어 먹었다. 이상룡씨의 외설적인 코미디로 지루함을 달래는 동안 6시가 넘어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언제나 끝나나 하고 있으니 이름도 모르는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그 여자 가수가 "12년 만에 이 대화를 한다면서요?"하고 말하자 마침내 다들 불 쾌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저런 가수 입에서까지 12년 만에 부산에서 전국건축 사태회가 열린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 12년 만에 부산에서 주관하는 것이 자 랑스러워 대회준비위원들이 이곳저곳 떠들고 다닌 건가? 아무른 불쾌한 심정 등은 가실 중 몰랐다.

어쨌든 8시가 다 돼서야 2006 대회 결과 선포 로 대화를 끝낸다고 하니 자카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슨 결과를 선포한다는 것인지 의이스러웠다. 오늘의 대화가 대성공을 이룬 알찬 대회였을까? 대회장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며 차라리 "무 더위에 먼 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무슨 결과 선포인가? 어떤 결과를 얻은 게 있는가? 대회 준 비위원회 측의 '건축문화 선언문'이나 행정부로부터 이 대화를 통해 얻은 결 과라도 있는가? 우리는 이 대화를 왜 가였는가? 부산건축시회 조호룡 건축사 '호소문' 처럼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 우리의 설이갈 길을 우리 자산들이 아니면 누가 찾어줄 것인가? 이 많은 건축사들이 오늘 대회에 참석하여 무엇 을 했고 무엇을 기억하고 갈 것인가?

요즘 지역 건축사들은 모이면 모두 어려움을 토로한다. 건축사 전국 대회 를 참석하기 위해 떠나면서 무엇인가 일말의 기대를 걸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허망하기 찍이 없었다. 그나마 행사 전 날 저녁 콘도에서 동 료 회원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격려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일과 무더위 속이었지만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답사한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

2년마다 전국건축사 대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집행위원들께 부탁드리건대 다음 대회부터는 사회단체의 광적인 행사를 용내 내지 말고 우리만의 행사로 기획하여 건축사의 고유 행사로 그 빛깔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들인 만큼 회원 모두에게 공감이 가고 무엇인가 가슴에 담아가고 남을 수 있는 대 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인 단체 입니다. 전문인의 전국 규모의 대회라면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찾어야 할 것이며, 그 대회가 하나로 모아던 우리의 목소리를 내 어 대정부 등 이 사회에 우리의 의사를 밝하는 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견이지만 참고하시어 다음 대회부터는 보다 알찬 대회가 열 리길 부탁드리며 다시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강경구 / (주)제이에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대회와 건축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자!

최근 건축사들은 주위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건축사의 위상정립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건축사대화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최하면 비용절약과 함께 효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방법

건축시협회에서 건축박담화를 창설하여 건축시대회와 함께 개최하면 건축 박담회에 오는 많은 국민들과 건축시들이 만나는 건축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

건축최고전문가 단체의 행사인 건축사대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 프로그램으로 지해

- 건축자재박람회 : 참여하는 업체는 협회에서 인증서 수여와 협회마크 확용권보여
- 전문업체홍보관: 아파트건설회사나 전원주택회사의 모델하우스, 건축사 사무소 각종 건축전무업체관 등
- 작품전시장: 건축사, 실내건축가, 실무전문가, 학생 등의 작품
- 세미나 및 토론회: 건교부나 서울시 등의 건축담당 공무원과 함께하는 건축 정책에 관한 토론,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 동산정책 주택정책, 주택개발 등의 세미나와 토론회
- 교육 : 건축사, 건축사보, 건설관계인, 학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건축 및 주택상담: 건축사(여성건축사 등)가 상담에 참여함으로서 대국민 봉사와 후보
- 전국건축사대회행사

### 3. 장점

- 건축최고전문가 단체인 협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명분 있고 해야 할 사업 (건축과 무과한 언론사 등도 건축박람회를 한다)
- 건축최고전문가 단체가 주최하는 건축박람회라는 명성으로 기존의 경향하우짓페어, MBC건축박람회, 기타 전원주택박람회 등과 차별화.
- 수익창출 : 수익창출 뿐 아니라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비용 절약
- 건축사의 인지도 향상과 위상제고: 많은 관람객 뿐 아니라 작품전시,
   건축 상담 등으로 일반인과 건축사와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는 건축 축제의 장
- 건축문화창달
- 차별화된 박람회: 건축자재업체 등 참여업체에 효율적인 기획으로 건축 전문가들의 방문확대 시도(구매력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회)

또한 건축사지, 건축사신문 등 건축사협회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박람회 의 홍보 뿐 아니라 참여업체의 자재소개, 세미나, 건축 강좌 지상 중계로 참 여업체와 건축사 등에 정보제공 (김인화 / 타스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대회란

오랜만에 들어본 건축사대회!

뭔가 우리에게 돌파구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어대던 우리들의 함성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고 정작 우리에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정확 히 말해서 이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그들의 겉치장에 우리들은 꼭두각시가 되어 처음부터 박수는 왜 그 리도 함차게 때렸는지… 이제야 본론이 좀 나오겠지… 함차게 두들기던 박수 소리도 서서히 힘이 빠질 때 그들은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 건축사대회를 위하여 혼신하신 임이(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하나 : 건교부장관 대신 입법심의관 여러분 다수를 대신 참석

둘 : 정당대표 대신 국회건교부 위원님 다수참석

셋 : 지자체대표 대신 입법담당관 공정위 위원회 여러분

우리는 이들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건설문화에서 백년대계라는 국토건설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맞대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환경건축문명에 떠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협회장님의 입장식, 너무 기나긴 시간이 할애되어 목적에 좀 힘이 빠졌지 않나 생각해 본다. (김권수 / 양지 건축사사무소)

위 글은 우리협회 홈페이지(kira,or,kr) 회원전용게시판 내용을 발췌, 함께 보는 나입니다(편집자)

## 2005 전국건축사 회화전

건축가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2005 건축가 미술동호회 정기전을 회 원43명(작품 70점)이 출품하여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3A전시실(2005년 6월 24일~28일)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하에 성황리에 전시하게 되었으며, 서울 토석 갤러리(2005년 7월 6일~12 일)에서 순회전을 갖게 되었다.

건축가 미술동호회는 조성렬

회장을 비롯하여 70여명의 회원이 작품 활동 및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 며, 해외 교류전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관계 및 작품 활동을 더욱 더 돈 독히 할 계획이다.

건축가 미술동호회에 건축가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며,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이 많았으면 한다. (글/이원희건축사)







울릉도 바람소리

서귀자 / 해조 건축사사무소



강석후 / 수림건축사사무소 자연의 흔적 / 74×61



강성익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왕곡리 설경 / 74×61



강성철 / 삼강 건축사사무소 여수항 / 60 6×50



강정행 / 시민 건축사사무소 착포 / 65×45.5



강정후 / 건축사사무소 이도공간 풍경 / 74×54.9



김금진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김낙동 / (주)동양 건축사사무소



김상연 / 김 건축사사무소 희망 / 70×90



김석환 / 터·울 건축사사무소 변산해변의 여름 / 36.5×26.5



김선채 / 뉴텍 건축사사무소 봉노래 / 65×53



김연호 / 제일구조안전진단 건축사사무소 용추계곡 / 53×45.5



김용주 / C.A 종합건축사사무소 풍경



김종국 / 국영 건축사사무소 평촌리의 가을 / 40.9×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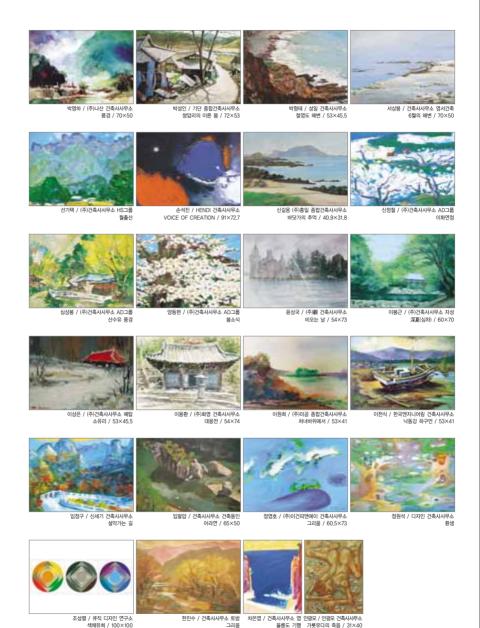
김종문 / 신생 건축사사무소 반구대 가을풍경 / 40×50



민성기 / 민 건축사사무소 사과가 있는 정물 / 53×45.5



박동천 / 동일기술공사 조경부 池 와 亭 / 54×39



### 2005 전국건축사대회 후원금 · 협찬금 기탁 현황

### ■ 회원사 〈가나다순 〉

- (주)종합거축사사무소 거워 / 김종국
- (주)거성이에지건축사사무소 / 이홍기
-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상림
- (주)구성 건축사사무소 / 심구길
- (주)금성 종합건축사시무소/김상식
-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 최명철, 이승권
- (주)동방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허하구
- (주)대도 건축사사무소 / 이건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강철구, 이용익, 최용준, 이준규
- (주)종합거축사사무소 동일거축 / 오봉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심재호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안길원
- (주)삼중 종합건축사시무소 / 이병인
- (주)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신재, 이만희
-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박찬실
-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시무소 / 이각표, 이근창, 이관표, 조익수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이종찬
-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 오근석, 문 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이의구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홍철
- (주)처일에지니어링 종합거축사사무소 / 한규봉
- (주)티씨엠씨 건축사시무소 / 송수구
- (주)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문홍길
- (주)한라 종합건축사시무소 / 강성익
- (주)하림 종합건축사시무소 / 오운동
-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영희, 정영균

### ■ 현찬업체

- (주)포스코건설 / 한수양
- 현대산업개발 / 이방주
- LG전자/김쌍수
- KCC/김춘기
- (주)삼우EMC / 정규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권홍사
- 대한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 김종각
- 대한주택건설협회부산광역시회 / 전광수
- 동의과학대학 / 이층연
- 부산은행 부산은행장 / 심 후
- (주)대우건설 / 박세흠
- (주)쏠레땅쉬범양/박길석, 위베르
- (주)제일테크노스/장명식, 나주영
- 금강공업(주)서울시무소/홍영근, 전장열
- 남흥건설(주) / 박명우, 류시성
- 대명화성(주)/김구태
- 성원종합건설(주) / 김중곤
- (주)경동 / 김재진
- (주)동남엘리베이터 / 이민규
- (주)동아지질 / 최재우, 정경환
- (주)세기하이텍 /배영기
- (주)유성종합건설 / 이수만
- 중앙방수상사/장수관
- GS건설(주)/김갑렬
- (주)무송종합엔지니어링

### 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 ■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부문

- 가. 응모작품: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17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건축 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또는 비추거용건축물(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건축물은 증축ㆍ개축ㆍ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수 있으며, 임시사용순당된 건축물은 응국 보증
- 나. 응모자격: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

### ▶ 계획건축물부문

- 가, 응모작품: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나, 응모자격:
  - 의서 거축분야석계인 무종사자(거축사지격 수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가.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나.건축물대장 1부
- 다.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소개서 1부
  - (외국사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라.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패널 제출일은 추후 별도 통보

### ▶ 계획건축물부문

- 가 작품주제: "재래시장"
- 나.제출내용
- 1차: 작품계획안 A2(42.0cm ×59.4cm) 1부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작품설명서 1부(A42매이내)
   ※ 작품계획안, 작품설명서, 원서의제목이동일해야함.
- 2차: 패널(가로90cm ×세로120cm) 1매 및 모형(가로×세로 75cm ×90cm 또는 90cm × 75cm, 높이 75cm 이내)
- 다.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괴한 작품에 한해 2차 패널및 모형을 제출함.
- 라. 응모작품의 출품자는 3인을 초괴할 수 없으며,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함.

### ■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가. 일시: 2005. 7. 18.(월)~7. 19.(화) 09:00~18:00
- 나. 장소: 토석갤러리(서울시 강남구 신시동 527-1번지 대도벽돌 1층- 약도는 출품원서 참 조)

### ▶ 계획건축물부문

- 가. 일시: ·1차(작품계획만) 2005. 8. 1.(월) 09:00~18:00 ·2차(패널, 모형) - 2005. 8. 31.(수) 09:00~18:00
  - 자 A · 든 서개그리
- 나. 장소: 토석갤러리
- ※ 출품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a.or.ki)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접수당일 제출(출품료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a.or.kr) 참조.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운영실 홍보편찬팀(Tel. 02-581-5711~4)

### ● 계획 건축를 부문 작품 주제: 재래시장

오늘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아마도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와 건축과의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건축의 사회 적 입장에서 안타까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재래시장은 옛부터 지역 주단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타긴 곳으로 영세상인들의 고용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및 사회 문화 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서민경제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근래에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과 쇼비 취항의 급격한 변화와 홈쇼핑 대형할인점등에 젊은 고객들은 몰리고 있고 재래시장은 중. 장년층의 오랜 단골들만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구나 재래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대중교 통 및 지가용의 집근성, 주차 공간 부족, 총제적 경영의 부재 및 서비스 체계의 한계 등으로 고객의 눈길에서 점차 떨어져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최근 재례시장이 지역 서민경제의 인정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연구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반영한 소비행태나 기존 상인들의 재입주 장려책과 기존 재례시장의 지역적 특성 분석이 부족한 채, 일반적으로 재례시장의 도로 정비 및 아케이드 설치 등의 물리적 환경개산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재례시장의 본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여건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종합적 집정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재례시장의 지역적 개발의 방향과 지역간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지 않은 채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정책은 일부 시행자의 지즌들의 시업 이익을 대변할 뿐, 기존 영제상인과 노점상들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여 또 다른 노점을 찾아다니게 만들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인 축면을 구려한 장려지 않는 대형가물로 전한생산하는 결과를 기재오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현대화의 모색은 지역도시의 관점에서 재래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건물시장뿐만 아니라 노점을 포함한 기로 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적인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재래시장의 개발의 방향도 그 시장의 입지적 특성 상권구조, 시회적 문화적 접근, 기존 상인들의 지수적 영업을 고려한 개선 및 계획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적 공공성의 간실한 토대를 꿈꾸어 본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단지 물리적인 시장공간의 균질한 형태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에게 활기찬 만남의 장소 그리고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만들의 진정한 여기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재인식하여 새롭고 다양한 개발 기법과 재해석을 통하여 지역도시의 전통문화와의 상생의 장으로서 재활하기를 젊은 건축인들의 손을 발어 기대해본다.

# orocess works

### 청심 중 · 고등학교

CheonaShim Middle & High School



이 프로젝트는 1차로 건립되어진 기존 교 육시설과 연계되어진 중·고등학교로서 주 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건축주의 미 래지향적인 교육이념을 갖고 계획되어 졌으 며, 교육의 특화 및 정신적, 신체적 종합교 육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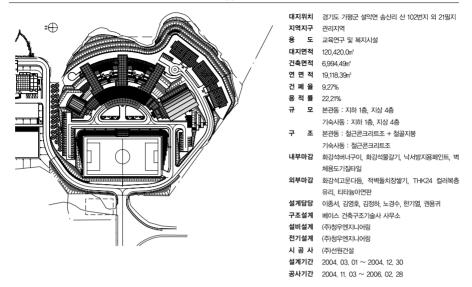
### 배치 계획

청평호의 주변이 대부분 급격한 경사이 며, 이 계획부지 또한 서향이 열린 급경사 의 대지조건이다. 여기에 제한된 부지면적의 한계로 적은 대지면적에 다기능을 배치하려 하다보니 고 저차가 심한 대지에서는 가용자가 적어지므 로 역시 계획의 개념은 Level차를 이용한 경 사형 건물을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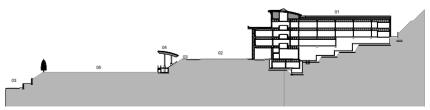
각 Level에 따른 배치계획은 수평공간이 많이 확보된 곳에서 부터 진입로, 운동장, Stand, 각 기능의 건물, 기숙사까지 Level차를 단계별로 극복하면서 또한 토목계획상 기존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합리적 배치와 함께 주변 자연환경과 순응하는 배치를 하였다.

적은 부자에 단순하고, 절체된 면적을 가존지 형으로 이용하다보니 옛날 초등학교시절의 교 문에서부터 운동장을 중심으로 주변건물이 배 처된 형태가 된 것이 이쉬움은 남으나 급격한 부자의 Level 차이와 건물배치의 자연스런 형태 에 따른 변화성으로 단조로움을 없해려 했다.

배치의 특성은 적은 면적에 여러 기능을 충 축하다보니 중심적 공용부분 및 Core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이 손가락형태로 연결분리되어 쉽게 모이고 흩어지는 동별기능의 효율성을 극 대화 하였으며, 유통점은 부지의 한계로 다목적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종단면도

### 기능을 갖는 크기로 계획하였다.

### 평면 계획

평면은 원호의 구심점에서 주출인이 유도되며, 원호의 1차 반경은 공용부분 및 Core가 배치되고 2차 반경은 손가락형태의 5개의 블록이 연결되어 각 가능의 수평적 수직적 분리와 통합을 통해 모 듈화된 평면의 가변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을 형성 하며, 동선의 효율 및 인동 건물간의 프라이버시, 소음에 간격을 두어 각각의 자연채광과 조망을 최대 확보 하였다.

###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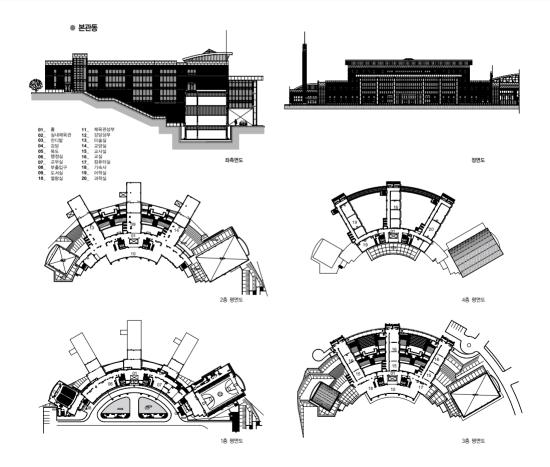
입면의 주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옥구를 충 족하였으며, 현 시대의 현대적 감각을 도입함과 함께 전체적 형태를 곡선 및 곡면으로 처리하므 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역동성과 부드러운 곡면 의 친화감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입면구성을 전개하여 Open공간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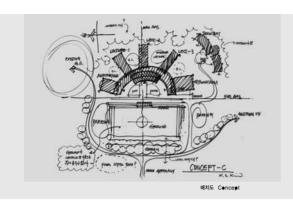
외부재료는 자연소재인 붉은벽돌과 화강석을 기본으로 배합하였고, 유리를 많이 도입하여 자 연으로부터의 밝은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갖도 록 하였다.

### 단면 계획

급경사를 이용한 단면계획이 이루어졌고 전체 Level차를 3단계로 나누어 진입로부터 대운동장, Stand, 각 건물, 기숙사까지 단계적 적응을 하며, 각 기능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적분배하여 수평 수직동선의 원활한 계획 및 각 동별 내부까지 시 각적 공간적 흐름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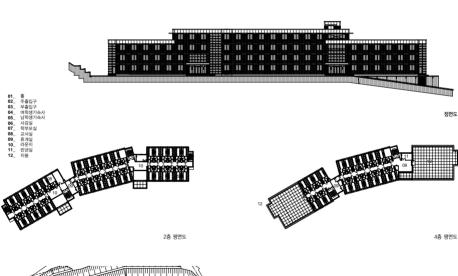
단면상 선큰가든, Dry Area 등 Open공간 및 창을 통한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고려하였으며, 교육시설로서 조건인 쾌적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섬세한 단면 계획을 하였다. 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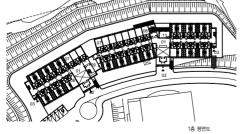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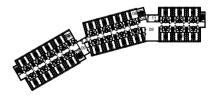




### ● 기숙사







3층 평면도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서울시립다학교 종합강의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 Triversity of Scal. milti Letture Center, Lav Stroll and Sports, Cupiler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의실 및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과 교수 및 직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내에 종합강의동과 법학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현상설계 경기를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당선작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장윤규, 신창훈) + 협동원 건축사사무소(김우일)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內

대지면적 270,600m²

※ 건립부지 면적: 7,603㎡

연면적 18,016m²

종합강의동, 법학관 : 13,223m² 종합체육관 : 4,793m²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계팀 김우영, 김윤수, 김동찬, 김성민, 이호선

### Landscape Plaza

이 계획인의 중요한 배치개념은 주어진 대지 전체를 공공성의 광장 Plaza as Public Space로 해석하고 계획하는데 있다. 진입동 선과 경농관 쪽으로 열려진 다목적 기능의 광 정을 배려하여 시립대 학생들의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이벤트를 수용하는 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공공성의 광장 은 Event Plaza, Landscape Podium, Eco Corridor, Eco valley… 등의 개념에 의해서 구체화 시킨다.

### Campus Network

캠퍼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구, 교육, 생활 등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필요가 요구된다. 캠퍼스네트워크는 학교시 설과 주변 사회적 요청과 대응하는 공공성의



공간을 제공하는 하나의 틀이다. 주어진 대자는 학교 경계선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곳은 캠퍼스 내의 기존 건물과의 관계, 캠퍼스 밖 바로 앞에 위치한 주변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 내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장소 적 특성을 갖는다.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맺어주기위한 하나의 설정으로 캠퍼스네트워크로서의 광장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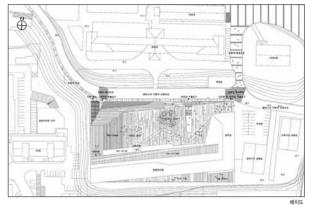
### Campus Morphology

캠퍼스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기존의 콘텍스트 와 미래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관을 가지며 계획되 어야 한다.

시립대전체의 '캠퍼스 모폴로지' 분석을 통하여 첫째, 축의 개념 둘째, 외부공간 모폴로지 셋째, 공공 공간의 연계 등의 배차개념을 도출한다. 종 합강의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의 캠퍼스 내에서 의 공적인 역할과 학교발전의 중심모델로서의 새 로운 모폴로지를 제안한다.

### Landscape Podium

대지의 연속으로서의 광장을 구성한다. 대지의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는 랜드스케이프 포디움을 제 인한다. 수직적인 동선의 연결과 이벤트를 수용하는 적절한 경사의 캠퍼스광장을 구성한다. 자연, 빛, 자연소재 바닥, 물, 등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거대한 휴게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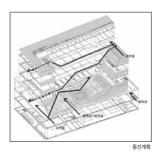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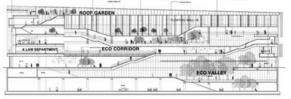






단면도





에코복도 입단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강이동, 법학관 및 종합체육관 Triversity of Stall, wilti Tecture Cetex, Tay Shroll and Shorts, Cuplex

우수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서울 시린대학교내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용 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603m²

건축면적 6,176.45m²

연면적 21,722,11m²

건폐율 2,28% 용적률 5,98%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설계 팀 단우: 심우근, 최현영, 오준수, 송창환 우리동인: 최지호, 이종규, 최정인, 김형곤,

조상은

#### 흔적 되살리기

이 곳은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약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교내 옥외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제는 교내 차량동 선에 의해 단절되어 잊혀진 장소가 되었지만 벽 돌조 경사지붕으로 된 경농관과 주변과 함께 학 생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을 담았던 오픈스페이스 였다.

경농관의 비닥높이과의 약 4.0m 높이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크(정돈마루)를 만들어 하부의 차 량동선과 데크총의 보행동선을수지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부딪힘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경농관 레 빨상의 정돈마루를 저총부 포디움(Podium)과 연결시켜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 줌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옥외공간이지만 새로운 활동을 담게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기억을 되실려 줌으로서이곳을 본래가지고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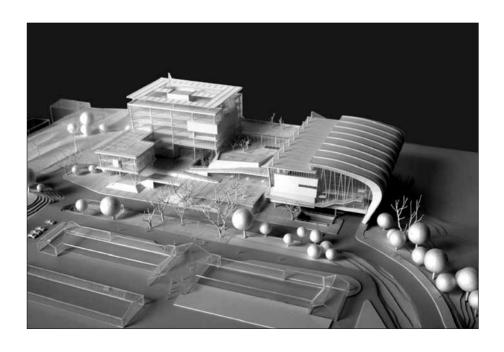
오픈스페이스로서의장소적 특성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 질서만들기

저층부를 형성하고있는 포디움(Podium)은 학생회 관 주변의 캠퍼스 코아에서 경농관 주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보행축을 만들어줌으로서 새로이 만들어지게 될 건물과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포디움에 구성된 랜드스케이프는 자작마루 주변녹지의흐름과 연계되어 기존 캠퍼스내 질서와 잘 적응하면서 캠퍼스내 또 다른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 경계허묵기

포디움의 다양한 레벨 변화는 저층부에 위치한 중·대형강의실 접근을 입체적으로 유도함으로서 이용자(학생, 교수)들의 접근이 어느 곳에서도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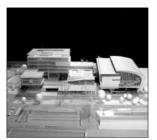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간의 수직적 인 트임과 포디움의 자유로운 높이 변화를 통하 여 구성된 수평, 수직적 동선 네트워크는 각 실룰 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내·외부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줌으로서 공간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포디엄의 랜드스케이 프를 일어나도록 하였다.

#### 프로그램읽기

교양학부, 법학부와 체육관의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저층부(1, 2층)에 교양학부동 중·대형 강의실을 둥으로서 동시에 일어나는 동 선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체육관은 외부접근동선을 고려하여 진입부에 두어 외부인의 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체육관 하부(1층)는 필로타를 만들어 진입마당과 주차장으로이 용되도록하여 공지의 부족함을 해결코자 하였다. 법학부는 5, 6, 7층에 두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관은 유리커튼월로 가볍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경 동관, 자작마루와 조화를 가지면서 학교 진입부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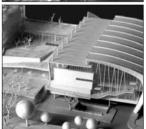


배치도











## 도립노인전문병원

Hospital For The Elderly

경기도는 노령화시대에 요구되는 보건, 의료서 비스의 충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전문병원의 시급한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20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및 요양시설로서 경기 북부 및 인근지역에서의 경기도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 경기를실시한 바 '(쥐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동이종합건설(주)' 컨소시엄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 당선작 / (주)건정종합 건축사사무소(노형래 ) + 신동아종합건설(주)(턴키)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146외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40m²

건축면적 2678.28㎡

연면적 6,806,20m²

지하 2,070,39㎡, 지상 4,735,81㎡

건폐율 32,11%

용 적 률 56,78%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68대(장애인 3대, 응급 2대, 셔틀버스 1대 포함

**외부마감** 토석벽돌, 화강석, 적삼목패널, 알루미늄시 트 금속루버, THK24복층유리

설계팀 고종준, 주영준,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조용선, 윤영준, 김영주

#### 계획개념

따뜻한 우리집과 같은 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시설 로서 입원환자들의 재원기간이 길고 환경적응이 나 이동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물리적 치 료에 앞서 평소 거주하던 '집' 과 같은 안락한 환 경을 조성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 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노인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병원', '치유환경을 만족하는 병원', '자연 친화적 병원', '변화·성장에 대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배치개념

대지는 서측 전면도로에서 동측으로 경시가 심하게 형성되어 도로 진입레벨에 인접한 곳에 주차정을



배치하고 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기지형태의 간호단위를 엇갈려 배치함으로써 병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정을 두어 정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특히 동축의 대지에 인접한 녹지와 연계해 옥외치 유공간을 두어 자연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 스럽게 중정으로 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축 치매노인병원과 관리동선의 연결을 위해 서비스 도로를 계획하였다.

#### 평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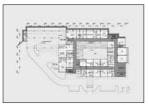
평면조닝은 크게 외래진료, 관리·부대시설, 병동으로 분류해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지하 1층에 외래 진료를 두고 2, 3층에 병동부를 두었으며, 그 중간층인 1층에 관리·부대시설을 두어 이용과 관리의 효율서 및 충별 독립성을 고려하였다.

병동부에서 '¬'지형태의 1개 간호단위는 간호스테 이션을 중심으로 각병실의 보호와 통제가 이루어 지며 배회복도는 각 충별 옥외데크와 연결되어 내, 외부 공간을 교치하였다.

긴 배회복도의 사이사이에 알코브를 두어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배회시 지루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담소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 입 · 단면개념

입면은 노인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숙하고 따뜻한 느낌의 입면재료를 사용하고 전통 건축의 의장요소를 차용해 자연속 전통한목의 이미 지를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 며, 단면계획은 헌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계 단식 레벨구성을 하여 옥외공간이 자연스럽게 중정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증축이 가능 하도록 고려하였다.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 주엽어린이 도서관

Juyeop Child Library

고양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친밀감과 자신감,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입자적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서 어린이의 연령단계별 형태적 특성과 사회적응력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전용 공간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마당소리 건축사사무소', 우수작으로는 '유한 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마당소리(최동호)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2번지 외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서관)

용 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500m²

건축면적 747,11m²

연면적 2,048,19m²

건폐율 49,81% 용적률 118,25%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팀 이상원

#### 만대루에서 춤을

병산서원에 다가서면 가슴이 설렌다. 무엇보다도 그 좋은 자리에 만대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누마루에 오르면 당장은 자연풍광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펼쳐지는 시각적 흥분이 눈앞을 가로 지른다. 그 다음 천천히 몸으로 다가와 손에 닿아 안길 것만 같은 병산의 풍만한 자태와 복례문 앞의 배롱나무 꽃가지의 영글은 모습들, 낙동강 강물 줄기의 넓은 속가슴 속에 담겨있는 한 아름의 꽃다발 향기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는 신선한 바람소리의 살 냄새들이 촉각적으로 온몸을 감싼다. 이러한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바람의 참으로 표현한다면 '촉각적시각성'일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전이다.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더욱 감촉적인 만대루의 살결을 내 몸으로 답한다. 전통건축은 단순히 시 각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각적 표상으



로 느껴진다. 나는 이러한 누마루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한국건축 아이덴티티 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맨발로 걸어보는 만대루의 촉각성

이러한 만대루를 어린이 도서관의 설계에 중요한 이념으로서 건축화 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어 린이 도서관의 개념은 정확한 것이어야 하며, 쓸 데없는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 부터 끝까지 지속하였다. 그래서 만대루를 그대 로 옮기기로 하였다. 정확한 물리적인 크기는 물 론이며, 촉각적인 누마루의 손맛을 놓쳐서는 안 되었다. 맨발로 책을 보는 도서관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 이제부터 만대루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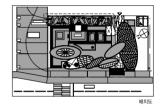
처음부터 생각한 만대루를 소중한 이념으로서 지 속시켜야 한다.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 품에서 촉각적 수용의 문제를 다룬다. 즉 "건축 (물)의 수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사용과 지각. 더 정확히 말하면 촉각과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고 하였다. 건축은 눈맛 뿐만이 아니라 손맛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시각적 촉각성의 속성을 갖 는 건축이 그 '맛의 미학'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 개년

'주엽 어린이 도서관' 프로젝트는 몇 가지 미적 개념을 갖게 된다. 물론 개념이라는 말은 헤겔식 사유방식대로 나무와 씨앗의 비유에서 보듯이. '씨앗은 개념이고 나무는 실재성'이다. 이처럼 개 념은 '실제성과 동시적인 것이며, 그들 규정성의 이념적인 통일"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라 는 그릇을 담기에 적절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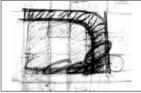
- •개념 1 / 대청마루가 있는 어린이 도서관 주엽 어린이 도서관의 열람실로 들어오게 되면 가 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안마당과 면하여 있는 대청마루이다. 이곳은 안마당을 항하여 열려져 있 으며, 병산의 병풍처럼 '공덕의 전시벽'이, 또한 낙동강 줄기처럼 연지가 앞에 펼쳐진다. 물론 누 마루로 설계된 '어린이 종합자료 열람기능'이 있 는 대청마루는 만대루의 일체를 가져왔다. 바닥의 마루 깔기 패턴까지도
- •개념 2 / 어린이 도서관의 촉각성 공간 도서관에서 맨발로, 편한 자세로, 내 집 같은 분위 기, 나무 바닥에서 누워서 책을 본다.
- •개념 3 / 안마당의 책 마당 어린이 도서관 안마당은 잔디가 깔리지 않는 흙바 닥으로 되어있다 책 소리가 나는 안마당은 꿈이 라는 상상의 춤을 추는 곳
- 개념 4 / 징검다리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 풍습에 정월 대보름 전날에 행하여진 월천공덕은 징검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다. 물론 남모르게 해야 한다. 징검다리는 매우 소 중한 의미를 갖는 공동사회에서 핵심이 된다. 월천 공덕은 이 시대에서도 어린이에게 교육적 상기라 하여도 좋을 소중한 덕목이다. 물이 흐른다. 그 사 이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될'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우리'라는 연꽃을 가슴에 그릴 것이다 (글 / 최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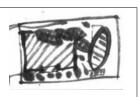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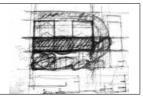
징검다리 연속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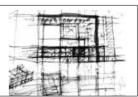


월천공덕 징검다리 이미지 스케치



타원형 징검다리의 조형





안마당 스케치



## 주엽어린이 도서관

Juyeop Child Library

#### 우수작 / 유한건축사사무소(정승이)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2번지의 1필지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서관)

대지면적 1.500m²

건축면적 742,20m²

연면적 2,087,0m²

건 폐 율 49,48%

용 적 률 120,33%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 층

외부마감 고밀도목재외장패널, 노출콘크리트, 24로

이복층유리층

설계팀 김규선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 지식, 진리의 평등

지식과 진리는 모두의 것이며, 무상으로 평등 하게 누려야하는 것이 도서관의 근본이념이 다. 이 평등의 이념이 진리의 자유로움으로 표현되어 어린이에게 이곳이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며 체험하는 평등의 장소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동선의 관절 - 길의 뼈대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찻길은 빠르며 냉랭하다. 그리고 시끄럽다.

반면 사람길은 느릿느릿 여유롭다. 그리고 조용 하다

대상은 사람이며 어린이가 주인이다.

결과적으로 보행로는 본 계획에 있어 주 접근동 선이자 안전을 위한 울타리 그리고 천혜의 Open-Space로 쓰여지게 된다.

#### 동선의 관절 - 마당

계획대지는 북측에 폭 15m의 보행로,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열십자 형상의 보행동선 중앙에 놓여있 다. 길 만으로는 흥미가 없다.

대지 건너의 보행자 연결동선인 횡단보도의 구조적 단점에 대해 이번 계획안에서는 마당 이라는 동선의 관절을 부여해 자연스레 흘러 가거나 머무를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고자 하다

#### 기능제안 조형

도로와 열람공간과의 거리, 도로에 대응한 도 서관의 동적이면서 개방적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열람공간과 서비스공간의 매개적 요소 인 프렌드파크의 배치 등 평면의 구성방식은 특별한 여과 없이 외부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하다



## 계획의 전개방향

공공성,개방성

영역의 확장

안전성

수직동선분리

다면적기능성

조망의 적극적 분석

옥외공간의 활성

바닥난방시스템

(1층-어린이종합자료코너)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Pass Pass	P .= P .= P .= 1	"   "	t"	7
32.4 = 3	A was bod	and the season of the season o	23+E	OHRE	
	1 ton man ax	A SOUR	10	MANAGE	
	<u> </u>	BAN ANN	127111	Harren and	

종단면도

## 화정어린이도서관

Hwajeong Child Library

고양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친밀감과 자신감,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존의 외관 지향적인 건립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지적 특성을 살린 문화시설로서 어린이의 연령단계별 행태적 특성과 사회적응력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전용 시립도서관설립을 위해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유한건축사사무소' 안을 당선작으로 설정, 발표하였다

#### 당선작 / 유한건축사사무소(정승이)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5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서관)

대지면적 1.002.1m²

건축면적 568,9m²

연면적 1,684,8m²

건폐율 56.77%

용적률 139.76%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ZINK, 외벽단열시스템, 목패널, T24로이복 층유리, T12 색강화유리

설계팀 김규선 정지한 양용석 고하동

#### 공원속 도서관

도서관은 학교와 다불어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공간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독서습관을 익혀주는 사회서비스적 공간이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어린이가 보가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주어진 내부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내·외부 공간적성격을 어린이의 시·지각적 인지능력에 적합한 계획으로 21세기 어린이 시설의 새로운 전형이 된다.

이번 계확안은 설정된 대지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지 후면에 위치한 공원과 적극적 으로 관계하여 "공원 앞 도서관"이 아닌 "공원 속 도서관"으로 도서관과 공원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이미지 표현

어린이가 主가 되는 독서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 2가지 요소를 유추하여 접근한다.

하나는 어린이의 심미적(審美的) 성향에서 유추 한 '색' 으로의 접근이다. 각기 다른 성향과 개성 을 지닌 자유로운 작은 인격체, 리드미컬한 색의 조합은 어린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또다른 하나는 서가(書架)이미지의 물리적 표현이다. 서가는 책이라는 열매를 담은 나무이며, 도서관 은 그 나무들을 품고 있는 숲으로 표현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화정어린이도서관'만의 차 별성을 구축하는 대표적 요소가 된다.





#### 계획전개방향

#### 共有

PATH의 도입 공공성,개방성

진입,안전성

토지의 효율성

동선 분리

인지성 바닥난방시스템













종단면도

089 0 5 0 7 대한 건축사 협회

## 기고FEATURE

이 관 직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ck, KIRA

# 현상설계에 대하여

On Design Competitions

## 염려스러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축사협회의 위상

각 분야의 협회 등으로 이름 지어진 전문가 집단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이라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의 각 분야와 계층,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풀어가기 어려운 갈등 혹은 불신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처럼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사회와 산업 혹은 문화 등 각 분야는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근대 민주사회의 형성과정이 짧은 우리의 현실은 축적된 역사와 문제 해결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수입된 제도와 체계화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가면서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 각 분야와 경제의 생산과 소비 주체간 들에 의견이나 상식들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한 불균형과 갈등 과정 안에서 각 분야의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흔히 이익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또 실지로 이익과 관심에 따라서 수많은 전문가 집단, 협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혼란과 갈등이 건축과 건설 관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업무가 건축사의 영역

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실내건축가협회가 생겨나고, 아직도 계속되는 이 슈 중에 하나인 건축사보수기준대가(설계비요율) 자체가 불공정 거래로 논의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유로 자본의 논리로 차장하면서 건축설계용역을 겸업의 범위로 만들려는 것 등이 우리와 관 려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한 수입된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정의 혼란과 갈등 속에 건축사사 무소들은 육성과 보호 없이 생존을 위한 과당경쟁에 내몰리고 감시와 제 재 기관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 기준을 만드는 몰염치 한 이익집단으로 몰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축문화를 이끄는 문화인이나 작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설계의 질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설계용역비를 받아내려는 상술의 장시꾸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직금의 상황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선언과 일단의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건축사사무소의 건전한 노력과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계획비의 법적 제도화와 같은 과당 경쟁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도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경쟁과 노력을 통하여 일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을 통하여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생업인 건축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 자금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다

#### 치열한 혹은 비열한 전쟁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편리를 위한 문화적 몰이해와 잘못된 제도 법규와 건설사의 이익의 부함, 어쩔 수없이(?) 동조하는 대형 건축 사사무소의 참여로 해서 턴키시장은 점점 더 소규모의 프로젝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심사한 사람이 평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지고 심사 내용까지도 익명으로 숨어버리는 이상한 비겁한 제도를 인정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황이기도 하다.

비교적 큰 시장에서의 그런 상황은 여전히 당신들의 나라인, 아귀다툼과 치졸하고 비열한 시장이 있다. 현상설계라는 동네가 그런 곳이다.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현상설계로 진행된다. 큰 규모는 턴키제도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이러한 규모에 의한 구분은 건축과 도시, 국가의 중요한 문화사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프로젝트의 도시적, 문화적 성격에 따라 수행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가급적 턴키 프로젝트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건교부, 문광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문화적인 무지와 행정 편의의 결과가 도시와 건축의 문화적 발전을 좀먹고 있다. 빠른 시행과 빠른 건설은 임기 중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현행 지방자치의 제도와 정치적 전략과 관계가 있다.)

현상설계는 턴키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욕 있는 신인들과 소규모의 건 축사사무소들이 작가로서 인정받고, 자신이 투자하고 노력과 쌓아온 실 력을 보상 받는다는, 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 동기부여의 시스 템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건축사 자신과 건축사보인 직원과 그 가족 의 생계수단으로서 몇 가지 안 되는 수주 방식의 하나로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설계의 제도와 운영, 그것을 수행하는 주최 촉의 마음가침과 의도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정상적인 로비에 의존하려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심사과정 에서 벌어지는 정당하지 못한 불의에 대해 못 본 척 지나쳐버리곤 해왔다.

민주사회는 구성원의 마음과 제도가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음에 관한 문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바른생활혹은 도덕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교육이 있어 왔다. 마음의 문제와 정신적인 태도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추상적이고 탁상론적인 주장이 되기가 쉽다. 여기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 문화적 관점

현상설계의 제도 혹은 법적 장치는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제도적 효율 의 관점, 공정성 이 세 가지의 입장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상설계는 문화적인 관심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회적 제도이다. 도시 와 지역의 계획과 건축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상되고 수행된다. 그것에 대해 아이디어와 수행능력을 경쟁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좋은 것을 채택 하려는 행위는 문화적 관심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서양의 도시와 건축 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러한 문화적 관심의 성과를 보여준다. 물론 모 든 프로젝트가 그러한 공모전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에 와서도 건축과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 있어서 현상설계는 핵심적이고 중 요한 방식 중에 하나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턴키제도(설계사공일괄입찰방식)는 현상설계와 유사해 보이지만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건설사의 이익과 발주자의 행정 편의, 발주 위험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제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설계 분야가 대형 건설사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왜곡되는 나쁜 영향에 빠져있다. 건설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구성과 구조가 지나치게 대형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설계용역의 분배와 건축사보의 고용시장 구성이 빈익빈 부익부로 더욱 열억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과 제도를 행정 편의로 고처가면서 턴키의 공사규모 범위를 더욱 낮추려 하니 심히 염려스럽다. 국가적 제도와 방향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의 문화적 관심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도시와 건축은 단순한 건설 효율과 산업적인 생산성이나 투자에 대한 수익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빠르고 편리한 방식만을 추구한다 면 도시와 건축은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다. 도시와 건축은 오래된 문화 적 누적을 통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물량 위주와 관리 편의의 턴키제도가 아니라 조금은 더디고 진행상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설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상설계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도록 제도를 만들 어가야 한다.

#### 제도적 효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여러 분야의 내용이 중첩되고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므로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하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근의 것은 2005년 6월에 예술문 화분야의 건축물에 대한 경우를 보완하여 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건설기 술관리법과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 지방공기기업, 지방공사, 기타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상설계에 대한 법적인 용어는 DESIGN COMPETITION의 번역용어 인 '설계경기'이다. 설계경기는 UNESCO 규정과 UIA의 지침에 의하면 프로젝트 설계경기 Project Competition과 아이디어 설계경기 Ideas Competition으로 구분된다. 건교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설계경기의 지침인 셈이다.

건축설계운영지침은 정부의 사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건축가협회의 '한국건축설계규준' (1972년 제정, 1984년 개정, 1989년 개정)이나 UNESCO와 UIA의 국제설계경기의 규정에 비해진행과 심사위원 구성에 인원수가 많고(UIA는 7인 이내, 건축가협회는 5인 이상 9 이내 홀수, 건교부의 건축설계운영지침은 10인 이상 15인 이내), 공무원과 정부기관의 임원, 교수 등이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5번 항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있는자'라고 표현되어 있다. 심사위원의 자격을 건축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준에 비해설계 심사의 취지에 있어서 건축사나 건축가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축과 도시에 이어서 다양한 표현과 발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어의 차원 에 대해서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건축사협회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국내의 설계경기 전반에 관한 설계 경기진행 규준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발주하는 실제 프로젝트의 설계경기에 대한 진행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도의 수행을 주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건축주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적인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를 원하지만 어떻게 설계자를 만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건축사협회는 프로젝트설계경기와 아이디어설계경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준을 만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고 이해시켜서 전문가집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건축사사무소간의 불미스러운 왜곡된 싸움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래서 설계경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건축을 위 한 발표의 기회가 되고 건축사협회는 그러한 좋은 심사를 주관하거나 자 문하는 실적을 쌓으면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건물을 지으려는 수준 있 는 잠재적 건축주인 일반인이나 기업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얻는다면 더불어 숨겨져 있는 많은 경쟁 프로젝트를 공개적인 세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 건축의지를 가진 건축주와 설계자를 건강하게 연결하여 수준 높은 건축을 유도할 수 있고, 가까운 지연과 학연, 우연의 수주방식에서 공개 적인 건강한 경쟁의 방식으로 전화할 수 있다

## 공정성 문제

문화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공정성문제이다. 객관적인 공정성은 건축설계의 주관적인 작업 성격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심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주관적 판단의 문제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사회적 지식으로 축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원칙, 주관주의적인 원칙, 공개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불편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영향력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간다. 현상설계의 진행과 심사가 건축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에 위촉되고 자문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건축설계경기의 심사는 UA 규준처럼 건축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반듯 이 사전에 심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를 위한 판단에 주관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과정은 심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심사위 원이 지도록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도의 체계화의 중심인 건축사협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기본 원리는 시장원리 즉 경쟁의 원리이다. 그러나 기득권의 힘이나 거대 자본의 힘에 대한 소외자나 소수자의 권익 의 보호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문화 예술 분야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 육성해주지 않는다면 존립할 수 없다

건축은 순수예술과 달리 생산적 직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문화적 특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호되고 장려된 문화적 가치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 기초를 둔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참 여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경험을 누적하고, 교육과 홍보에 투지하면서 신뢰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한다. 그 행동의 중심에 건축사협회가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행정의 중심을 기술적인 우위와 제도 연구의 노력으로 되 찾아와야 한다. 그 노력은 권한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회원의 집합체인 건축사협회가 그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소규모 건축사와 그 동안 지역과 국가의 건축과 도시발전에 기여해온 많은 기성건축사들을 위해서 건축사협회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의 정비를 노력해야 한다.

우리도 국내 건축설계경기를 위해서 준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연구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UNESCO와 UIA의 국제설계경기 규준은 국내의 설계경기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훌륭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다른 그 중심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 설계경기는 프로젝트설계경기와 아이디어설계경기로 구분한다.
- 초청설계의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설계경기를 기급적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1단계는 기본적인 접근(general approach)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작은 축척의 스케치도면으로 하며, 10개정도 선택한다. 2단계 까지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은 1, 2차 동일해야 한다.
- 참가자에게 공탁금 혹은 참가 등록비용을 내게 할 수 있고, 이 비용
   의 목적은 참가자들의 참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등록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응모자에게 돌려준다.
- 주최자는 심사결정에 승복하여야 하며, 심사발표 1개월 안에 상금액 을 지급해야 한다
- 설계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공식적인 동의 없이 어떠한 변경도 이루어질 수 없다.
-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주최 측의 권리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단 한번 주어진다
- 심사위원은 설계경기 개막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이름과 보조심사위원의 이름은 설계경기지침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7인을 넘지 않고 홀수이어야 한다. 건축가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또는 기술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

로 구성된다

- •심사위원은 설계경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은 실격시키다.
- 심사위원에 의해 탈락 처리된 작품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는 설계 자의 이름과 함께 적어도 2주일 이상 전시되며, 심사보고서의 서명 사본도 첨부된다. 전시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전체상금의 액수는 예상 건축 비용의 1.5% ~ 3%에 해당되어야 한다.(유럽이 미국의 설계비를 공사비의 8% 정도로 생각하면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 건축가협회의 규준에는 설계비의 총액의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가에 대한 신뢰, 주 관주의에 대한 존중, 공개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사합회는 흩어져있는 건축사들의 그 동안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효율적인 설계경기의 규준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각계에서 진행되는 설계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자문과 진행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개발업체나 단체 등 건설을 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조차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진행과 자문의 의뢰가 오도록 능력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설계경기를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건축주와 설계자를 위한 제도와 수주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심에 건축 사협회가 있다고 믿는다. 圖

## 건 축 설 계 경 기 운 영 지 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2호, 2005. 6. 27)

- ■주요 개정내용
- 건축설계경기 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자격 신 설(제11조)
- 미술관 등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 설계경기심사위원으로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 문가를 일정비율(10~30%) 참여(제12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 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 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 문화의 발자과 공공에 이비지항을 목적으로 하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자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 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기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목의 설계인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모기관에 이에 관하 평가를 의회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 1, "설계경기"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 2. '전문기관'이라함은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 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압수행능력 평가와 건 축설계공모평가(이하 "설계경기 등의평가'라한 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건축사법 등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 문기관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경우를 말한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영 제38조·규칙 제13조의2 제항 및(별표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 본계획 수준의 설계등과 예술성·작품성·참여 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가준에 따라 입

- 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 4. "설계경기공모(안)평가"라함은 영 제38조·규칙 제13조의2 제2항 및(별표가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의성이 요구되어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현상공모에 의하여 발주할 경우 동 운영자침과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 준에 따라 제5호 내지 제7호의 방식에 의한 설 계경기작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공개경기"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 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경기 방식을 말하다
- 6. "세한공개경기"라 함은 영 제37조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 7. "지명초청경기"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 경기방 식을 말한다.
- 8.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경기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시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9. "설계경기공모등에 참여한자"라 함은 설계경기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건축설계경기 공모안 을 제출하는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0. "공모인"이라 함은 건축설계 경기방식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 등에 게 제출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 제4조(설계경기등의 종류)① 설계경기는 참여설계자 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 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등에 따라 당해 설계경기의 2이상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설계경기등의 시행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경기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제37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동조 제1항제6호의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인 다음 각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 나, 응모자격
- 다. 설계경기의 단계 · 등록절차 및 일정
- 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마. 질의 응답의 기간 · 절차 및 그 공개방법
-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 서록 포함하다)

-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아. 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단지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 비 조경 및 토목등배점기주
-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 보상의 내용
-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 카. 기타 설계경기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 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설계경기의 일정) ① 발주기관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경기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 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 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중 등록 마감일부터 설계경기 공모안등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 일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감 안하여 정한다.
- 제7조(등록)① 설계자등은 발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 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자료 등을 교부 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 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 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 다) 관계등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심의위원을 배제등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제13조제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 공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설계지침서) 발주기관등은 제/조제/항의 규정 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경기공 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 여 자의적으로 설계경기공모조건을 설정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질의응답)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

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출도서등) ① 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 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경 기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 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설계경기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등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설계경기 공 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공무원
- 2.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자 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 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이 인정한 자
-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① 발주기관 또 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 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유영하여야 한다
- ② 심시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70%이상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등의 전문분이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자로 임명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등)① 심시위원의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이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괴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시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

- 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야 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설계경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설계평)전문기관의 특례) ① 영 제38조제4 함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추기관등 에서 설계경기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 향을 상호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설계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
- 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건설관계 법·령 등
- 에 의한 적정성 여부 라 제3조제3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규칙
- 다. 세3소세3오의 사업수행등덕평가에 관한 규식 「별표7」제2호 및 제3호의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에 관한 시항
- 마.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 ③ 설계공모안등의 평기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사)①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저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한 아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이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 ③ 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발주기관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 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 제3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 계자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 를 주어이하며, 심사위원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 여야 한다

## 제16조(입상작)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 ②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③ 발주기관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 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 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⑤ 발주기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안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모안의 전시)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 야 한다.

제19조(공모안의 반환) 발주기만등은 제5조 및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 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발주기관등은 이 지침 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설 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세부기준)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 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호(98, 2, 19)로 공 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01를 폐지한다.

##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4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 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자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체 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자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쉰들러의 작품 '쉰들러 쉘터'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I :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 : 비례관계

04\_ 쉰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1998년부터 미국하와이 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곳은 거추다자이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합의 (Au) 취임이 건축하 상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사이사) 타행한 건축 심포지엄 의원을 약합하였다. 그는 2002년 취임이대학교 명의의 최고 교수상 수 성을 수성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전국대학 합의의 (ACSA) 산임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llion Fignieering)의 최고 문원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 IRE위원을 열고 있다.

## 쉰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하우징의 배치

## Theoretical Application of Subsymmetires in Housing Layouts

#### 서론

이 연재의 첫 글로 '선들러 쉘터'의 역사적 관점과 그 구성 및 구조의 기본 개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루돌프 선들러의 구성 이론인 부분대칭 이론과 비례 이론에 관해 논의 하였다. 이 글에서는 앞서 논의한 역사적,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선들러 쉘터'의 구성원리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그 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선들러 쉘터'에서 선들러는 의식적으로 부분대칭 이론과 비례 이론을 상호연계 시켜 도시의 블록 내에서 다양한 주거 공간형태 및 배치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원리를 응용하여 많은 다양한 주거형태의 변형 안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라이트와 선들러는 각각 1914년 시카고 지역의 주거지 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Yeomans, 1915), 여기서 라이트는 그의 'Quadruple Building Block' 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 이웃이 함께 엮이는 그리고 서로 다른 이웃과 조화로운 형태를 이루고 어떤 한 이웃도 같은 입면을 공유하지 않는 계확안. 이러한 배치는 어떠한 길이의 연속적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서의 잘 군 집(group)된 주택지로서 각각의 주택은 다양한 외관 형태를 표현한다." 이 계확인은 원래 1900년에 디자인된 것으로 "Ladies' Home Journal, 이란 잡지에 1901년 'A Home in a Prairie Town'란 주제로 처음 발표되었다(Wright, 1908). 이 작품은(그림 1) 기본 단위 평면을 가지고 다양한 가두풍경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단위 평면을 회전(rotate)하거나 반사 (mirror)시켜 대지 위에 다양하게 배치하는 개념인데, 기본 단위 평면은 가운데 백난로를 기준으로 두 축의 대칭형태로 계획되어있다(McCarter, 1997). 추측건대, 선들라는 이러한 라이트의 개념과 구성원리에 상당한 영화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2년 후 라이트는 동경 재국 호텔의 작업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면서 다음 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쉰들러 ······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일을 책임질 사 람." (Shein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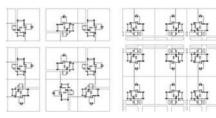


그림 1, 라이트의 Quadruple Building Block

#### '쉰들러 쉘터' 프로젝트의 공간계획

'선들러 쉘터' 프로젝트에서 기본 단위 평면의 공간계획은 단순하다. 우 선 이 디자인은 주택과 차고라는 두 개의 기능 공간으로 분리된다. 주택은 가운데의 홀을 중심으로 4개의 기능 공간으로 분리된다. 부역, 욕실, 다용도 실들은 한 벽에 모든 배관을 집중시키기 위해 하나의 구성단위로 집중화 되어 있다. 이렇게 한 조를 이름으로써 설비배관은 짧아지고 단순해진다. 다용도실은 옥외 베란다에 두고, 세탁물의 건조는 옥외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큰 방으로 남게 되는데, 이 공간은 세 개의 주요공간으로 나누어진다. 한 방은 거실이 되고 다른 두 방은 가변성 이 있는 벽장으로 구분되어 가족구성원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가운데의 홀을 중심으로 이 벽장은 비람개비 형태로 놓여진다. 충분한 크기의 벽장은 양병향으로 열린다. 중앙 홀의 채광창으로 빛이 유입 되며 통풍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차고는 분리된 단위공간으로 주택의 어 느 면에도 붙여질 수 있다. 차고는 충분한 크기로 작업실과 창고로 사용 가 능하다. 차고의 옥상부위는 일관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조립식 구조의 발전과 대량생산에 따라 주거의 단조로운 외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쉰들러 쉘터' 디자인에서는 단위주거에 일관된 변형원리를 적 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 변형 안들을 이루었다. 우선 쉰들러의 모 둘러 개념인 Reference Frames in Space와 부분대칭이론은 이 변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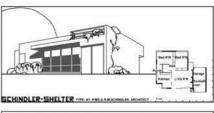




그림 2 네 가지의 단위 평면 유형

들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기본 단위 평면은 5개의 4피트 그리드 위에서 계획되었고 그 공간은 부분대칭 이론에 의해 구성되었다.

저자는 선들러 자료실의 연구를 통하여 선들러가 단위 평면을 기본으로 방 3개, 방 4개, 방 4 1/2개 그리고 방 5개를 포함하는 4가지의 단위 평면 유형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방 4개의 단위 평면이 여섯 가지의 변형 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여섯 가지의 변형 안은 방 4개의 기본 형태를 회전시키거나 반사(mirror)시킨 후 차고가 이 단위평면의 한 면에 부가된 계획으로 각 단위 평면들은 차고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외부 모습을 이끌어낸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변형 안들이 다르게 보이나 앞서 언급한 형태 원리에 기초하여 자세히 따져보면 그들은 모두 유시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선들러 쉘터' 작품의특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은 '선들러 쉘터' 프로젝트의 계층적 질서를 설명한다. 제일 윗 줄에는 이 디자인의 기본 그리드 구조와 대칭이 설명되어 있다. 그 다음 층에는 부엌,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층에는 단위공간으로서의 분리된 차고를 묘시한다. 여기서 이 기본 단위 평면의 내부 공간구조는 바람개비 형태로 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그 다음 층에는 '선들러 쉘턴' 프로젝트의 4가지의 평면 유형이설명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층에는 방 4개의 단위 평면이 여섯 가지의 변형 안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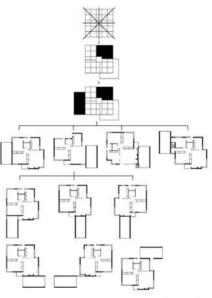


그림 3. 쉰들러 쉘터" 프로젝트의 계층적 질서

이와 같은 기본 단위 평면들과 다양한 변형 안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형 안들을 보다 큰 대지 내에서의 단지계획에서 배열할 것인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변형 안들은 막다른 골목을 가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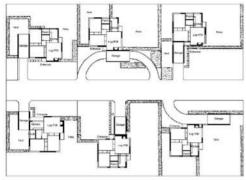




그림 4. 쉰들러가 남긴 "쉰들러 쉘터"의 두 가지 배치계획안

중정을 가진 계획안, 군집형태의 계획안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군집될 수 있으나, 선들러는 이 '선들러 셀러'의 배치 계획안으로서 여섯 개의 단 위주거가 한 거리를 서로 마주보거나 담을 공유하는 군집형태만을 그 예로 제공하였다(그림 4). 다시 말해 이 웰터들은 독립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리의 양쪽에 일렬로 배열되었다.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 네 개의 가본 단위 평면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고가 단위 평면들의 서로 다른 위치에 부가되어 있다. 각각의 대지경계선 전 후면에는 마당을 제공하고 관목을 벽으로 사용하여 마당들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선들러는 차고의 위치변화와 조경 계획 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입면디자인을 제공한다.

분명히, 기본 단위 평먼과 그것의 변형 안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조합될 때 그들이 군집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무한하다. 선들러는 이 작품에서 각 각의 단위 평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작은 변화로 각 평면에 단조로운 특성을 줄이면서 각 주택이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위 평면을 가진, 큰 단지계획의 대칭적 조합은 쉰들러의 여러 초기 실험적인 주거계획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건축주 토마스 하다 (Thomas Hardy)를 위한 Monolith Homes(1919) 계획안과 해리만 프로젝트(The Harriman project, 1924~25)가 그 예가 될 것이다. Monolith Homes 프로젝트는 그의 실험작 중 가장 초기적이다. 이 작품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가 제국호텔을 작업하면서 도쿄에 머무르는 동안 라이트의 시키고 Oak Park studio에 머물던 쉰들러가 위스코신 (Wisconsin) 주 라신(Racine)에 있는 부지에 라이트를 대신해 디자인하였다. 단위주거의 공간계획안은 강한 십자형 축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는데 라이트의 프래리 주택(Prairle Houses)의 원리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또한 18개의 기본 단위 평면이 세분된 단지 내에서 회전대 청을 주 원리로 하여 각각 배열되어 있다. 이 대지에는 지역공동체 공원과 공동 세탁소도 계획되어졌다. 똑같은 배치개념이 샌디에고(San Diego)에 있는 Rueblo Ribera Courl에도 사용되었다(그림 6). 이 작품의 단위 평면 계획에서는 엄격한 대칭이론이 쓰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룹 화 시키고 배열할 때는 90도 각도의 회전대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단위주거의 변형 및 배치로 인해 전체 단지계획에서의 다양한 입면경관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원리는 이후 선들러의 주거계획안에 자주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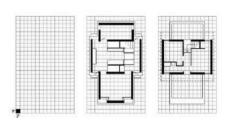


그림 5, Monolith Homes 단위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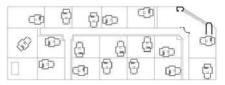


그림 6. Monolith Homes의 단지 내 배치

단지계획에서 단위 평면의 대칭적 배치는 Harriman project (1924~25)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7). 비록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이계획인에서 선들러는 사각형 대지 안에 27개의 L형태의 비대칭형 단위 평면을 회전(rotale)시키거나 반사(mirror)시켜 대지 위에 배치 하였다. 전체대자는 8피트 넓이의 도로와 4피트 넓이의 뒷골목 의해 세분 되어져 있고 대지는 각각 46 × 46피트의 크기로 세분되어 있다. 출입구 부근에는 이단지의 공공 시설 놀이터와 주차장이 계획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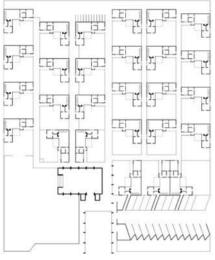


그림 7 해리만 프로젝트(The Harriman project, 1924~25)의 단위 평면 단지 배치

## 도시 블록 내에 있어서의 '쉰들러 쉘터' 배치의 가능성에 대한 제안

이러한 분석적 논의는 이 이론들이 어떻게 새로운 디자인에 응용할 것인 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같은 공간의 구성원리를 공유한, 다양한 '원들러 셀터' 디자인이 제시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고 하였지만 선들러는 단지 몇 개의 예만을 남겼다. 따라서 선들러가 사용한 대칭원리와 비례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가능성 있는 단위주거의 변형 안들을 재생시켜보는 것도 뜻 있는 연구라 하겠다. 예를 들면 방 세 개와 네 개의 기본 단위를 앞서 논의한 원리들을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들을 만들수 있다. 비록 그림 8 보여진 예들은 선들러의 구성원리 및 공간계획에 기초한 것으로, 선들러의 디자인이 아니지만 '선들러 셀터' 계획안의 한 가능성 있는 그룹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가상적인 도시블록에서 재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라이트가 Quadruple Building Block에서 고려했던 방식으로 쉘터를 배열 해보기로 한다. 이 예에서 도시 내에서의 기본블록 형태로 가상적인 정사각 형 형태의 부지를 설정하였다.

여기선 이 연재의 두 번째 글에서 논의한 정사각형의 부분대칭의 8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곱셈 구구표(multiplication table)를 이용하여 여러 단 위 평면들을 배열해보기로 한다(Budden 1972; Grossman and Magnus, 1964; Lockwood and Macmillan, 1978). 여러 부분 대칭사이는 연산이 성립되는데, 즉 여러 부분 대칭을 서로 산술적으로 곱하여 다른 부분대칭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0은 이 곱셈표를 근간으로 제일 윗 줄의 왼쪽에 정사각형의 부분대칭의 8가지 요소들을 배열하였다(March and Steadman, 1971). 즉 부분대칭의 8가지 요소들을 서로 곱함으로써 다른 부분대칭을 얻게 된다.

그림 10에서 정사각형 대지 내의 단순한 점은 부지 내에서 차고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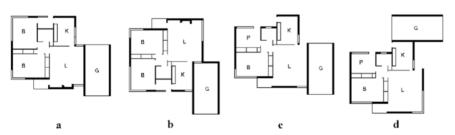


그림 8. '현들러 엘터'의 공간계획과 구성원리를 적용한 '현들러 엘터'와 유사한 디자안 a)와 b)는 방 4개의 단위 평면에서 파생된 디자인. c)와 d) 방 3개의 단위 평면에서 파생된 디자인. (Key: B, 방, L가실, K,부엌, P,포채/Porch), G,차고]

100 Korean Architects July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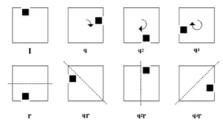


그림 9. 정사각형의 부분대칭의 8가지 요소들. 여기서 q는 90도 시계방향 화전을 나타내고, r은 반사대칭(mirror)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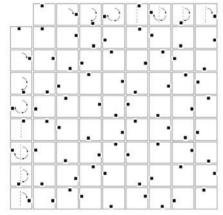


그림 10. 정사각형의 부분대칭 요소들을 곱셈표(multiplication table)를 이용한 단위 평면들의 가상적 단지 내의 배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차도를 나타낸다. 이 까만 점은 정사각형 부분대칭에 상용하게 배치되어있다. 각 블록은 어빙 겔(rving Gill)이 루이스 코츠 집합 주거(Lewis Courts, Sierra Madre)에서 한 것처럼 여덟 개의 단위주거기 중앙부에 반 사유의 개방된 안마당 주위에 배열된다(McCoy, 1960).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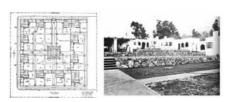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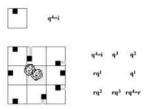
그림 11, 어빙 길(Irving Gill)의 루이스 코츠(Lewis Courts, Sierra Madre, 1910)

여덟 개의 블록은 중앙에 큰 지역공동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배열된다. 이 모든 배열은 앞서 논의한 정사각형의 대칭그룹에 준하여 배열된다. 그림 12 에서 보여주는 예는 전체 블록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보여주다.

이 예에서 방 세 개 혹은 네 개 형태의 단위주거가 여덟 개의 군집 중 하나에 배열된다(그림 13). 가운데 안마당을 가진 여덟 개의 단위주거가 그룹을 이루는데, 이 안마당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거주자들의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각 주차장은 개인단위주거에 덧붙여지거나 떨어져 배열되어 외부 도로와 연결된다.

선들러가 주장했듯이 각 단위주거에 퍼골라(pergola), 캔틸레버 데크, 붙 박이 꽃 상자(flowerbox) 등의 요소들이 덧붙여질 수 있다. 전체블록 주변 에 보행로가 배치되고 사생활이나 개인공간의 확보 및 적절한 채광을 위하 여 6피트 높이의 관목류들이 단위 주거들 사이에 배치된다(그림 14).

3차원 투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배치는 외부에서 볼 때 역동적인 모습을 제공한다. 각 블록의 각 코너에서 눈높이로 봤을 때. 주변의 거리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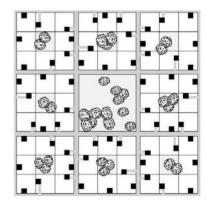


그림 12. Top.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자고의 위치를 나타내는 '연물리 설명' 제가-Conter. 장사각병의 부탁진칭 의 8가지 요소들에 상용하는 단위 평면의 배치, 도로에서 집까지의 작업로를 보여준다 Bottom 중앙의 언마당 주반에 따라 배치된 8개의 콜라스테스Uset 는 경시적 영화 부분대칭의 부분대칭의 이기고 요소들에 상용하게 배치된 도로에서 집까지의 언킨되다 치고가 도시작성으로 반나지 않는 조건 산대원 다른 전체되다 차고가 작업적으로 반나지 않도록 계획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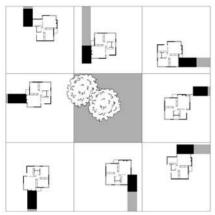


그림 13. 정사각형의 부분대칭의 8가지 요소들에 상용하는 하우징 단위주거의 배치대안. 차고까지의 자연로가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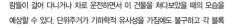




그림 14, 다양한 3차원적 가두풍경의 표현하는 컴퓨터 모델

에서 보여지는 형태들은 보행자가 투시형태로 쳐다봤을 때 약간의 공통 요소들을 소유하지만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그림 15).

## 결론

이 글에서는 부분대칭 이론이 어떻게 '쉰들러 쉘터'에 적용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 이론을 근거로 '쒼들러 쉘터'와 유사한 새로운 단위 주거 변형 안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여기서 대칭이론과 더불어 차고의 다양한 위치 변화가 디자인의 다양성을 증대 시켰음을 증명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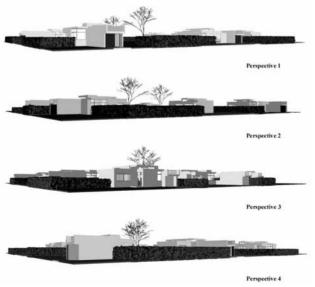


그림 15, 부지의 각 모서리에서 눈높이로 바라본 광경

나아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상적인 도시블록에서 다양한 단위 주거 변형 안들이 어떻게 재배치 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도 실험해 보 았다. 라이트(Wright)의 창의적인 Quadruple Building Block의 구성 원리와 그 배치에 관한 이론을 바탕 으로 몇 가지의 단위 주거 변형 안들 이 도시 내에 대칭이론에 근거해 배 열되었을 때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디자인 예 로 증명해 보였다. 단지 내에서의 유 사한 단위 주거의 반복적 배치로 인 하여 가두풍경이 지루하고 단조로울 것 같지만 이외로 보행자들은 거리를 걸을 때 도시 내 다양한 형태의 주거 를 즐길 수 있고 단조로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圖

102

news

#### 협회소식 kira news

### 이사회 개최

#### ■ 제1회 임시이사회

2005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5월 23일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는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논의되었으며, 기타사 항에서는 회관지부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기로 했고 2005 건축가족 한마음 서울사랑 걷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승인금액: 33.000.000원

· 사용목적 : 건축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정책 포럼 운영비

### ■ 제9회 이사회

2005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6월 7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 에서는 명예회원 추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승인 의 건,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주 40시 간 근무제」시행의 건, 정회원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2005 전국건축사대회 예산 지원에 관한 건, 2005 전국 건축사대회 CM세미나 개최 계획(안) 승인의 건 2005 경향하우징페어 전시참여 계획(안) 승인의 건. 추대회원 추대 추가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 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세부 실천방안 추진에 관한 건과 회비 등 수납금 송금 유보에 관한 건,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등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명예회원 추천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승인의 건
- 현행 정관에 의거 명예이사 또는 명예회원 을 추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은 제 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추대 대상 자의 명단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 의 · 의격하기로 한
- •제2호의안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 (안) 승인의 건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관할관청' 을 '관계행 정기관 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 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여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여비규정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기로 함

현 행	개 정
제11조(회의비 지출) ① 협	제11조(회의참석비 지출) ①
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는 별표	회의참석비
Ⅲ에서 정하는 바에 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의참
라 회의비를 지급하다	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너 되어야할 사답인다.	1, 협회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특
	별히 구성·운영하는 회의에 회원
	또는 대외인사가 참석하는 경우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년 3월 4일이
	후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지급한
	회의참석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
	급한 것으로 본다.

- 제4호의안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의 건
- 관련위원회의 검토 후 이사회에 재상정하기 로 함.
- •제5호의안: 정회원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 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139명을 2005 6. 7일자로 제명하고, 제명된 자의 미납회비 134.950천원은 결손처분하기로 함.
- •제6호의안: 경기도건축사회 회원 제명 및 미

103 0 5 0 7 대한 건축 사 협회

#### 납회비 결손처분 승인의 건

- 경기도건축시회 소속회원중 추대회원 3명 (윤진우, 이성규, 최 응)을 제외한 29명을 2005. 6. 7일자로 제명하고, 제명된 자의 미납회비 22,245천원은 결손처분하기로 함(경기도 제명일자 이후 3명은 재입회)
- •제7호의안: 2005전국건축사대회 예산 지 원에 관한 건
- 2005전국건축사대회 예산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기로 함.
- ▷ 전국대회행사비 : 120,000천원(본협회 부담금)
- ▷ 정보전산사업비 : 30,000천원(행사비 로 목간전용하여 사용)
- ▷ 합계: 150,000천원
- 제8호의안: 2005 전국건축사대회 CM세 미나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 2005전국건축사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CM세미나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개최 경비는 부산건축사회가 전국대회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기로 한.
- 제9호의안: 2005 경향하우징페어 전시참 여 계획(안) 승인의 건
- 2005 경향하우징페어에 원안대로 참여 하기로 함.
  - ▷ 지출예산 : 홍보사업비중 800만원
- 제10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추가 승인의 건
- 제25대 이세훈회장을 임기만료 시점('04.
   10. 1)부터 추대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함.

#### ▲ 혐의사항

- 제1호 :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세부실천방 안 추진에 관한 건
-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범국가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협회에서도 정 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회비 등 수납금 송금유보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에서 유보하고 있는 본협회 회

  비 등의 수납금이 송금되도록 회장이 다각

  도로 노력하기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

  는 다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2005전국건축사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함.
  - ▷ 건축문화혁신대회(6/25) 결의문 내용 은 6월 14일 개최되는 합동준비위원회 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 건축사 만남의 광장 개최시 본협회 임원 일동으로 경품 1점을 제공하기로 하되, 세 부사항은 총무이사와 협의 · 추진하기로 함.
  - ▷ 향후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차기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여 이번 전국대회시 이벤트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사 개최후 시ㆍ도건축사회의 유치 신청을 받아 9~10월경 이사회에서 차기 개최지를 선정하기로 한

#### ▲ 기타사항

- '05. 5, 30~6,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APEC건축사회의에 참가한 이근항 부회장으로부터 참가결과 보고와 함께 우리나라도 기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함.
- '05. 6. 15 APEC건축사회의 기입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주관 회의가 있을 예정임.
- '05. 6. 24일 개최되는 축구대회 지원문제 는 제2회 합동준비위원회('05. 5. 24)에서 부산건축사회가 지원키로 한 사항(장소, 심 판, 텐트, 음료, 의료지원 등) 이외에 추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함.
- 다만, 동 행사는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기 타 경비(숙식비, 여비 등)는 참가팀이 자 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함.
- 부산건축사회는 CM세미나 개최경비와 축 구대회 식사비가 추가되었으므로 협찬금을 최대한 유치토록 하고, 협찬금 범위내에서 해당경비를 충당하기로 함.
- JIA와의 축구시합 개최문제는 본협회의 명 의만 사용하기로 함.

#### 위원회 소식

#### ■ 제4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4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 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12일 오후4시에 개 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검업 대처방안에 관한 건, 건축문화력신과제 발굴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겸업 대처방안에 관한 건
- 설계경업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정책개발 TF 팀 토론방'을 개설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로 한
- 건설교통부의 업역·하도급 실무작업반 회의(5/16) 결과에 따라 언론사 및 회원 사에 보도자료를 송부키로 하고, 자료는 임두기 위원이 작성하기로 한
- 정부가 설계검업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 엇인지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문안은 조원용 위원이 조총기 위원과 협 의하여 작성하기로 한.
- 제2호 : 건축문화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건

   본협회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로 한 '정책
  개발 TF팀 토론방'에 각 위원들이 의견
  을 제시하기로 항

#### ■ 제5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5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 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19일 오후4시에 개 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검업 대응방안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겸업 대응방안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의 업역·하도급 실무작업반 회의(5/16) 결과를 설명함.

- ▷ 건축사협회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함.
  정부건설경제 담당관실)가 설계검업문제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선회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요구.(6월말까지는방화제시)
- ▷ 건축설계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 부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함: 건축 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함께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건설협회의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음.
- 관·민·학계의 공동 연구방안이 필요함.
  - ▷ 설계겸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먼저 해 결되어야 함.
    - 관·민·학계의 합의된 의견 정리가 필요(6/16까지 기본방향 제시) 건교부 (건축과장), 학계(김광현교수), 업계의 대책방안을 협의(5/20)키로 함.
- 대안 제시를 위하여 4대 중점과제를 아
   래와 같이 선정함.
- ① 건축제도 혁신분야(국제화 대비)
  - · 건축사법의 전면개정 및 재편
  - · 건축관련법의 정비 및 체계화
  - · 설계 · 감리제도 정비
  - · 법 · 제도의 운용형태 개선
- ② 건축디자인 산업분야
  - · 설계디자인 R&D 육성 투자
  - · 설계디자인 인력 및 잠재력 보유 증진
  - · 지적자산의 보호육성(저작권)
  -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구축
- ③ 인적자원분야
  - · 국제기준에 따른 교육체계
  - · 건축학교육 인증문제
  - · 건축사등록원 설치문제
  - · 건축사시험제도
  - · 시장개방 등 국제화 대비
- ④ 문화증진분야

- ·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향유 방아
- · 건축가치 창출을 위한 인식제고
- ·국민에게 건축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 · 보전 및 발굴

#### ■ 제6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6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6일 오후4시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검업 대처방안에 관한 건, 건축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에 관한 건, '정책포럼' 운영지원에 관한 건, 정책개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겸업 대처방안에 관한 건
  - 건설산업 상생·공존 발전방안에 대한 정 책간담회('05. 6, 3)의 내용중 문제점을 발췌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자료 는 곽진훈, 조원용 위원이 민규암 위원과 혐의하여 작성하기로 함.
  - 발제자에게 질의할 내용은 조충기, 임두 기, 박종철 위원이 작성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에 관한 건
- 4대 혁신과제(건축제도 / 건축디자인산업 / 인적지원 / 문화증진를 확정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위원별 담당분이를 정하도록 하며, 세부내용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기 로 한
- •제3호: '정책포럼' 운영지원에 관한 건
- 건축사의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 를 사전에 작성하여 정책포럼측에 제시하 기로 함.
- 제4호 : 정책개발에 관한 건
-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건축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하여 '건축통신원

제도'를 검토하기로 함.

#### ■ 제2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6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구조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건,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대응방안에 관한 건,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하는 신교관리규정 가정이 분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구조 설계기준 개정에 관한 건
- 현행 법체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 교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함.
  -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부의 정책에 따라 3층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되, 종전과 같이 건 축사가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일정 규 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계산만을 구조기술사에게 협력 받도록 수정되어 야 함
  - ▷ 건설교통부에서 개정 고시한 건축구조 설계기준 중에서 '책임구조기술자'에 대한 내용과 '도서 서명날인'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종전대로 환원되어 야 한
- •제2호 :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대응방안에 관한 건
-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책개발TF팀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신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교통부에 제 출하기로 항
- ▷ 신설조항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건축사가 '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 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처벌될 수 도 있음

- ▷ 현행 처분 기준이 있으므로 신설내용은 적용상의 혼란만 초래함.
- 제4호 :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회원신고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위원장이 검토하도록 위임함.
  - ▷ 회원가입에 관한 문제와 건축사회내에서 이동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제5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지금까지 정부에 제출한 의견중 미반영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함
-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은 현행대로 유지

#### ■ 2005년 제2차 FIKA 실무협의회

2005년도 제2차 FIKA 실무협의회가 서울 팔 래스호텔에서 지난 5월 17일 오전7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05~'06 FIKA 사업계획에 관한 건,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건교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한 창구역할 개발에 관한 건, 건설회사의 설계겸업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에 관한 건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05~'06 FIKA 사업계획에 관한 건
- 올해부터 일시적인 일처리가 아닌 1년 단 위의 회의안건들을 계획해 나가기로 함. 우선, 법인화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FIKA의 정관을 만들기로 하고, 이영수, 정진국, 최명철위원이 건교부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함
- 향후 건교부의 필요한 업무 또는 FIKA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사항들을 의 논해서 다음 FIKA 회의 때 안건으로 상 정하기로 한
- 제2호 : 건축의 날 제정에 관한 건
- 현재 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축의 날'을 FIKA 명의로 이끌어 나갔으면 함. 따라서, 앞으로 '건축의 날'에 대한 정식

- 명칭과 예산책정, 세부 행사내용 등의 컨 텐츠를 기획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 건교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한 창구역할 개발에 관한 건
- 매번 안건만 의논하고 일의 진척이 전혀안 되는 상황에서는 총 책임자의 필요성을 절감함.
- •제4호 : 건설회사의 설계겸업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에 관한 건
- 외국의 사례와 최근 외국의 관련도서들을 검토하거나 대형설계사무소들과 힘을 합 쳐서 논리를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타사항
- 홍익대 정명원교수의 등록원 관련 1단계 연구용역 발표회가 있었음.

(제목 :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건축사 관리제도 연구)

#### ■ 제1회 정보관리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우 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0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장공약사항에 관 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회장공약사항에 관한 건
- 위원회 추진사업에 관한 방향을 위원장이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키로 하고, 사무처에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차기 회의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 ■ 제2회 홍보소위원회

2005년도 제2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4일 오후4시에 개 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회원 고무인 조각계 획에 관한 건, 2005홍보브로서 제작에 관한 건, 2005년도 홍보계획에 관한 건, 컨벤션 이벤트 홍보(2005 경향하우징페어)에 관한 건 등이 논 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정회원 고무인 조각계획에 관한 건
- 공모를 통해 정회원 고무인 조각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함.
- 공모대상은 본 협회 회원, 대해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업무종사자로 제한하 고, 시상내용은 당선작 1명 100만원, 우 수작 1명 50만원, 가작 2명 30만원으로 정하여 공고하기로 함.
- 고무인 조각디자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공모지침 작성 및 추진은 곽진훈 위원이
   담당하기로 한.
- 제2호 : 2005홍보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 5월 31일까지 홍보브로서 가편집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해 홍보브로서를 제작하기로 한.
- 제3호 : 2005년도 홍보계획에 관한 건
- 제회 홍보소위원회(05.4, 26)에서 제안 된 안건(Agen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위원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함.
- 제4호: 컨벤션 이벤트 홍보(2005 경향하 우징페어)에 관한 건
- 경향하우징페어 관련 홍보에 대한 세부계 획서를 이규환 위원이 작성하여 경향하우 징페어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 제1회 회원협력위원회

2005년도 제1회 회원협력위원회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5월 27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회의결과

- 제1호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2005 전국건축사대회'와 연계한 전시회 및 축구경기 개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악하고, 행사운영은 본협회에서 주관하

106

기로 하며, 부산집행위원회는 장소 등을 준 | 2005 건설의날 기념식 개최 비하는 것으로 하여 역학부담을 하기로 학 ▷ 회화전 관련

- ·작품 참가신청서와 대회지에 수록하 기 위한 작품 슬라이드 이미지를 부산 웬하드에 6월 7일까지 등록하도록 함.
- · 작품은 각 시도 건축사회에서 일괄취 합하여 부산집행위에 6월 15일까지 송부하기로 함.
- · 반입비용은 본인부담. 반출비용은 부 산집행위 부담으로 하기로 함

#### ▷ 축구경기 관련

- ·6월 25일 건축사대회 개막관계로 인 해 6월 24일 하루일정으로 13:00~ 19:00까지 경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참가팀은 12시 30분까지 부산 북구 구민운동장(잔디구장)에 집결하 기로 함
- · 10팀 내외가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 으로 경기를 갖기로 함.
- · 경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부산집행위 원회에서 운동장, 심판진, 의료진을, 본협회에서는 대회기, 토로피, 기념품 등 시상품을 준비키로 하고 기타 참 가에 따른 이동경비, 숙박, 식비 등은 개별참가팀이 부담하기로 함.
- ·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매년 정례행 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회화전과 축 구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과 동호 회 파악을 위하여 각시도 건축사회에 문서로 통보키로 함.

## 우리현회 오유동 회원 등 6명 수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6 월 1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 강당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05 건설의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함께 '2005 건설 의날'주제이기도 한 '국토의 균형발전 건설인 의 힘으로"라는 제목의 영상을 약 5분여간 감상 하며 시작됐다. '국토의 균형발전 건설인의 힘으 로!'라는 주제는 건설인들이 국가적 이슈인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동북아 허브국가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어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가 있은 후 삼부토건 '금탑산업훈장 발표 회'가 있었으며, 여러 유공자에게 이해찬 국무총 리가 각각 포상했다.

우리협회에서는 오운동(한림 종합건축사사무 소)회원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대통령표 창에는 강신(금정건축사사무소)회원이, 건설교통 부장관표창에는 김선양(주.한종종합건축사사무 소) 김성탁(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정효화(주 우 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임종열(건축사사무 소 태평)회원이 수상하여 건축사와 대한건축사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이밖에도 건설산업 발전 에 공헌한 100여명에게 정부포상과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이 끝나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건설산업에서 시장 원리가 정상적이고 효율적 이며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

며 "명확한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성을 잃지 않 을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될 것이고, 부 당한 관행은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치사를 낭독했다

이어 건설인의 노래를 세종대학교 합창단과 참가자들이 함께 합창하며 기념식이 폐회되었 고, 수상자와 관계자들은 조촐하게 마련된 다과 회장에서 수상에 대한 축하와 덕담을 나누며 식 후 시간을 가졌다.

'건설의 날'은 지난 80년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설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 었고 2003년부터 매년 열리며 2백만 건설인 을 아우르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우리현히 수산자 기년환역

## 우리협회 이철호회장, 일본건축사회전 구대회 착석

우리협회 이철호회장은 지난 6월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고야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48회 일본전축사회전 국대회(아이치대회)에 김규태 고문, 김지덕 국제 위원회전문위원과 함께 참석하여 한일 양국 건 축사간 우정을 돈독히 했다.



##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세부실천방안 적극추진키로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 정치부문 · 경제부문 · 시민사회 등 4개 부문의 주요 대표자와 함께 '투명사회협 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건설산업이 국 민경제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 국민으로부터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건설 교통부도 지난 2005년 4월 29일 17개 건설 관련 단체 및 주요 건설관련업체 대표자와 함 께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하는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협회에서도 협약에 따라 2005년도 '제4회 시도건축사회장회의'('O.5 6 7)와 '제 9회 이사회'('05. 6. 7)에서 투명사회협약 세 부실천방안의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협의 하였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 모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당사자는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건 설교통부장관과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관 련단체장 건설관련 사업자는 '투명사회 실현 을 위한 참여헌장'에 서명하여 협약에 가입하 게 됨으로써 건설관련 업계의 부패 없는 행정 환경 조성과 제도개선 공직자 유리의식 제고 통제 강화 및 반부패 노력 확산, 제재기준 강 화 등을 공공부문에서 노력하게 된다.

건설관련 사업자는 부패 예방위한 윤리강 령 제정과 교육 실시와 건설생산과정에서 불 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하도급 관련 비리 등 기업내부 부 패문제를 자율적·능동적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 적극 도입, 뇌물방지, 안전 · 환경 투명사회 협약의 목적은 건설분야의 투명 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국제기준 준수, 부실시

성을 높여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 공 사전예방,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 성 제고 등 유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로 한다는 내용이다.

> 앞으로 정부와 관련단체는 '건설분야 투명 사회 협약'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약가입 홍보와 함께 서명행사 개최 및 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위한 유리강령을 제정키로 하였다

> 우리협회에서는 각 회원이 '투명사회 협약 참여헌장' 서명날인 후 소속 건축사회에 제출 하면 건축사회에서는 매월 말 기준 협약가입 회원사 명단(성명 사무소명 소재지)을 본 현 회에 제출하게 된다.

※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건설관련사업자 참여헌장은 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관련사업자 참여현장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 !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 터 부패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건설분야 투명사회 구현 을 위한 건설업계의 실천의지를 보여 주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하여 다 음 사항들을 적극 실천하고자 이 협약에 가입 합니다

-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 서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 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 3. 우리는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을 위하여 건설생산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척결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 4. 우리는 건설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 수를 위하여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시장경쟁체제를 구축. 선의의 경쟁을 추 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준수하 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 는다
- 5. 우리는 선진 건설문화 창조를 위하여 안 전·환경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관계법령을 준

수하며, 성실 설계·시공과 완벽 설계·시공 으로 건설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진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선다.

- 6. 우리는 건설인이라는 단결된 힘으로 부패 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구호, 자원봉사, 장학사 언 등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다
- 7. 우리는 부패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극복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 능한 발전, 그리고 선진화에 꼭 필요함을 인식 하고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적극 준수 하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행정중심보한도시에 과하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창립 40주년과 서울건축 사신문 창간 13주년을 기념으로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 론회'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수도 서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 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박 진 종로구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상구 교수가 '서울, 도시역사와 정체성'과 김형진 건축 사(가이아도시건축사사무소)의 '국내외 도시개발 사례로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의미'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와 정희윤 박사(시정개발연구원), 정기용 프랑스 건축사(기용건축사사무소), 김영섭 건축사(주, 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박서홍건축사사무소), 학경 건축사(전기선축사사무소), 학경 건축사(전) 건축사사무소)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사회는 박종철 건축사(인터플러스 건 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론회는 앞으로 올 11월과 내년 6월, 총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제6기 특별검사원 발대식 개최

서울건축사회에서는 제6기 특별검사원 발대 식을 지난 6월 2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청 서 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 389명의 제6기 특별검사 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한 뒤 검사원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건축계소식 archi-net

##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성료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여간 개최된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가 성 공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올해 건축문화제는 5일 동안 총 10만 3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제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국 제건축심포지엄', '세계조대작가전',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대전', '세계도시건축전', 시민참여이벤트 '나도 건축가-우리마을 만들기', '전국건축 사회화전' 등 단위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부산시, 건축인, 시민이 함께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돋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수준 높은 국제행사를 개최 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기며 학계 및 업 계관계자, 행정가 등 도시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반사만에 이르기까지 참석대상자와 관람 대상의 폭을 넓혔고 관람 대상을 전국적인 규 모로 확대한 것과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친환경자재 박담화에 참여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계약과 큰 홍보 효괴를 누려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해 문화제측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홍보 및 인력부족 문제 등을 더욱 보완하여 앞으로 세계적인 국제건축문화제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8 월에 있을 국제건축워크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영상센터 초대공모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론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행정중심보한도시에 과하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창립 40주년과 서울건축 사신문 창간 13주년을 기념으로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 론회'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수도 서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 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박 진 종로구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상구 교수가 '서울, 도시역사와 정체성'과 김형진 건축 사(가이아도시건축사사무소)의 '국내외 도시개발 사례로 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의미'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와 정희윤 박사(시정개발연구원), 정기용 프랑스 건축사(기용건축사사무소), 김영섭 건축사(주, 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박서홍건축사사무소), 학경 건축사(전기선축사사무소), 학경 건축사(전) 건축사사무소)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최영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 맡았으며, 사회는 박종철 건축사(인터플러스 건 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론회는 앞으로 올 11월과 내년 6월, 총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제6기 특별검사원 발대식 개최

서울건축사회에서는 제6기 특별검사원 발대 식을 지난 6월 2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청 서 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 389명의 제6기 특별검사 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한 뒤 검사원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건축계소식 archi-net

##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성료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여간 개최된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가 성 공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올해 건축문화제는 5일 동안 총 10만 3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제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국 제건축심포지엄', '세계조대작가전', '부산건축대전', '실내건축대전', '세계도시건축전', 시민참여이벤트 '나도 건축가-우리마을 만들기', '전국건축 사회화전' 등 단위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부산시, 건축인, 시민이 함께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돋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수준 높은 국제행사를 개최 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기며 학계 및 업 계관계자, 행정가 등 도시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반사만에 이르기까지 참석대상자와 관람 대상의 폭을 넓혔고 관람 대상을 전국적인 규 모로 확대한 것과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친환경자재 박담화에 참여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계약과 큰 홍보 효괴를 누려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대해 문화제측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홍보 및 인력부족 문제 등을 더욱 보완하여 앞으로 세계적인 국제건축문화제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8 월에 있을 국제건축워크숍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영상센터 초대공모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토론회



#### 부산국제건축심포지엄

세계적인 건축사들의 열띤 강연회

제5회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건축심 포지엄'이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 쳐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도시와 영원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 조지 하그리브즈, 승효상, 더그 알랜, 베르나드 프랑켄, 렘 쿨하스 6인을 초청,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들어보고 도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려됐다



6월 24일에 열린 첫 번째 강면에서 가장 먼저 조지 하그리브즈는 '해양건축과 워터프론트-측정과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현재 하 버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이미 20여 년간 건축과 조경에 관한 연구 및 설계를 실시 해와 본인이 추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도시의 측정과 해석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강연했다. 생태·조경건축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실시한 하그리브즈 교수는 특 히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면서 동 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그리브즈 교수는 "미국의 크리시 공군 기지가 시민에게 개방돼지역사회의 일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축정과 해석'의 좋

은 예"라면서 "지역사회에 맞는 조경과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훌륭한 도시로 재창조하는데 건 축의 목적이 있다"고 강연내용을 요약해 말했다. "부산의 도시환경이나 조경에 관해 조안"을 해 달라는 질문에 하그리브즈 교수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을 바탕으로 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세계적 건축과 조경의 주세"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도 "도시 조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건축과 조경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다 앞서 자연을 보호하며 도시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 선 승효상 건축사는 '문 화풍경'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 는 현재 이로재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있다.

2002년 국립현대 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 되었고, 대표작품으로 '웰콤시티(2000)', '수백 당(1998)' 등이 있다.

'문화풍경' 이란 화두로 강연을 시작한 승효상 건축사는 현 도시의 영원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움(void)'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 는 간간히 농담을 한마디 씩 건네는 등 강연 분 위기를 부드럽게 이끌며 "도시의 비움(Urban void)이란 도시 내에 다원적 공간을 형성하여 건물과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자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그 알랜 교수가 세 번째 강연자로 등장했는 데, 그는 조지아 공대 부 학장 및 교수로 재직 중 이다.

'도시의 영원성과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더그 알랜 교수는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수, 문화, 크기 등의 변화는 불가피 하지만 나름의 질서를 통한 변화는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영원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도시 재해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

축이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이 끝나자 "도시의 인위적 부분과 자연적 부분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도시에서는 공공, 단체 구역 등 인 위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산이 나 강, 바다 등의 자연적 요소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로마의 건 축물이 과거 상태로 보존돼 있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로마는 도시자체 가 쇠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건축물이 보존되는 것이 가능했다. 과거를 잘 유지하는 것 이 좋은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강연 둘째 날인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 터 시작된 강연에는 베 르나드 프랑켄 건축사가 '디지털 건축의 생성과 디자인' 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청중을 시로잡았다. 베르나드 프랑켄 건 축사는 물방울의 자유로운 형식인 뮌헨 BMW 전 시장과 아이슬란드 정부청사 외 다수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독일에서 프랑켄 사무소를 운영중이다.

이 강면은 미래 건축이라 불리는 '디지털 건축'을 기반으로 다섯 단계의 디지털 생산체계브 리핑, 가공, 구성, 디지털 생산, 경험를 설명하며 연속과 비연속의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건축은 과학이 아니다."며 '현실감이 주어 져 있다면 어떤 건축이든 설계가 실현가능하며 우리는 건축사인 동시에 엔지니어다."라고 말하 고, "도시적 맥락 속에서 디지털 건축은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연결시킨 지속 가능성이 다."라고 말했다.

이 강연에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작업하면서 기존의 정보와 장소, 역사와 전통, 생활의 관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함은 물리적인 함인 지 사회관습의 힘인지 또 이러한 형태를 결정하 기까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의 우선순위 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맥락 과 그런 힘의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맥락은 환경에서 주어진다. 건축은 과학일 뿐 아 니라 디자이너와 함께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주관 적이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정보의 힘이다."라 고 답변했고 "매트릭스, 공각기동대, 스타워즈 같 은 영화를 본 것 같은 설계를 보았다. 하지만 아 직까지 아날로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디 지털 설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건축은 우리의 생활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 자체도 영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 기에서 1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기본적인 기준들, 영구적인 건물이 되는 특징을 고려하였 다. 또 그 나라의 문화, 특징들을 디지털 설계로 했지만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생활양식을 표현했 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자연의 형태에 관심을 두는 반면 무형적인 문화 재를 디지털로 표현하는데 평소에 문화적인 분 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파 라미터 디자인 작업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파라미터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음악, 글에서도 파라미터를 생각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요가가 그것으로서 이를 약 20 년여간 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명 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강연자는 국 내에서도 이미 친숙한 유 명 건축가 램 쿨하스의 강연으로서 '보존과 경시 의 힘'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여간 진행됐다 그

는 44년 네덜란드 출생으로 OMA 건축사무소를 설립 후 에듀커토리움, 매종 보르도, 시애틀 공립 도서관, 중국 국영방송본사 등 많은 작품을 남기 고 현재 하버드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건축사를 광범위한 레퍼토리로서 앞으로 건축의 가능성과 단일도시의 건축 보존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건축의 보존은 개발의 반대개념 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며 "단순히 깨끗하고 좋아보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건축의 주위 환경과 지역성에 맞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주관을 전개했다.

청강자의 질문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답변하 였는데 "북경에서 도시계획에 가까운 건축 작 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북경의 전체적인 모습이 변화되어 보존이냐. 재구축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사는 어떤 힘으로 사람에게 변화된 도시의 모 습을 보여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강연 의 관점은 광범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단일 도시의 건축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 그러므로 건축사가 여러 가지 차워에서 참여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은 개발의 반대 개념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발로 보아야 한 다 단순히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하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답변하였고 "최근 한국에서 외국 건축사의 활동이 많은데도 불과하고 좋은 결과가 없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고 어느 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국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고.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건축사들 도 참여했다. 현재 나타나는 한국의 풍습과 대 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기회주의적으로 특징적인 양식을 모방했다. 어떤 가치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 났다. 이것은 한국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세 계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상상력이 결여된 건축사는 이러한 가치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념비의 정의는 무엇 인가? 또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 기념비를 어 떻게 통합하는가?"라는 질문에 "기념비는 신 조, 믿음, 행사에 대한 기념이다. 하지만 현재 는 과거의 영웅이나 믿음, 신조가 없어졌다. 현 재는 실용적으로 변했고 경제 중심의 문화가 되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기념비적인 필요성 없이도 건축물을 통하여 저절로 생기는 것이 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강연자인 맥 스코 긴 교수는 하버드대 건 축대학장을 역임하고 현 재 하버드대 대학원 교 수로 재직 중이며 오하

이오 주립대, 버클리대 음악관 외 다수를 설계하고 AIA가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가상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강연 주제는 '기념비로서의 건축'으로서 농촌과 도시의 설계에 대한 예를 비교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농촌에 비해 도시는 여러 복잡한 현상과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건물이 설계 시 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생각해 건물의 독특한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억될 것이며 건물자체가 기념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맥 스코긴 교수는 "컴퓨터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 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프랭크 게리의 스타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구 프로세스를 모 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프로젝트를 엄밀 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역사와 내력, 철학적인 부분에 몰입해 많은 연구 후에 프로젝트에 임 한다. 프랭크 게리가 모델과 스케치를 60.70 개 정도 만들어서 결정한 다음 설계에 임하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랭크 게리 가 여러 블록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로 만들 어 가는 반면, 우리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형태 를 제거해 나가면서 모델을 만든다."라고 답변 했고 "건축의 기념비에 있어서도 스케잌이나 디자인 형태를 떠나서 영향을 주는 디자인 요 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자신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기념비를 만드는 건축사는 없 을 것이다. 우리의 작업은 사실 고객의 기대치 와 많은 상관이 있다. 건축사로서 건축철학과 상관없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 러한 고객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 하다."고 답변하였다.

#### 제21회 부산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에서는 '도시 공간
재정의 Re-defining the Urban Spaces' 라는
주제로 '제21회 부산건축대전'을 개최, 심사를
거쳐 지난 2005년 6월 24일 시상식을 갖고 이
들 수상작들을 2005부산국제건축문화제 기간동
안 BEXCO 전시장에서 전시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에는 권대근(인제대학교) 씨의 What will grow in Seo-Myeon?'이 수 상하였으며, 금상에는 심영주(동의대학교)씨의 'Artificial Landscape'와 장활제(대구가톨릭대학교)씨의 'Re-construction of Tool Shop Street', 최다운(울산대학교)씨의 'An Old Road', 이승은(동명정보대학교)씨의 'Empty', 박정석(신라대학교)씨의 'History Flow' 등 5작품이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은상 5점, 특별상 1점, 동상 10점이 시상되었으며, 입선작도 다수 시상되었다.



대상작 / What will grow in Seo-Myeon?

#### 05-06 아카시아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ASIA)에서는 매 2년마다 아시아의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건축상 으로서 국내의 우수 건축물을 널리 알릴 수 있 는 좋은 기회로 손꼽힌다. 2005-2006 아카시 아 건축상에 출품하고자 하는 회원은 작품들을 협회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일정 을 참고하고 협회로 제출하기 바라다.

#### •작품 제출 안내

- 제출되는 작품들은 각 협회를 통하여 제출 되어야 함.
- 제출되는 작품들은 반드시 각 협회의 회 장의 증명을 받아야 함
- Form A(소속 협회에서 작성) 및 Form B(Form 1∼Form 6 포함) 등 모든 제출 서류들을 작성하여 사무국, 아카시아건 축상 운영위원회, 태국건축사협회로 구 성되어 있는 아카시아 건축상 주최자에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출품하는 작품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품제출 기한에 유의하여 작품을 제출하여 주기를 바람.
- 1차 심사를 위하여 6개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Form 4의 Item 4.3은 출품 자가 아닌 소속 협회에서 작성하여야 함.
- Form 6 또는 다른 서류에 있어서 추가적 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경우 A4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여야 한
- 출품자는 아카시아 건축상 운영규정 Item 4를 참고하기 바람.
- 2005-2006 아카시아 건축상 일정
- 제출마감 : '05. 7. 27(수)
- 예비심사 : '05. 8. 15 ~ 18
- 보충자료요청 : '05 8 29
- 최종 심사 및 전시접수마감: '05.10.3
- 수상자 발표(태국, 치앙마이): '05, 11, 27
- 시상식 (중국 베이징) : '06. 11. 4  $\sim$  9

#### • 시상 부문

Category A : 주거시설(RESIDENTIAL PROJECTS)					
Category A-	단독주택(Single-Family Residential Projects)				
Calegory A	Single, Individual Unit				
	다세대주택(Multiple Family Residential				
Category A-	Complexes)				
Calegory A-	Multi-stored Units, Apartments, Flats, Mass				
	Housing, Low Income Settlements, etc				
Category B : 공공시설(PUBLIC AMENITY BUILDING)					
Category B-	상업시설(Commercial Buildings)				
Calegory B	Office Buildings, Shopping Centres, etc.				
Category B-	휴양시설(Resort Buildings)				
Calegory D	Resorts, Leisure Buildings, Hotels, etc.				
	사회/공공시설(Social / Institutional Buildings)				
Category B-	Institutional & Religious Buildings, Schools,				
Calegory D	Hospitals, Health Care Facilities, Community				
	Centres, etc.				
Category B-	특수시설(Special Buildings)				
Calegory b	Sports Complexes, Stadia, Airports, etc.				
Category C : 산업시설(INDUSTRIAL BUILDING)					
Facteries, Wareheuses,etc.					
Category D : 보존/문화시설(CONSERVATION PROJECTS)					
Resteration, Adaptive Re-use, Projects which conserve					
or restore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Asian					
countries)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팀 김성엽 02-581-5711

## 이란 건축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란 건축 전(Iranian Architecture and Design)'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중동의 건축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인류 건축문화의 화려한 운명'이라는 주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근간 한 페르시아 건축을 소개한다.

6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여간 '스 타일 큐브 잔다리'에서 열리며, 전시물은 이란 현지에서 약 6개월에 걸쳐 직접 제작한 이란 고 대건축의 모형과 그 지역 유명 사진작가인 이즈 나베(Aznaveh)의 사진으로 구성된다. 또한 자 문역을 맡은 이란의 Memar교수의 세미나도 마 런되어 이란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 전시내용

모형전시관: 이란의 대표적인 페르시아
 건축물을 모형으로 제작·전시

- 영상관 : 현지에서 촬영된 건축물 및 도

#### 시풍경

- 사진전 : 사진작가 마흐무디 아즈나베의 작품전시

세미나 : 페르시아 건축 양식의 역사문의 : 스타일 큐브 잔다리 02-323-4155



## <u>대전광역시 건축대전 및 건축상 작품</u> 공모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건축가회(회장 이 왕기)에서 주최하여 올해 각각 16회와 17회를 맞 이하는 대전광역시 건축대전과 대전광역시 건축 상의 작품공모 및 수상작 전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였다

- 전시 및 출품기간
- 신청서교부: 7월 1일~9월 29일
- 1차 작품접수 : 9월 29일 9시~12시
- 2차 작품접수: 10월 6일 9시~12시
- 전시기간: 10월 7일~10월 13일
- <del>출품</del>자격
- 건축대전부문 : 제한 없음
- 초대작가부문: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서 초대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 건축상 부문: 응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재설계자 및 시공자가 변경된 경 우 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 자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주 간사를 원칙으로 함)
- 응모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 유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는 2인 을 초괴할 수 없다.
- 초대작가부문 :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자 유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는 1인 을 초과할 수 없다.(건축상 작품은 초대작 가전에 동시출품 불가함)
- 건축상 부문: 2005년 10월 6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완료된 대전광역시 관내건축물(주용도)로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설계자,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검사시점 기준으로 함)

#### • 발표

- 1차 심사발표 : 2005년 9월 30일. 통과 자는 개별 통지
- 2차 심시발표 : 2005년 10월 7일. 수상 자는 개별 통지
- 원서 교부 및 문의 : 건축대전, 초대작가 부분의 원서교부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축 가협회 대전광역시건축가회(824-9981), 건축상 부분 원서교부등 상세한 사항은 대전 광역시 건축과(600-2834)로 문의.

#### 2005한국목조건축대전

목재문화포럼과 신림청이 주최하는 '2006한국 목조건축대전 은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 심으로 목재 등 재생이 가능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우리건축 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가능성이 목조로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목조건 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작이다.

- 응모부문 및 자격
  - 준공건축물부문
    - ▷ 응모작품: 2005년 8월 1일 이전 준 공된 국내 목구조건축물, 혼성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 목조건 축물 부문/상업시설, 종교시설, 숙박시

- 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일반건축 물), 목조주택 부문(단독주택, 공동주 택 등), 목조옥외시설물 부문(목조 조 경물 데크 등)
-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목구조 부분)
- ▷ 응모작품수 : 응모자 1인당 최대 3점
- 계획건축물부문
- ▷ 응모작품 : 농촌 주택 및 옥외시설물 등으로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최대로 활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자세한 사항 은 목재문화포럼 홈페이지(www. woodforumor.k/)를 취조)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응모인원 : 공동작품은 최대 2인
- 신청 및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2005. 8. 1.~2005. 8. 31.
  - 계획건축물부문 1차 : 2005. 8. 1.~ 2005. 8. 16. 2차 : 2005. 8. 31.
  - 신청 및 접수장소: (135-280)서울시 강 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사)목재 문화포럼 한국목조건축대전 집행위원회
  - 신청 및 접수방법 : 우편접수(당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오전 10시~오후 6시)
  - 출품신청서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www.woodforum.or.kr) 받아 출력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
- 수상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 표: 2005년 9월 중(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시상식: 2005년 10월 말(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수상작에 한하여 작품집 발간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대상(1점-산림청장상), 본상(3점), 입선(다수), 특별공로상(목조 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문의 : 목재문화포럼 한국목조건축대전

집행위원회 02-508-5106,

#### sa 2005 summer workshop

ua-sa의 명칭으로 새롭게 갖게 되는 '2005 여름워크숍'은 향후 5년간의 쟁점으로 내건 바 있는 'HYPER-POLIS'라는 좀 더 커다란 시야 로 워크숍 프로젝트 도시로 선정된 통영의 도시 와 건축을 밀도 있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벤 트로 기획되다

통영이라는 도시 고유의 오래된 단말端末과 소격(孫幕remoteness)의 특질에 변이(變異)가 예상된다.

• 프로젝트 대상 : 통영시

• 참가기간 : 2005. 7. 30.~8. 5.

•참가대상 : 국내외 건축학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200명 내외

• 여름건축학교장 : 김영섭(건축문화)

• 코디네이터 : 김헌(asylum)

• 전시회: 2005. 8. 19.~8. 27.

주관: sa, ua-sa institute참가신청: www.saschool.or.kr

## 2005 공간국제학생건축상 및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올해로 각각 제23회와 제5회를 맞이하는 공 간국제학생건축상과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의 주제는 'Supertall Buildings'로서 "한국에서 초고층건축이 가능한 가? 혹은 한국에 초고층건축이 지어져야 하는 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번 건축 상은 두 가지의 주요 부분으로 구 성된다.

- 1. 한국에서 (높이 750m 이상의) 초고층건축 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것
- 2. 건축설계를 설명하는 도면을 제출 할 것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달 렸지만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관련사항들도 언급 되어야 할 것이다

- 1. 마천루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진 맥락과 상호작용 하는가?
- 2 만약 있다면 구조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 3. 건축시스템들은 어떻게 설계에 통합되는가?
- 기계, 전기, 배관, 수직이동(충간이동), 위 형 예방책, 에너지관리, 보안, 서비스, 기타
- 4. 설계해법(Design Solution)이 비용문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 5. 설계해법이 건축가능성 측면을 다루고 있는가?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1팀 3인 이내)
- 일정
- 신청마감: 2005년 8월 31일
- 접수미감: 2005년 9월 16일 오후 5시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1차심사 : 2005년 9월 중(입선작 이상 서전)
- 2차심사: 2005년 10월 중(순위결정 공 개심사)
- •심사위원: Chien Chung Pei\_Pei Partnership Architects, 이영범\_공간그룹
- 참가신청
  - 참가신청 : www.space-prize.com을 통해 참가신청 및 참가비 접수(접수내용 은 1부 프린트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
  - 참가비 : 팀당 5만원
- •시상: 대상(1점) 500만원, 최우수상(1점) 200만원, 우수상(2점) 각 100만원, 가작(3 점) 각 50만원, 입선작 다수(대상 수상자는 공간건축 입사 기회부여, 입상자는 지원시 가점 부여)
- 작품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사무국)

- 제출사항
  - 파워 포인트로 작업한 파일(영어사용,

25장이내, 첫 페이지 작품제목과 접수번 호기재)

- CD1장 제출
- 파워 포인트로 작업한 파일 출력물(A4 사이즈) 2부
- 참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의 주제는 'Non-'으로서 부정적 의미가 아닌 형식이나 기능 등에 한정되지 않는 공간의 새로운 변화 혹은 점진적인 혁신을 의미하며, 현재 실내공간의 진보를 위한 자신만의 개념어(예. non-scale, non-function 등)를 바탕으로 열린 가능성으로 이를 전개하면 되다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1인 1작)
- 일정
- 신청마감 : 2005년 8월 31일
- 접수마감: 2005년 9월 23일 오후 5시(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1차심사: 2005년 9월 27일~28일
- 2차심사 및 시상식: 2005년 10월 6일(시상식 및 전시회 일정은 추후공지)
- 심사위원 : 김영옥\_Rodemn A I, 홍기원 Anna Hona Desian
- 참가신청
- 참가신청 : www.space-prize.com을 통해 참가신청 및 참가비 접수(접수내용 은 1부 프린트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
- 참가비: 팀당 5만원
- •시상 : 대상(1점) 500만원, 최우수상(1점) 200만원, 우수상(3점) 각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작품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19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 사무국)

- 제출사항
- 패널(900×120mm/1장)이나 부조 입체 물(300mm) 제출
- 작품설명서 2부 제출(A4 1장이내/우측상 단 접수번호 기입)

- CD1장 제출 : 제출된 작품내용 및 설명 서와 동일한 데이터
- 참가신청서
- 재학증명서

문의: 02-747-2892,

www.space-prize.com

#### CiSCu 2005

이 국제공모는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 광역시 중구 등 세 정부단체가 최근 도시의 확 장으로 도시의 중심이 이동했고, 새로운 부심들 이 도시 여기저기 발전하면서 도심으로서의 상 업적 활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는 부산광역 시 중구의 광복로와 PIFF광장을 재활성화 시키 기 위한 설계경기이다.

현재 광복로와 PIFT광장 주변에는 새로운 지역 개발계획들이 발표되었고 또 진행 중이다. 그 중에는 백화점, 사무실, 호텔 등으로 구성된 107층 규모의 거대복합시설인 제2롯데월드가 곧 본격적으로 건설될 것이며, 재래식 어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갈치 시장의 현대화 공사가진행 중이다.

이처럼 하나의 장소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



지교 있는 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재생할 것인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 공모전의 내용이다. 따라서 본 공모의 디자인 범위는 필요하다면 가로광장교통과 보행의 재구성, 스트리트 퍼니처와 공공미술의 창조, 기존 건물의 파사드와 상점의 간판 개선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한 가능한 모든 디자인 제안을 포괄하다

#### • 설계경기 일정

- 공모전 공고: 2005. 6. 05

- 등록개시: 2005. 6. 10

※ 등록자는 참가비 입금이 확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서류와 자료를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 질의마감: 2005. 7. 08( e-mail)

- 질의응답 : 2005. 7. 15.

- 등록마감 : 2005. 8. 31.

접수마감: 2005, 9, 07,기술심사: 2005, 9, 10~11,

- 작품심사 : 2005 9 12~13

- 심사결과발표 : 2005. 9. 14 .

#### • 프로젝트 유약

- 프로젝트 : 광복로의 광복

- 건축주체 : 부산광역시 중구청

- 추정 예산 : 총80억원(USD 8,000,000)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남 포동

#### - 대지범위

▷ 광 복 로 - 광복로입구~창선상가(길 이 750m, 폭 15m)

▷ PIFF광장 PIFF Zone 쇼핑몰~시네 시티 극정(길이 240m, 폭 15m)

#### • 심사위원

- 쟝 마리 샤르펑티에(아르떼 샤르펑티에 파트너십, 프랑스건축사, 도시디자이너, 프랑스)
- 앤드류 버누이(텍사스공대 건축대학 학 장. 미국건축사, 도시디자이너, 미국)
- 미야자와 이사오(산업디자이너, GK

Industrial Design, 일본)

- 황기원(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환경조 경학과 교수, 한국)
- 정연근(건축가, 토원건축, 한국)
- 수상
  - 당선적(1명) 미화 3만불, 2등상 (1명) 미화 일만불, 3등상(5명 이내) 미화 오천불. 가작(20명)
  - ※ 3등 이상 수상작에게는 2차 공모에 참 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상금에는 저작권 료가 포함된다

문의: 부산광역시 중구청

051-600-4671~3, http://www.CiSCu.org

#### 주공 「제9회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대한주택공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운정신도시 내 공동주택블록에 새 로운 도시주거의 방향 모색과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 및 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 고자 「도시 속의 주거, 주거 속의 도시,라는 주 제로 '제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

#### • 공모개요

- 대상부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a6블록

- 참가자격: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한 팀 3인 이내)

#### • 공모일정

- 신청접수: 2005. 6. 20.~7. 4. 17시까지 - 작품접수: 2005. 8. 17.~8. 19. 20시까지

- 당선작발표: 2005, 8, 26, 예정

#### • 시상

대상(1점) 장학금 200만원, 금상(1점) 100만 원, 은상(1점) 50만원, 동상(2점): 20만원 (상장, 상패 및 해외건축기행 동일 수여), 장 려상(20점) 상장, 상패 및 기념품

※ 해외건축기행: 대상 수상자는 팀원 전원.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는 대표 각 1인 지도자상: 동상 이상의 수상자는 지도교 소에게 간사배 소여

. . . – . . . .

• 당선작 작품전시

사내전시: 2005. 9. 5~9. 13 예정

문의: 031-738-4133,

http://itis.jugong.co.kr

#### 프랑스 인기 작가 작품전

예성화광(대표 한영희)에서는 2005년 6월 21 일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유럽 인기 작가 작품전'을 연다. 작품은 유화와 판화로서 약 20 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 • 전시작품 :

- 뷔페 : Bernard BUFFET (프랑스)

- 까뜰랑: Bernard CATHELIN (프랑스)

- 미로 : Joan MIRO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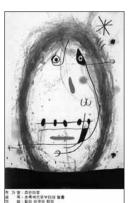
- 루오: Georges ROUAULT (프랑스)

- 바불렌 : Eugene BABOULENE (프랑스)

- 고리티 : ailles GORITI (프랑스)

- 파스퀴니: Luciano Pasquini(이탈리아)

문의: 02-738-3630



## 서울시립대학교, 아시아건축도시연합 2005 서울 워크샵 개최

'아시아건축도시연합 2005 서울 워크샵' (ACAU 2005 Seoul Workshop)'이 오는 7월 15일부터 12일 동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아시아건축도시연합 2005 서울 워크샵은 아 시아 대도시 학생들이 모여 서울의 건축과 도시 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행사로서 국립 싱가포르 대, 방콕 어섬션대, 홍콩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의 건축, 도시, 조경학과 학생 40여 명과 국 내외의 교수,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계획가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던 건축도시 이론과 실험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적 질문을 던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국 적, 학제간 행사이다.

· 일정 / 2005년 7월 15일~25일(12일간)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21세기관 국제회의

장, 건설공학관 설계실)

· 대상지 : 서울의 명동지역

· 문의: http://campus.uos.ac.kr/aca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임남구건축사회/517-3071 · 경동구건축사회/486-7476 · 강복구건 축사회/032-2030 · 강사구건축사회/661-6999 · 권박구건축사회 1877-4844 · 캠의건축사회/4661-6999 · 권박구건축사회 1828 · 급청구건축사회/1809-1508 · 노탈구건추사회/837-1100 · 노탈구건추사회/185-2020 · 6대문구건축사회/1807-1002 · 동작구 건축사회/185-2026 · 대문구건축사회/033-6751 · 서대문구건축사 최/338-5626 · 서울구건축사회/0347-6100 · 설동무건축사회/202-6856 · 성북구건축사회/024-617 · 6의구간축사회/202-6856 · 성북구건축사회/024-617 · 6의구간축사회/338-1480 · 증문구건축사회 건축사회/177-6007 · 윤랑구건축사회/388-1480 · 증문구건축사회 1765-5914 · 증무가전\*사회/27-59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교명제단추사회/(031)983-8902 - 평명건축사회(02)884-5845. 봉부지원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막건축사회 (02)5864-1564. '성보지막건축사회/(031)756-5445 - 숙모지막 건축사회/(031)241-7987-8 - 사용지막건축사회/(031)318-6713 - 안건건축사회/(031)240-7130 - 안원지막건축사회/ (031)449-2688 - 북부지막건축사회/(031)876-0458 - 인본지막 건축사회/(031)625-054 - 목부지막건축사회/(031)876-0458 - 인본지막 건축사회/(031)625-054 - 목부지막건축사회/(031)3147-2410 - 명목지막건축사회/(031)657-6149 - 오난 - 왕천지막건축사회/ (031)224-8872-3 - 원(지막건축사회/(031)336-0140 - 왕주지 약부처료회/(031)767-7294

####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시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시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시회/(033)633-5080 · 열월지역건축시회 (033)3742-2669 · 원주지역건축시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 시회/(033)64-2442

####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 /(043)851-1587 · 음설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단지역간용사회/(041)564-0070 - 용지역건축사회/(041)836-5110 - 포함계정건축사회/(041)932-889 - (아닌저건축사회 (041)56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난산지역 건축사회/(041)769-2117 - 한산지역건축사회/(041)761-1333 -단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자연건축사회/(041)85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66 - 흥선지역건축사회 /(041)852-2756 - 에산지역건축사회/(041) 325-1333 - 당진지역 건축사회/(041)852-2757 - 세본지역전축사회/(041) 325-1333 - 당진지역 건축사회/(041)852-077 - 제품지역회장/(042)841-5726 - 항상 자역점장/(041)824-6972 - 개통지역회장/(042)841-5726 - 항상 자역점장/(041)924-6922

####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 /(061)365-6151

####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신지역간축사회(0530812-6721 - 경주지역간축사회(061)728-6877-8 - "미지역건축사회(054)61-1537-8 - 건전자연건축사 회(054)422-688 - 운경자연건축사회(054)552-161 - 건전자연건축사 작업소치성(054)535-8975 - 안동자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 (054)334+6556 - 철주지연건축사회(054)974-7025 - 포퇴지역 건축사회(054)244-6029 - 관리 의성지역건축사회(054)978-1054)8394-8059 - 관리 의성지역건축사회(054)978-1054)8394-8059 - 관리 의성지역건축사회(054)978-1054)8394-8059 - 관리 의성지역건축사회(054)978-10598, 개조194-1054,1056)979-979-978-

####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개체지역보존시회(055)33-6870 - 개청개원건축사회》(055)43-6980 - 리혜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제연건축사회 (/055)245-337 - 일업계원건축사회》(055)355-123- 개원시건 숙시회/(055)247-377 - 일업계원건축사회》(055)384-3050 - 가전시건 숙시회/(055)741-6403 - 헤헤시건축사회/(055)544 -7744 - 흥럽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 (056)8824-361 - (056)8824-361

####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푸지역건축사회/(064)733-5501

####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6월 30일 현재)

#### 공사진행 현황

본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05. 4월부터 진행 되어온 토목 C.I.P 공사가 '05. 6. 16일 총 312 개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현재 지하 터파기 공 사를 위해 반입한 토사의 반출작업(1,830㎡ 반 출)과 동시에 총 12단의 가시설 Strut 설치작업 중 Corner Strut 설치작업(1, 2, 3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05.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굴토작업이 진행되어, 오는 9월중순 토목가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6월말 현재 8.75%(계획 15.92%)의 공정용을 보이고 있다.

• 동측 구간(CJ빌딩측) : 총 114개 완료

• 서측 구간(센서스빌딩측) : 총 59개 완료

•남측 구간(전면도로측) :총 76개 완료

•북측 구간(단독주택측) : 총 20개 완료

• POST PILE : 총 43개 완료

####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년 6월에는 10일(제11회)과 29일(제12회), 총2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1회 위원회 회의('05. 6. 10)에서는 시 공자가 요청한 회관 토목가시설공사계획 조정 사항과 별도 공사인 냉·난방설비공사, 주차 관제시설공사, 다목적실내부공사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12회 위원회 회의('05. 6. 29)에서는 다목적실 내부계획의 보완과 냉·난방설비공사의 발주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 공시금지가처분 소송진행 현황

인접거주인으로부터 제기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의 1차 심문이 '05. 6. 10일 열려 '05. 6. 14일 법원의 현장검증과 '05. 6. 24일 2차 심 문이 예정되었다.

이에, '05. 6. 14일 법원의 현장검증에서는 배심 판시2인과 양측 변호인 및 소송신청인(효 성서초빌라 104, 304호, 1603-45,46번지), 현 장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신축공사 현 장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가옥의 균열 상태를 점검하였다.

이후, '05. 6. 22일 피신청인(남흥건설의 1) 측에서 현장검증 당일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05. 6. 24일 2차심문기일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현재 '05. 6. 24일 법원에 제출된 신청인의 준비서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최종 참고,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코너스트릭 설치



토사반



토류벽 콘크리트공/







트시5

# 건축사자격시험 과목별합격제 도입 안내

건축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과목별합격제를 도입하고자 현재 건축사법시행 령 및 시핵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심사 중에 있으므로 법제처 심의 등 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공포할 예정(7월중)이며, 공포와 동시 에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격시험부터 도입되는 과목별합격제 등 제도변경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합격제 도입 내용

- 현행 대지계획, 건축설계 2과목 시행 ⇒ 대지계획, 건축설계1(평면설계), 건축설계2(단면설계, 구조계획 등) 3과목으로 시행
- 현행 과목별 4할이상, 과목총점 6할이상 득점시 합격 ⇒ 각 과목 100점 만점, 모든 과목 60점이상 득점시 합격
  - 일부 과목만 60점이상 득점시는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 시험에 당해 득점과목 시험 면제, 전 과목 합격시 자격부여

#### 과목볔합격제 실시에 따른 추가 사항

- •올해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과목별합격제 실시에 따라 일시적인 합격자 수 감소가 예상되어 내년(06년) 3월중 건축사자격시험을 한번 더 실시 할 예정
- 건축사자격시험의 문제출제에 관하여 응시자들에게 시험의 유형을 미리 제공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건축사자격시 형 문제출제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
  - 동 기준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 7월말이나 8월초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
- 서울, 부산, 광주 3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사자격시험 장소도 대구지역을 추가 4곳에서 실시
- 시험실별 응시인원도 1교실당 24명에서 16명 내외로 축소하고, 보조책상을 제공하는 등 시험장 환경 개선
- •오전시험(대지계획; 2시간30분)과 오후시험(건축설계; 6시간)으로 장시간 치르는 시험시간을 응시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각 과목당(대 지계획 건축설계) 건축설계) 3시간으로 조정하고 중간에 휴식시간을 배정
- 시험이 끝난 후 전량 회수하고 있는 시험문제지를 응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회수치 않고 배부
- 응시원서 접수시 인터넷 접수 병행 실시

#### 질의응답

- Q1: 2009년도에 기사자격자로서 1과목만 합격했다면 3회 유효기간을 두어 2010년에도 기사자격증으로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유효해 주는지?
- A : 시험응시자격과 과목별 면제는 제도 자체가 다르므로 별도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자격자로서 2009년도에 1과목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에 응시가 불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 Q2 : 2005년도에 1괴목 합격하고 다음시험인 2006년도에 또 1괴목을 합격하였다면 2006년도에 합격한 시험의 괴목면제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해 주는지?
- A : 합격한 다음 회부터 연속한 3회의 시험이므로 1년에 한번 시험을 본다고 가정할 때 2007년, 2008년, 2009년, 3회입니다.
- •Q3: 과목별합격제를 시행하고, 내년 3월중 한번 더 시험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그럼 매년 2회 시험을 실시하는 것인지?
- A : 현재로서는 과목별합격제 시행 첫회만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목별합격제 시행으로 인한 합격율 변화 등을 보이가며 시험횟수를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Q4: 과목별합격제가 도입되면서 시험과목수가 한과목 더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 A : 대지계획 과목은 그대로이고, 건축설계 과목을 건축설계1과 건축설계2로 나누어 3과목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300점 만점에 건축설계는 200점 배점으로 이중 50%(100점)를 차지하고 있는 평면설계를 건축설계1로 하고, 나머지 50%(100점)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소과제(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를 건축설계2로 하여 각 100점 만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없는 과목을 더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 •Q5: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출제 기준은 언제 공개하고, 매년 공개하는 것인지?
- A :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T·F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관계전문기관에게 연구의뢰 하여 이번 건축사자격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7월말경이나 8월초에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이는 계속 보완하여 앞으로 건축사자격시험 시험공고시 같이 공개하여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05년도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05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05년 6월 17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 가. 건축사예비시험

00001 최희호 010107 이정복 001107 이정복 001107 이정복 001249 김종목 00244 모재환 00244 모재환 00346 박민수 00524 황김광수 00524 황김광수 00696 김민수 00524 황김광수 00693 이상무 00792 김대현 00883 김왕숙영 01039 신영수 01039 신영수 011266 곽참된 이1266 구상된 01235 이민덕 01266 구상된 이철회 01408 임준정인 1033 이십년 이 1266 건강 이번덕 01475 이전된 이건 1267 전보 이철회 01562 유창적 01677 이것한테 01844 박학육 01677 이것한테 11844 박학육 01843 전수정 01975 순구형로 124 전 124	00013 정명훈 001111 구지대 001750 이재현 00265 손맹준 00360 기명서 00407 안광민 00450 기량시 00650 김석보호 00660 이산현 00602 박찬호 00660 이산현 00696 고종학은 00736 김학원 00736 김학원 00736 김학원 00877 이윤경 01071 김주철 01071 김주철 01071 김주철 01178 임상규 01214 임왕진 01310 김민석 01364 양균수 01472 참간으로 01563 참태현 01563 참태현 01563 참태현 01694 이정분조 01694 이정분조 01694 이정분조 01779 이남호 01897 김후성 01507 박기년 01897 1년수회 01897 1년수 01897 1년수 0189	00056 박정호 00117 송인식 00183 해영철 00292 한동연 00361 김임동 00488 임주설 00488 임주설 00488 임주설 00608 김정호 00608 김정호 00608 김정호 00608 김정호 00737 목소형 00800 한态훈 00173 악명미 01179 석인설 01179 석인설 01179 석인설 01217 정구종학 01368 유임김영 01368 유임김영 01575 주진진화 01575 전기정 01845 전기정 01845 전기정 01846 전기정 01850 전기정 01850 전기정 01850 전기정 01850 전기정 01850 전기정 01851 전기정 01851 전기정 01851 전기정 01852 전기정 01853 김진익 01853 김진익 01853 김진익 01853 김진익 01854 전기정 01855 전기정 01856 전기정 01856 전기정 01856 전기정 01856 전기정 01857 전기정 01857 전기정 01858 전 01858	00065 김용국 00130 정신에 10215 체영수 10298 강명조 00376 김종주 00276 김종주 00276 김종주 00276 김종주 00566 왕조년의 00641 조주 전 10566 왕조년의 00661 왕조년의 00614 임자 1056 왕조년의 00614 임자 1056 왕조년의 00711 이종석 00714 김자 1064 임자 1056 임자 1057 원자	00070 김학신 00134 진병주 00236 김학회 00236 김학회 00317 강만호 00318 임형규 00443 김선회 00508 황용광 00571 윤명태경 00673 선택경 00673 선택경 00755 이화현 00755 이화현 00755 이화현 00839 유해린 00755 이화현 00839 유해린 01032 전덕호 01127 흥가승 0123  054 01195 양가송 01233 이조리 01326 전대적 01326 전대적 01326 전대적 01326 전대적 01326 전대적 01585 심승자원 01565 김정원 01565 김정원 01562 김정원 01562 김정원 01562 김정원 01562 김정원 01562 전생범 01563 건생범 01563 건생범 01564 김정원 01565 건생범 01565 건생	00081 김오연 00137 이윤주 00239 권점우 00380 김수된 00380 김수된 00582 이상월 00656 김창원 00656 김창원 00774 운도 00774 운도 00844 김효은 00713 청년우 00714 연조 01026 배좌십 01135 권오생 01201 이상동 01201 이상동 01201 이상동 01201 이상당 01343 한국 01511 김정수 01566 감상봉 01561 김정수 01566 감상봉 01624 박당 01624 박당 01624 학생 01626 광생봉 01624 학생 01630 강동인 01830 강동인 01831 장면서 01830 강동인 01831 장면서 01831 장면서 01831 장면서 01831 장면서 01831 장면서
03325 김경환 03526 강경남	03356 이학규 03541 엄형석	03426 정달원 03558 홍종철	03444 권남이 03562 이수권	03455 김영범 03609 이재호	03484 유지현 03613 이원병
03785 김경섭 03978 오정흔	03819 김지성 04008 김주성	03850 원종민 04042 채재준	03895 전종국 04087 박종순	03940 최현철 04162 김숙영	03967 김성렬 04193 황태웅
04213 조경주 04265 오준식 04440 김용흥	04233 이비호 04304 정계탁	04239 윤태은 04332 이학석	04242 김종호 04356 주진영	04249 이제섭 04413 박기춘	04263 조권일 04419 서성덕

####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02592 서유식

#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본 협회 제39회 정기총회('05, 2.24)에서 의결된 정회원(월정)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의 징계처분 계획에 따라 미납회 비 납부기한('05, 5.23)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제9회 이사회('05, 6,7)에서 제명키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정관절차에 따라 제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협회 제39회 정기총회('05, 2, 24)에서는 정회원(월정)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3개월간의 미납회 비 납부기한('05, 5, 23)을 주고 납부기한까지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정관절차에 따라 제명처리키로 한 바 있습니다.
내 용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해당 회원에게 수치에 걸쳐 장기미납한 회비를 납부토록 요청함과 이울러 기한내에 회비를 미납할 경우 제명차분됨을 안내하였습니다만, 일부 회원들이 납부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본 협회 이사회에 제명처분대상 회원으로 상정하여 부득이하게 제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05. 6. 7일 제명을 확정 통보(내용증명)하였습니다.
	정회원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정관 제55조에 의거 12개월 이상 미남한 회원을 제경코저 하였으나,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회 원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총회의 의결로 2004년도와 같이 5년(60개월)이상 회비를 정기미남한 회원에 대해서만 어 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음을 회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도 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부독이하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오며, 협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 고	•제명인원: 139명(서울-124명, 부산-1명, 대구-4명, 광주-1명, 경기-5명, 강원-4명) •제명 또는 퇴회한 자는 정관 제1조 제4항에 의거 본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경조비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패면회원에게 지급하는 패면위로금 혜택 없음 •제명자의 회원 재가임은 제명일로부터 1년경과후 가능, 신규회원 간주로 입회비 납부 •회원 신상정보(주소 및 연락체)가 변경된 회원이 협회에 변경시항을 미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 회비장기미납 제명자 명단(본협회)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시무소명
1	서울	강동구	(주)건축사사무소 모인건축	26	서울	김유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도가
2	서울	강영창	(주)지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27	서울	김은경	정교 건축사사무소
3	서울	강진수	(주)강진 종합건축사사무소	28	서울	김익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피아이
4	서울	고영준	공익 건축사사무소	29	서울	김정구	건축사사무소 디.앤
5	서울	고창석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30	서울	김진호	SHOF 종합건축사사무소
6	서울	구제창	(주)예동인 종합건축사사무소	31	서울	김 철	(주)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
7	서울	구태본	건축사사무소 휴	32	서울	김형길	(주)대일 종합건축사사무소
8	서울	구현수	(주)아키덤 건축사사무소	33	서울	남정석	하영 건축사사무소
9	서울	권문숙	건축사사무소 에이원	34	서울	노재일	건축사사무소 재일
10	서울	권영세	건축사사무소 지원	35	서울	문성주	(주)타임 건축사사무소
11	서울	권희철	조이 건축사사무소	36	서울	문일수	(주)예일씨엔씨 종합건축사사무소
12	서울	김경훈	전원 건우 건축사사무소	37	서울	민규식	(주)경성 종합건축사사무소
13	서울	김광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으뜸공간	38	서울	민달홍	종합건축사사무소 맥가
14	서울	김구약	(주)리노 종합건축사사무소	39	서울	박건규	건축사사무소 예진
15	서울	김군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마노	40	서울	박기덕	건축사사무소 나노
16	서울	김근배	광림 건축사사무소	41	서울	박기용	(주)청미 종합건축사사무소
17	서울	김기서	(주)건축사사무소 모인건축	42	서울	박내연	네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18	서울	김기택	두하 건축사사무소	43	서울	박병규	(주)건축사사무소 각
19	서울	김동환	선인 건축사사무소	44	서울	박상헌	(주)세림 종합건축사사무소
20	서울	김명겸	건축사사무소 선재	45	서울	박영석	고담 건축사사무소
21	서울	김수경	선재 건축사사무소	46	서울	박영순	금강 건축사사무소
22	서울	김영민	라인 유앤이 건축사사무소	47	서울	박태순	(주)올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23	서울	김영배	다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48	서울	박 혁	(주)나인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24	서울	김용규	(주)선하나 건축사사무소	49	서울	박흥선	나우 건축사사무소
25	서울	김용한	(주)탑스플랜 종합건축사사무소	50	서울	백두현	디.에이취 건축사사무소

120 Korean Architects July 2005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51	서울	백승희	(주)건축사사무소 미루가온	96	서울	정규서	건축사사무소 가운
52	서움	백종대	(주)이레디자인 건축사사무소	97	서울	정대락	건축사사무소 해암
53	서울	서명수	해람 종합건축사사무소	98	서울	정미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한올
54	서울	성정길	형 건축사사무소	99	서울	정봉기	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55	서울	송상철	중합건축사사무소 서린,대영,유원	100	서울	정원우	가본 건축사사무소
56	서울	송응재	예중 거축사사무소	101	서울	정재학	(주)산성 건축사사무소
57	서울	신동엽	(주)다몰 건축사사무소	102	서울	정점원	(주)한효 종합건축사사무소
58	서울	신진환	건축사사무소 필건축	102	서울	조봉호	이경 건축사사무소
59	서울	안병건 안병건	건축사사무소 아키캠프	103	서울	조은환	무아 건축사사무소
60	서울	한영식	(주)화인엠씨 건축사사무소	104	서울	조인철	구이 신국시시구고 건축사사무소 자연과건축
		안영식 안준수		105			요 건축사사무소 사원파건국 용 건축사사무소
61	서울		(주)예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서울	조재룡	
62	서울	양상준 엄 웅	건축사사무소 공간인식	107	서울	조종근	엘지엔지니어링(주)
63	서울		(주)서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8	서울	조종승	건축사사무소 섬
64	서울	엄정원	신진 건축사사무소	109	서울	조항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건축
65	서울	엄치호	건축사사무소 구상	110	서울	지성근	건축사사무소 이유공간
66	서울	유후규	혜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11	서울	차대웅	종합건축시사무소 한국조형
67	서울	윤덕기	(주)팀바로 건축사사무소	112	서울	차신균	이오 종합건축사사무소
68	서울	윤석범	상우 건축사사무소	113	서울	차용완	(주)지오맥 건축사사무소
69	서울	이경태	(주)대호 건축사사무소	114	서울	천근우	예천 건축사사무소
70	서울	이광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무이	115	서울	최대영	도시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71	서울	이근흥	(주)코파 건축사사무소	116	서울	최병택	에이디그룹 건축사사무소
72	서울	이무웅	엘앤에스 건축사사무소	117	서울	최석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어반네트
73	서울	이민수	(주)예가 건축사사무소	118	서울	최인규	단십자 건축사사무소
74	서울	이성환	건축사사무소 자하연	119	서울	한봉열	(주)모더스 건축사사무소
75	서울	이수영	(주) 진양U&E 종합건축사사무소	120	서울	한재식	라인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76	서울	이순형	티.에이 건축사사무소	121	서울	한형우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연
77	서울	이 양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그룹(주)	122	서울	홍승학	아키드건축 건축사사무소
78	서울	이우진	(주) 진양U&E 종합건축사사무소	123	서울	홍완기	우건 종합건축사사무소
79	서울	이원준	(주)이지에이 건축사사무소	124	서울	황 건	건축사사무소 간
80	서울	이 융	세우 종합건축사시무소	125	부산	이재희	신장원 건축사사무소
81	서울	이장근	(주)포스트원 건축사사무소	126	대구	오영죽	윤석 건축사사무소
82	서울	이정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전원건축	127	대구	이대진	진과 동료들 건축사사무소
83	서울	이종국	(주)프라임 종합건축사사무소	128	대구	이상술	영동 건축사사무소
84	서울	이태영	(주)건축사사무소 신도시21	129	대구	정 준	㈜구상 건축사사무소
85	서울	이향남	(주)예림 종합건축사사무소	130	광주	이성진	㈜포커스이엔지 건축사사무소
86	서울	이형근	(주)서우 종합건축사사무소	131	경기	김종만	㈜세화 종합건축사사무소
87	서울	이호재	아크로스 건축사사무소	132	경기	남정주	대진 건축사사무소
88	서울	이홍구	건축사사무소 우반	133	경기	엄태웅	경일 건축사사무소
89	서울	이홍재	우담 건축사사무소	134	경기	이종원	(주)건축사사무소 예헌
90	서울	임성순	건축사사무소 은성	135	경기	진병길	(가)신국· 자기구조 - 1년 (주)세화 종합거축사사무소
91	서울	장우석	(주)가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136	강원	강철훈	두레 건축사사무소
92	서울	전영준	(주)다림이엔지 건축사사무소	137	강원	공글군 김정현	대호 건축사사무소
93	서울	전원택	(주)한국예술정보 건축사사무소	138	강원	류성열	건축사사무소 참조
94	서울	전화일	고은 건축사사무소	139	강원 강원	유명된 임병선	건축사사무소 두리
95	서울	전의 a 정관호	(주)아텍 건축사사무소	109	-02	88.5	C-1-1-1-1-1-1
30	시돌	공선모	(エ)グロボ ひずかいげる				

# ♠ 회비장기미납회원 제명자 명단(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03. 3. 18)에서 정화원(월정)회비를 2년이상 장기미남하여 제명 의결된 회원을 2005년도 본 협회 정기감사 ('05. 1. 24~2. 4)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분토록 지적되어 제9회 이사회('05. 6. 7)에서 심의한 바, 제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1	수원	김영규	대운 건축사사무소	14	성남	이용성	자연 건축사사무소
2	수원	신현홍	신현홍 건축사사무소	15	성남	이창호	서인 건축사사무소
3	수원	이충환	아주건축사사무소	16	성남	하권수	건축사무소 모노(주)
4	수원	현호창	건축사사무소 건축공간	17	성남	허충회	건축사사무소 모던
5	안양	신성만	신성만 건축사사무소	18	평택	김연승	신우 건축사사무소
6	안양	홍성기	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19	구리	권익진	일진 건축사사무소
7	성남	김성일	동현 건축사사무소	20	구리	박강례	(주)다운 건축사사무소
8	성남	김윤태	대경 건축사사무소	21	구리	유진호	다산 건축사사무소
9	성남	김찬묵	한양 건축사사무소	22	구리	홍종우	토우 건축사사무소
10	성남	김찬중	시공 건축사사무소	23	오산	김창겸	(주)아성 건축사사무소
11	성남	박영기	대우 종합건축사무소	24	오산	방회남	제이에스 건축사사무소
12	성남	박영철	피.에이 건축사무소	25	오산	신남용	세화 건축사사무소
13	성남	유정우	(주)아주 건축사무소	26	오산	이병철	세방 건축사사무소

# 2005년 건축허가 현황(5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7	분		당월 (5월)		누계 (1~5월)						
	Œ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기율				
계	동 수	15,362	12,550	-18.3%	61,139	51,514	-15.7%				
	연면적	11,263,380	11,670,196	3.6%	42,601,239	45,504,637	6.8%				
주거용	동 수	6,589	3,730	-43.4%	22,121	14,665	-33.7%				
	연면적	4,860,392	6,151,337	26,6%	16,298,360	20,229,166	32,2%				
상업용	동 수	4,488	3,583	-20.2%	19,227	15,389	-20.0%				
	연면적	3,718,285	2,099,035	-43.5%	14,206,998	10,457,154	-26.4%				
공업용	동 수	1,578	1,850	17.2%	7,922	8,049	1.6%				
	연면적	1,023,262	1,047,285	2.3%	5,537,806	5,099,967	-7.9%				
문교및	동 수	699	851	21,7%	3,260	3,799	16.5%				
사회용	연면적	644,519	771,475	19,7%	3,066,235	3,899,871	27.2%				
기 타	동 수	2,008	2,536	26,3%	8,609	9,612	11,7%				
	연면적	1,106,922	1,601,064	57.4%	4,491,840	5,818,479	29,5%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7	분		당월 (5월)			누계 (1~5월)	
	굔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5,362	12,550	-18,3%	61,139	51,514	-15.7%
	연면적	11,263,380	11,670,196	3.6%	42,601,239	45,504,637	6.8%
철 근	동 수	13,540	10,825	-20,1%	52,608	44,908	-14.6%
철골조	연면적	11,109,006	11,526,417	3,8%	41,612,265	44,941,383	8.0%
조적조	동 수	1,588	1,518	-4.4%	7,622	5,680	-25,5%
	연면적	128,443	119,970	-6.6%	770,998	461,904	-40.1%
목 조	동 수	234	207	-11.5%	909	923	1.5%
	연면적	25,931	23,809	-8,2%	217,976	101,143	-53.6%
기 타	동 수	0	0		_	3	
	연면적	0	0		_	207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5월)		누계 (1~5월)						
7	œ	2004년	2005년	증기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5,362	12,550	-18,3%	61,139	51,514	-15,7%				
	연면적	11,263,380	11,670,196	3.6%	42,601,239	45,504,637	6,8%				
수도권	동 수	4,786	3,821	-20,2%	19,500	15,759	-19,2%				
	연면적	4,733,872	5,905,833	24.8%	19,729,446	21,531,659	9,1%				
서 울	동 수	963	627	-34.9%	3,951	2,690	-31,9%				
	연면적	1,281,435	922,040	-28.0%	6,177,781	4,830,686	-21,8%				
인 천	동 수	439	336	-23.5%	1,927	1,521	-21,1%				
	연면적	549,754	291,260	-47.0%	2,333,535	2,394,092	2,6%				
경기도	동 수	3,384	2,858	-15.5%	13,622	11,548	-15,2%				
	연면적	2,902,683	4,692,533	61.7%	11,218,130	14,306,881	27,5%				
지 방	동 수	10,576	8,729	-17.5%	41,639	35,755	-14,1%				
	연면적	6,529,508	5,764,363	-11.7%	22,871,793	23,972,978	4.8%				
부 산	동 수	407	505	24.1%	2,267	1,932	-14.8%				
	연면적	722,834	612,410	-15.3%	2,390,898	2,072,388	-13,3%				
대 구	동 수	705	415	-41,1%	2,605	1,836	-29.5%				
	연면적	716,398	784,518	9.5%	1,745,230	2,605,329	49.3%				
광 주	동 수	445	327	-26.5%	1,467	1,354	-7.7%				
	연면적	455,589	117,142	-74,3%	1,086,446	1,126,799	3,7%				
대 전	동 수	280	278	-0.7%	1,384	1,218	-12,0%				
	연면적	109,853	250,671	128,2%	1,187,812	1,221,491	2,8%				
울 산	동 수	334	302	-9.6%	1,699	1,415	-16.7%				
	연면적	137,827	112,375	-18.5%	716,340	660,897	-7.7%				
강 원	동 수	1,082	727	-32.8%	3,716	2,859	-23,1%				
	연면적	537,719	396,269	-26.3%	1,717,486	1,809,419	5.4%				
충 북	동 수	1,192	663	-44.4%	3,886	2,957	-23.9%				
	연면적	521,071	376,620	-27.7%	2,230,282	2,215,471	-0.7%				
충 남	동 수	1,490	938	-37.0%	4,886	3,703	-24.2%				
	연면적	1,061,470	677,554	-36,2%	3,823,029	2,910,977	-23.9%				
전 북	동 수	570	687	20.5%	2,764	2,699	-2.4%				
	연면적	253,162	279,596	10,4%	1,116,052	1,313,215	17,7%				
전 남	동 수	761	739	-2.9%	3,225	3,171	-1.7%				
	연면적	537,183	233,848	-56,5%	1,329,143	1,003,021	-24.5%				
경 북	동 수	1,633	1,589	-2.7%	6,277	5,775	-8.0%				
	연면적	579,310	904,403	56.1%	2,282,123	3,024,855	32,5%				
경 남	동 수	1,366	1,274	-6.7%	5,918	5,643	-4.6%				
	연면적	817,731	908,057	11,0%	2,831,920	3,659,507	29.2%				
제 주	동 수	311	285	-8.4%	1,545	1,193	-22,8%				
	연면적	79,361	110,900	39.7%	415,032	349,609	-15,8%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5월말
---------------------	-----------

구 분				개	9	인 ,	사	무	소										법	(	인 ,	사	무	소							용	역	#1	all	шс	2(0/)
건 축	19	인	2	인	3	인	4	인	5인	이상	소	계	19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인(	이상	소	계	샤	무소	8	계	비율	.(76)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희
합계	5,145	5,145	208	414	27	83	1	4	0	0	5,381	5,646	1,483	1,483	264	521	81	244	29	116	18	90	4	24	5	35	6	56	1,890	2,569	10	10	7,281	8,225	100,0%	100,0%
서울	1,247	1,247	57	114	16	50					1,320	1,411	883	883	167	334	48	144	19	76	9	45	1	6	4	28	4	35	1,135	1,551	9	9	2,464	2,971	33,8%	36,1%
부산	529	529	24	48	3	9					556	586	69	69	13	26	7	21	3	12	4	20	2	12					98	160			654	746	9,0%	9,1%
대구	426	426	30	60	4	12	1	4			461	502	41	41	17	34	6	18	2	8	2	10							68	111			529	613	7,3%	7,5%
인천	219	219	3	6							222	225	52	52	5	10													57	62			279	287	3,8%	3,5%
광주	196	196	2	4							198	200	31	31	11	22	3	9	1	4	1	5	1	6	1	7			49	84			247	284	3,4%	3,5%
대전	204	204	18	36	2	6					224	246	26	26	7	14	1	3	1	4							1	12	36	59			260	305	3,6%	3,7%
울산	159	159	5	10	1	3					165	172	14	14	2	4	2	6											18	24			183	196	2,5%	24%
경기	656	656	27	52							683	708	216	216	26	45	8	25			1	5							251	291			934	999	12,8%	12,1%
강원	160	160	5	10							165	170	20	20	4	8			1	4									25	32			190	202	2,6%	2,5%
충북	169	169	9	18							178	187	20	20	3	6			1	4	1	5					1	9	26	44			204	231	2,8%	28%
충남	157	157	3	6							160	163	32	32			2	6	1	4									35	42			195	205	27%	2,5%
전북	182	182	3	6							185	188	19	19	2	4	1	3											22	26			207	214	2,8%	26%
전남	127	127									127	127	9	9			1	3											10	12			137	139	1,9%	17%
경북	281	281	8	16	1	3					290	300	28	28	1	2	1	3											30	33	1	1	321	334	4,4%	41%
경남	330	330	14	28							344	358	17	17	6	12	1	3											24	32			368	390	5,1%	47%
제주	103	103									103	103	6	6															6	6			109	109	1,5%	13%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준회원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문외전
합 계	8,215	10	8,225	100,0%	27
서 울	2,968	3	2,971	36,1%	14
부 산	745	1	746	9,1%	9
대 구	613	0	613	7,5%	0
인 천	287	0	287	3,5%	0
광 주	284	0	284	3,5%	0
대 전	304	1	305	3,7%	0
울 산	196	0	196	2,4%	0
경 기	997	2	999	12,1%	2
강 원	202	0	202	2,5%	0
충 북	231	0	231	2,8%	0
충 남	202	3	205	2,5%	0
전 북	214	0	214	2,6%	0
전 남	139	0	139	1,7%	0
경 북	334	0	334	4.1%	1
경 남	390	0	390	4.7%	1
제 주	109	0	109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고
회 원 수	5,646	2,569	10	8,225	
비 율	68,6%	31,2%	0,1%	100,0%	
사무소수	5,381	1,890	10	7,281	
비 율	73,9%	26,0%	0.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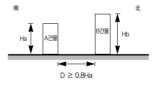
#### Q: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9호의 신고대 상가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가 하 여야 하는지?

A: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설건축물은 "건축행위"가 아니라 "축조행위"에 해당하 므로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감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건축법(일부개정 법률 제7511호; 2005. 5. 26)
- 거출사가 석계하여야 하는 거축목(제19조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 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철도·고속도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 일반국 도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Q: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 가목에서 2동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남쪽건물 이 14층(A동), 북쪽건물이 15층(B동)으로 높 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격거리 산정은?

A: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지각방 항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하 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이격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9호의 신 고대상가설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시가 하여야 하는지 야 하는 것임.



#### Q: 의과대학(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병원 의 용도는?

A: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2 조세함 제14호 리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이며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건 축물의 용도는 그 부속용도에 대한 주된 용도로 분류 하는 것인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학교)인 의과대학에 부수시설로 설 치되는 부속병원이 관련법령(대학설립 · 운영규정 등)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건축법시행 령 제2조제(항 제1설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이므로 부속병원의 용도 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것이나 개별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건축하가 권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 ·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속용도의 정의(건축법시행령 제2조제(항 제14호)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 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 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Q: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다른 용도와 복 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15층의 오피스 건축물에서 15층 부분을 제2종근리생활시설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선의 차리는?

A: 갑설)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계단실, 승강기등을 따로 설치하여 독립된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한

음설) 오피스템의 경우 전용출입구는 계단실 및 승강기 등의 수직동선을 2이상의 복합용도가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용도별로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고 도로에서 건축물내부로 진압하는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 수직동선(계단실, 승강기)과는 관계가 없음 질의의 경우는 (음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용도 별로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집동선체계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의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2호 ; 2004. 6. 1)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저용축입구를 별도로 설치함 것
- 온돌 ·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청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자료제공 :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02-2110-8437)

0507 대한진축사협회

# S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ij Ø

신건축 a+u

### 신건초

2005년 4월호

이번 호에 서는 2002년 현상설계 당 시 관심을 모 았던 요코미 조 마코토 설 계의 토미히 로 미술관의 완공된 모습



과 '떠도는 미술관'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반 시게루의 '노메딕 뮤지엄' 등이 소 개되었다. 특집으로는 '건축사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인테리어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신건축지 특집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명확한 주제의식에 의해 선별된 작품들이라기보다는 최근의 작품을 모아놓 은 것에 가깝다.

## 토미히로 미술관(aat+요코미조마코토 건축설계 사무소)

이번 호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다. 일본 군마 (群馬)현에 위치한 이 미술관의 디자인은 2002년 의 현상설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크기 의 원형 방들을 정사각형의 틀 안에 모아 놓은 형상을 한 이 미술관은 최근 완공된 SANAA(카 즈요 세지마+니시자와 류에)의 '카나자와 현대미 술 21세기 미술관'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카나자



토미하로 미숙과

와 현대미술관에서는 원형의 틀 속에 서로 다른 크기의 사각형 방들을 모아 놓았었다. 두 미술관 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매우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을 통해 설계 개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는 점일 것이다. 이 미술관에서 설계자인 요코미 조가 추구한 것은 근대 건축이 지니고 있던 균질 성 그리고 중심성의 탈피이다.

그는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패러다임의 변화 를 솔직하고도 단순하게 그리고 매우 용감히 실 제 건축설계에 적용을 하였다. 그가 이야기 하는 설계 개념은 간명하고 여러 건축 이론가와 활동 하고 있는 건축사들로부터 제기된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대 건축이 추구 해 왔던 균질성과 효율성의 가치에서 벗어나 다 양성과 탈중심성, 복합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백색상자'가 갖는 공간의 균질성 사물들을 단 순한 모델로 치환시키는 것 등 근대건축 공간의 특징과 설계 작업의 패러다임은 그의 비판대상 이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공감하고 있는 근 대건축에 대한 비판과 오늘날 건축계에서 회자 되고 있는 개념들이 곧 그가 지닌 건축에 대한 관점이자 설계의 중심 개념인 것이다. 그와 같은 개념을 그는 원과 사각형의 조합이라는 간단한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러 개의 원형 의 방을 마련한 것은 여러 개의 중심을 형성하여 전체 건물이 갖는 단일 중심성, 균질성을 배제하 고 다중심성,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크기의 원형의 방은 각자 자신만의 중 심을 하나씩 형성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미지의 방들이 공간의 균질성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형의 방들은 정사각형의 틀 안에 가두어지고, 잘려져 나갔다. 여기서 정사각형의 틀을 사용한 이유가 흥미로운데 여기서 요코미조 는 근대건축의 방법론을 다시 빌려온다. 정방형의 외곽 틀을 마련한 것은 기하학적 추상성이 갖는 완결되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미스의 독일 내셔널 갤러리나, 르 꼬르뷔제 의 필로티로 떠 있는 여러 미술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건축사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 법이다. 요코미조는 건물이 서 있는 부지와는 별 개의 장소, 별개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 곳 에 옮겨 놓은 듯한 감각을 부여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그의 근대건축에 대한 너무나 도 모범적이고 일반적인 비판적 시각은 찾아볼 수 가 없다. 다만 근대 건축사들의 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면에 떠 있던 매스를 살며시 지 면에 내려놓았다는 점이다.

근대건축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토모히로 미술관은 미술관 공간의 비균질성, 다중심성을 획득하는데 성공 한 것으로 보이며, 관람객의 동선도 종래의 순 차적 관람이 아닌 관람객의 선택에 따라 랜덤 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선체계를 선보였다 물론 미술관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며, 관 람객은 상당한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크기와 밝기, 마감재가 서로 다른 원형의 방 들을 통해 공간의 균질성을 깨려 했지만 관람 객에게는 모두 다 비슷비슷한 원형의 방들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비아니말레 노매딕 뮤지움(Bianimale Nomadic Museum)

노매딕 뮤지움, 말 그대로 한다면 '떠도는 미술관'이란 뜻이다. 1960년대 아키그램의 상 상력 속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로 미술관 건물 이 자리를 옮겨 가며 움직이는 것일까? 일본의 건축사 반 시게루(坂茂)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말하자면 이동할 필요 없는 '이동하는 미술관' 이다 사진작가 그레고리 콜베르의 작품순회전 시를 위해 계획된 이 건물은 작품과 함께 세계 를 순회하며 옮겨 다녀야 한다. 그러나 건물 전 체가 배나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순회전시를 개최하는 도시마다 동일한 디자인 으로 조립·해체를 반복해 가며 옮겨 다니는 건이다

이렇게 해체된 후 옮겨 다닌다고 해도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은 만만치가 않다. 우선 분해 · 조립이 용이해야 하며, 해체한 건물의 모든 부 재들을 지니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 또한 만만 찮은 일인 것이다 반 시계루는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자신이 해온 기성 가구와 사물을 이용해 만든 조립식 건축물의 경험을 살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바 로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 하는 것. 전시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컨테이 너 박스를 임대해 와 2줄의 긴 벽을 쌓고 그 내부에는 종이 기둥과 약간의 철물들을 이용해 천막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컨테이너 박스는 한 도시에서 5개월만 임대하

면 된다(전시 3개월, 조립·해체 2개월), 컨테 이너 박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더라도 동일한 규격의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 와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완성할 수 있다. 사용 된 종이 기둥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 운송 해 갈 수도 있으나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한 번 사용 후 폐기시켜 재활용 하도록 하고. 매 번 새로운 종이기둥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옮 겨가는 것은 지붕의 천과 약간의 철제 구조물 등뿌이다

이 미술관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은 뉴욕 허 드슨 강가에 놓여진 지금은 쓰지 않는 선착장 이다. 무려 3,000평방미터가 넘는 넓이에 길 이도 200미터가 넘는 긴 부지이다. 이 선착장 은 타이타닉호가 정박하기로 예정된 곳으로 유명하다. 긴 부지의 형상을 따라 건물도 길이 가 200미터가 넘는 긴 형태로 만들어 졌지만 이는 단지 부지의 형상으로부터만 영향을 받 은 것은 아니다. 반 시게루에게 처음으로 그레 고리가 '노메딕 뮤지엄'을 의뢰한 것은 2000 년의 일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건축계획의 구 체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레 고리의 전시는 2002년 베니스의 아르세날레 (베니스 비엔날레의 건축전 회장)에서 전람회 가 열렸다. 전시회장으로 사용한 곳은 13세기 부터 선박의 로프를 제조하는 곳으로 사용되 었던 길이 300미터 이상의 장엄한 회랑이었 다. 긴 회랑과 그레고리의 작품은 이 때 인연 을 맺게 되었다. 이후 그레고리의 후원자인 비 아니말레 재단이 노메딕 뮤지엄의 건축을 승 낙하였고, 긴 회랑 형태의 이동하는 미술관 계 획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를 쌓 아 만든 두 줄의 벽체는 오래된 선착장의 하 중 지지능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경량화해야 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박스는 체스판 모양 으로 쌓아 사용되는 컨테이너 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비워진 부분에는 사선의 천막 차양을 두어 외벽에 깊은 음영을 드리우게 하여 입면 의 깊이감을 더하는 의장적 효과도 나타냈다. 전시물과 더불어 전시 공간이 옮겨 가며 순회



비아니말레 노매딕 뮤지움



비아니말레 노매딕 뮤지움

0 5 0 7 대 한 건 춘 사 현 회 127 한다는 새로운 개념은 지극히 예술적 기획인 동시에 건축에 있어서도 신선한 도전과 자극 이 아닐 수 없다.

#### 특집 : 건축사의 인테리어

건축의 파사드 디자인이 도시의 사람들과 특정한 장소와의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인테리 어 디자인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사는 장소를 엮어주는 인터페이스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건축사에 의 한 인테리어디자인은 기존의 이미지를 코디네 이트하는 작업과는 달리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공간성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공간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시타카 타나세의 '이세 이 미야케(ISSFY MIYAKF)' 상점의 디자인은 여러 도시와 지역에 존재하는 이세이 미야케 샵들의 디자인을 규격화된 피팅룸과 행거 그리 고 상품진열대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 이다 모두 백색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하고 있 는 이들 모듈화된 가구들은 각 점포의 면적과 형상에 맞추어 배치가 가능하면서 동일한 실내 공간의 이미지를 유지시켜 브랜드의 아이덴티 티를 강화시키도록 한 것이다. 아베 히토시 아 뜰리에가 설계한 'AIP'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디 자인은 건물 내부에 또 하나의 피막(inner wall)을 형성하였다.

이 내부의 피막은 숲의 이미지를 4mm.



'AIP' 레스토랑

6mm, 9mm의 세 가지 크기의 점으로 컴퓨터로 가공한 후 그 점들은 철판에 천공하여 완성된 것으로 바닥에서 벽을 거쳐 천정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도회지적 이미지와 자연적 이미지, 정보화 사회의 이미지와 원시적 이미지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총 7명의 건축사의 인테리어 작품이소개되었다.

#### **a±u** 2005년 5월호

이번 호의 특집의 제목은 'Fashioning Space'이다. 이는 매혹적인 공간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 지를 높이고



자 하는 전략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주목은 이미 패션 브랜드의 샵 디자인들을 주축으로 최근 여러번 이루어져 왔다. 건축이 지녔던 일차적인 가능에서 나아가 건물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함에 대한 관심이 건축제의 안팎에서 높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패션 산업에서 나아가 컴퓨터, 항공운송산업에까지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내고, 많은 에세이들이 수록된 것이 이번 특집이 지난 유사한특집과 차별되는 면모이다

#### 특집: Fashioning Spaces

#### 건축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건축디자인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서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 정보가 다원적으로 교 환되는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 건축은 기업 브랜 드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 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개개 의 비즈니스 전략상의 메시지 발신지로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 장소를 점하고 그곳을 구축해 감으로써 도시의 환경을 개선해가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장기적으로 사회 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입 장에서 건축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서 담당하 길 바라는 공헌도의 기대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건축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 행착오를 거쳐왔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구 축에 관여하는 건축도 늘어가기 시작했다. 건축 공간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기업 브 랜드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물 론이고 건축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미래 를 만들어 가려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을 다하면서도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그 존재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건축 을 향하여 수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건축에 기대하는 점 그리고 건축사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





애플의 새로운 샵들

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터뷰와 에세이를 축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건축디자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 사례와 에세이들

건축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 용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최근 a+u지의 여러 특집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특집이 기존 의 특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루이뷔통. 에르메스, 프라다 등 패션 브랜드와 그 샵의 건 축디자인에 관심이 모아져 왔던 반면 이번 특집 에서는 IT산업, 항공산업 등으로 그 영역이 넓어 졌으며, 도시의 중정이나 시장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적 맥락의 프로젝트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익히 봐 왔던 패션 브 랜드의 샵 디자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많은 편수의 에세이가 수록되었 다는 점이다. 그간 단편적인 사례의 모음에 그쳤 던 특집들에 비하여 에세이가 늘었다는 것은 최 근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대하여 일차적인 관찰 에서 벗어나 이를 해석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애플의 새로운 샵들

식상한 패션 브랜드의 샵 디자인들에서부터 신선함을 주는 것은 애플 컴퓨터의 샵 디자인이 다. 애플사는 새로운 샵 디자인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지난 1년 반동안 추진 해 왔다. 애플의 새로운 샵들(Apple High-Profile Store)은 조명, 공조, 방재 설비들이 깔 끔한 디테일 속에 완벽하게 통합된 천정디자인 과 유리와 알루미늄 접합재로 이루어진 정밀하 고도 세련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단풍



디자인한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새로운 일등석 스위트의 디자인

나무로 만들어진 심플한 형태의 가구들은 유리 의 차가운 이미지에 따뜻함과 친숙함을 더해 균 형을 이룬다. 애플 샵에 사용된 유리는 여러 겹 을 겹쳐 통상 유리가 지니는 것 이상의 강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리를 사용한 다 자인과 차별된다. 높은 강도를 지니게 된 유리는 간막이벽으로써 뿐만 아니라 슬래브. 계단의 발 판. 다른 부재를 지지하는 벽체 등 비교적 큰 하 중을 견뎌야 하는 부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로 써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날렵하고 투명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뉴욕, 샌프란시 스코 도쿄 런던 등 서로 다른 도시에 지어진 샵들은 모두 이와 같은 통일된 디자인이 적용되 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존 F 케 네디 공항의 버진 아틀랜틱(Virgin Atlantic) 클 럽하우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설계:SHoP)이나 피 어슨로이드(PersonLlovd)가 디자인한 버진 애 틀랜틱 항공사의 새로운 일등석 스위트의 디자 인, 그리고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전시된 '항공산업-항공 여행의 디자인과 건축전'은 항 공 산업과 건축디자인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들 고 있다. 또한 헤르조그 드 믈렁(Herzog de Meuron)의 '뮌휀시 중심의 5개의 중정' 프로젝 트(사진10)는 건축이 얼마나 도시의 활력에 영 향을 주고 또한 기여하는가를 보여주는 프로젝 트라 할 수 있다. (번역 / 강상훈)

0507 대한진축사협회